

현묵 스님(송광사 유나)
금강경은 인류 교과서
독송하면 뇌세포 안정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0월 1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21호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해인사에 呪文 낙서 '훼불의 악몽' 재현

40대 여인, 경내 전각 17곳 훼손… 25일 경찰 검거

훼불의 악몽이 이번에는 국보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선해)에서까지 재현됐다.

해인사는 11월 23일 대적광전을 비롯한 경내 주요 전각 17곳에 이교도의 소행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돼 합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낙서를 한 40대 여성은 수사의뢰 2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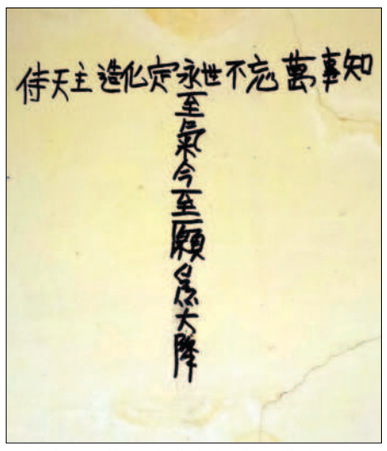
검거된 김모(48)씨는 11월 20일 대적광전, 비로전 뒷벽과 독성각, 명부전 등에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특정종교의 주문을 검정색 사인펜으로 낙서했다.

경찰에 검거된 김 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낙서를 했고, 특정종교의 신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 주거지 대문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자를 발견했으며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향후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인사 홍보국장 종현 스님은 "이번 사건을 국격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자 훼불 행위"라면서 "전통 문화재에 대한 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사는 11월 23일 대적광전을 비롯한 경내 주요 전각 17곳에 쓰여진 특정종교 주문 낙서들. 결국 낙서를 한 40대 여성은 수사의뢰 2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해인사

특정종교 기도주문 추정
'侍天主…' 한자 21자 써
"악령 쫓으려 했다" 주장
증오방지법 제정 필요해

훼불 양형 기준 높아지나

국보가 있는 사찰에 까지 훼불이 이어진 데 대해 불교계는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형 훼불과 종교편향 사건들이 이어졌던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대법원이 내년부터 불상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월 21일 제60차 전체회의를 열어 손괴죄, 장물 등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손괴죄 범위를 △재물손괴 △공익건조물 파괴 △지정문화재 손상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상습과 누범, 특수 손괴 등으로 처벌 수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이웃종교 시설 등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가중 처벌받게 된다. 즉, 국가지정문화재인 불상을 훼손했을 경우 3년에서 6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 손상의 경우 7년까지 형이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양형기준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해인사 훼불사건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자신의 종교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도 수반돼야 한다"면서 "특히 일부 광신도들에게 의해 자행되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훼손은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상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인 것은 성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사회 보수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보수 개신교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발탁되는 등 앞으로 종교 갈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교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필리핀 재건복구 완공

지난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11월 26일 타나완 국립고등학교 완공을 끝으로 380일간의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한국에서 파병된 아라우 부대와 협력해 필리핀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복구작업에는 총 4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사진은 타나완 국립고 완공식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과 아라우 부대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 기사 5면〉

글=배현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종교인 과세, 올해도 사실상 무산

국회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서 제외… 정치권 '몸사리기'

불교 · 가톨릭 "과세 찬성"
국민 70% 이상 과세해야
개신교 반대로 다시 苦杯

46년 간 성역으로 있던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측은 종교인 간담회를 열고 이해를 구했지만 개신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올해에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월 26일 지정 · 발표한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는, 당초 포함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부 안에 해당돼 심사 안건에 포함됐으며, 11월 24일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종교인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도 종교 간의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불교와 가톨릭은 종교인에 소득세 부과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개신교계는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안은 종교인 소득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부 교단 측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목사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과세점 이하이므로 자발적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이미 종단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재확인했다"면서 "조세소위 간담회에서는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계세주의' 원칙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46년 동안 정부와 종교계 간 지리한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다. 70%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은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2012년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미지 국민여론조사'에서도 87%의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하지만 개신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과세 추진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종교 시설은 9만여 소이며 성직자 수는 36만 5000명에 이른다. 일부 유명 목사들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많지 않다.

사실상 세수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2012년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열린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의 세미나에서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는 종교인들의 소득 신고를 통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 △대형 교회 및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다시 종교인 과세가 무산됨에 따라 한동안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년에는 총선이, 2017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개신교의 반대로 종교인 과세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원칙이 있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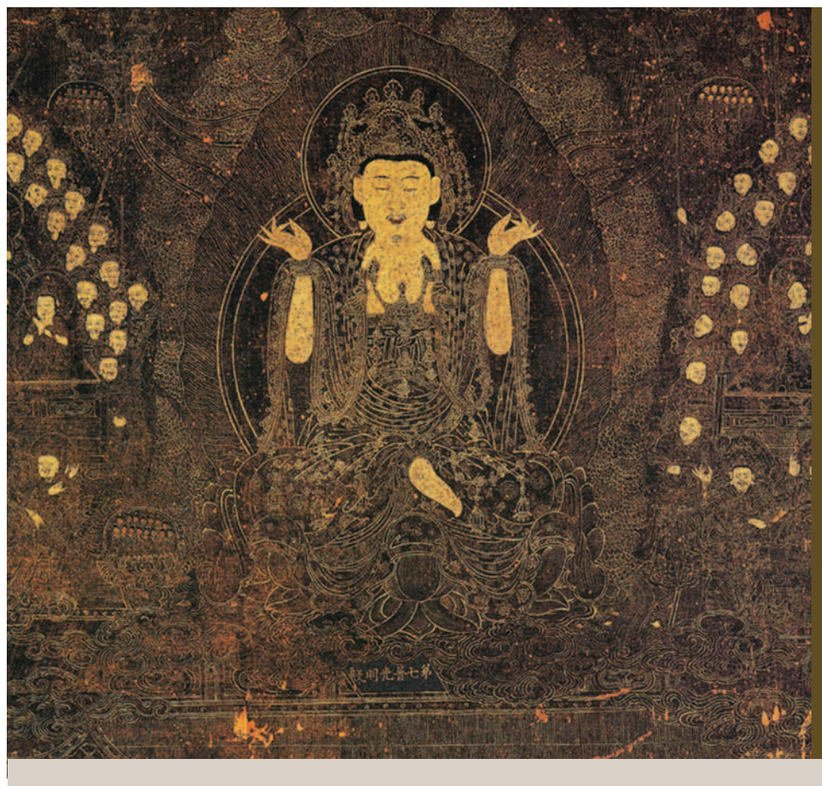
1021호 INDEX

신행 6
마가스님의 서울대공원 낙엽길 걷기 명상



문화 20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13일 30주년 음악회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2014.12.22 (월)
회향 2015.01.19 (월)
장소 통도사 설법전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 영가동참비 : 1위당 이만원 |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통도사 종무소 ☎ 055) 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 381-1288

태고종 비대위, 도산 스님 불신임 결의

총무원측,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신청

태고종의 내홍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 측과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0월 11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도산 스님을 불신임하고 총무원장으로 종연 스님을 선출했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과 종연 스님에 대한 '효력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산 스님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공 스님, 호법원장 수열 스님이 참석했다.

이들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현 집행부를 비판하고 조속한 종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3원장 스님들은 "도산 스님은 독선과 독주로 작금의 파행적 종단 사태를 야기했다"면서 "도산 스님이 표방하는 개혁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 이를 공격하는 데 치우쳐 있어 이상적 자아도치에 가깝다. 급기야 종정 스님에 대한 감금과 협박으로 허위문서까지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종단 사태의 치부를 정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태고종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3원장도 제17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새로운 종단을 향한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3원장 스님들은 "총무원사 불법 점거와 해임된 직위로 행해지는 탈법적 종무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종도들도 비상대책위원회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인사 잇달아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 · 불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임명



조계종이 내년도 종무행정 변화를 위한 정기 인사를 진행했다. 교육원은 부 · 국장급 교역직 인사를 예고했으며,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인사도 대폭 단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현응 스님의 교육원장 재임을 맞아 11월 25일 교역직 종무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신임 교육부장으로 진각 스님〈사진〉이 임명됐으며 교육부장이었던 정도 스님이 불학연구소장으로, 연수국장이었던 진광 스님이 교육국장으로,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이었던 석중 스님이 연수국장으로 인사 이동한다.

교육부장으로 임명되는 진각 스님은 혜암 스님을 은사로 1986년에 수계(사미계)하고 해인사 승가대학과 율원에서 수학했으며, 해인사 사회국장,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포교국장, 조계종 환경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합천 연호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불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도승 스님을 은사로 1985년에 수계(사미계)하고 동국대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통도사 포교국장과 통도사승가대학 교수, 조계종 교육아사리 등을 역임했다.

차 · 팀장 소폭 인사 이동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일반직 종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단행됐다. 조계종은 11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14년 정기 인사를 확정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차 · 팀장급의 인사 이동이 눈에 띄었다. 차장급에서는 김영주 사회팀장이 교육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병주 교육차장은 한국문화연수원으로 이동한다. 이석심 총무차장과 윤영희 포교차장은 유임됐다.

팀장급에서는 조영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이 총무팀장으로, 전인동 직할교구팀장이 사찰교무팀장으로, 이동선 기획실 행정관이 직할교구팀장으로 임명됐다.

기획팀장에는 윤승환 사찰교무팀장이, 사회팀장은 김용구 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팀장에는 한승희 행정관이 승진했으며, 박정규 홍보팀장은 교육팀장으로 이동했다. 또한 중앙신도회에 파견됐던 황철기 팀장이 포교팀장으로 임명됐다.

승려복지회에는 봉은사로 파견됐던 박종학 종무실장이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봉은사 종무실장에는 장영욱 조계종출판사 유통사업부장이 임명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팀장에는 양원준 사회부 행정관과 김한일 법무감사팀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동 총무부 총무팀장은 불광출판사 편집장으로 이직하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추진

25일 교구본사주지협 회의서 밝혀… 토론 실효성은 '의문'

조계종이 2030년 미래 한국불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대중공사를 추진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5일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제36차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계획안을 보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100인 대중공사는 교구본사,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원로 · 중진, 강원, 선원, 율원, 비구니회, 포교신도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 및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출재가자 100~12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은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중앙종회의원 지홍 스님(불교광장 회장), 총무부장 정만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맡고 추진위원으로는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교역직 인사, 중앙신도회장, 포교사단장, 대한불교청년회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15인이 참여한다.

대중공사 운영 방식은 바람과 희망, 질문을 통해 대중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내년부터 총 10회 내외로 열릴 예정이다.

대중공사의 시작은 오는 12월 23일 생명평화 1000일 정진 회향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000일 회향식과 더불어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을 함께 봉행한다.

10차례에 걸쳐 열리는 대중공사의 주제와 일정도 대략적으로 정해졌다. 1차 대중

오는 12월 23일 출범식 개최
출재가 사부대중 100인 구성
10개 주제로 상호간 의견 개진

1000일 정진 '출구 전략' 될 듯
야단법석과 내용 · 형식 유사해
"토론 아닌 실제적 변화 이끌어야"

공사는 내년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한국사회 현실과 지역불교의 미래' 를 주제로 열리며, 2차 대중공사는 3월 18일 '조계종 청규, 승가청규와 사부대중 승풍진작(장소 미정)' 을 3차 대중공사는 '선거제도, 총무원장 직선제와 종교단체의 구심력과 원심력(장소 미정)' 을 주제로 각각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부장은 정만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성찰하고 종단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년도 핵심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는 현재 결사추진본부가 진행 중인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 전략' 으로 풀이된다.

기실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은 대중 참여나 사회 영향력 면에서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6월 이후 세월호 기도를 포함하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대부분 시기의 정진은 특정 사찰과 신도단체에 국한돼 진행됐다. 이 때문에 정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종단 안팎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사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 하며 1000일 정진을 마무리하는 '출구 전략' 이 필요했고, '100인 대중공사' 로 귀결됐다는 해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대중공사는 조계종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개선돼야 할 점을 바로잡기보다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 문제를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환부 위에 예쁜 옷만을 덧 씌워 감추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공사보다는 진실한 자정과 개혁이 요구된다. 결사추진본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100인 대중공사' 가 산재한 종단 현안에 대한 묘책을 도출하는 회의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결사추진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야단법석을 진행해 왔지만, 광의적 주제와 난상토론식 회의 진행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100인 대중공사' 역시 이전의 '야단법석' 식 운영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 '100인 대중공사' 는 야단법석뿐만 아니라 2011년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개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토론회' 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면서 "지금 종단과 현 집행부의 상황에서는 대중공사가 아닌 변화에 대한 실제적 결과물들을 종헌 · 종법 등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대중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03년 이후 첫 개성 순례… 재개 기대감 고조

천태종 · 조불련 개성 영통사서 복원 9주년 기념 합동법회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11월 26일 개성 영통사에서 복원 9주년을 기념하는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남측 천태종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민족 내부의 반목과 불신을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11월 26일 북측 개성 영통사 경선원에서 '영통사 낙성 9주년 기념 및 의천 대각국사 913주기 열반 다례재 남북합동법회' 를 봉행했다.

양측 불교 대표들은 보광원을 참배한 뒤 대각국사 진영을 봉안한 경선원으로 이동했다. 남북합동법회에는 천태종 사회부장 설혜 스님(단장)을 비롯해 총무부장 월도 스님, 규정부장 용문 스님 등 남측 대표단 30명과 리규룡 조불련 부위원장과 차금철 서기장,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과 정각 스님, 리현숙 전국신도회 부회장 등 북측 대표단 20여 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연설에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열반 913주기 다례재와 영통사 복원 9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만남은 민족의 단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보다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보다 자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통사를 방문하고, 아울러 주변의 다른 사찰과 역사유적들을 순례하는 길도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이어 천태종 규정부장 용문 스님과 조불련 차금철 부장은 참석 대중을 대표해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남북 불교도들은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불심을 모아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내부의 반목과 불신, 긴장과 대결을 걷어내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 후 남 · 북 불교도들은 관음사와 박연폭포, 개성 시내(선죽교, 고려박물관)를 순례했다. 특히 2003년 10월과 11월 영통사 복원 1 · 2차 지원 이후 끊겼던 관음사 순례와 박연폭포 관람이 재개돼 개성 관광과 성지순례의 새 물꼬를 텄다.

김주일 기자

쌍계사 신임 주지 정인 스님 임명

11월 24일 임명장 수여



쌍계총림 쌍계사 신임 주지에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 교수 · 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방장 스님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인 만큼 사부대중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정인 스님은 "쌍계사가 천년고찰로서 오랫동안 전통을 잘 지켜온 만큼 새로 주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총림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방장 스님을 위시해서 선방과 대중스님들을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교구본사니까 총무원 정책 수용에도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한국 비구니의 청정성 회복과 승가상 확립을 위한 공청회

◆ 취 지 문 ◆

전국비구니회가 발족된 1985년 이래 지금 비구니 승가에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과정에서 일어난 운영위원장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독선적이고 파행적인 행위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불만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은 전국비구니회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단체로 전락하여 더 이상 전체 비구니스님들의 권익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0월 13일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스님들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국비구니회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비구니 승가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비구니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이번 공청회는 앞으로 전국비구니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공청회에 동참하여 추락한 비구니의 위상을 회복하고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비구니 스님들에 의한 진정한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 2558(2014)년 11월 27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 혜운, 행법, 정현, 임대 합장

◆ 공청회 주제 ◆

주제 1 열린비구니모임 발족동기와 행보 그리고 향방
주제 2 현 전국비구니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주제 3 한국비구니의 승가상 확립을 위한 대안 모색

일 시 ▶ 불기 2558(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낮 12시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2
대 상 ▶ 비구니스님만 참석 가능합니다.
주 최 ▶ 열린비구니모임을 지지해준 모든 단체 및 사찰
주 관 ▶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 02)739-6697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521호
참 조 ▶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 서명은 계속 받습니다.

■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셔틀버스이용 (20분, 40분출발)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매헌)역 5번출구 (도보 7분)
- 버 스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마을버스 8번 승차 후
  더케이호텔서울 정류장에 하차 (도보 3분)
- 자가용 : 서울 양재IC 이용

명상 대중화 위한 지도자協 설립

조계종 포교원 명상지도자 초청 간담회서 결의

국내를 대표하는 명상 지도자 스님들이 모여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지도자 간 상호 교류와 명상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단체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교명상지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 14명의 불교명상 지도자 및 포교원 인증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교계 불교명상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및 마련에 공감하고 불교명상지도자협회(가칭)을 발족했다. 회장은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이, 부회장은 인경 스님과 김재성 교수(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가 맡았으며, 기획위원 및 분과를 구성해 2015년 2월께 출범식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명상지도자들은 "내년 2월 정식으로 출범식을 갖고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명상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 불교명상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명상지도자 육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간담회에서는 인경 스님이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오원명 교장(간화선 수행학교)이 '간화선 대중화와 불교명상'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명상을 대중화하기 위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인경 스님은 "명상 붐이 지속 되고 있는 반면, 기도 · 법회형 포교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며 "이럴 때 불교계는 불교명상지도자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교명상지도자를 위한 국가공인자격증을 획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용타 · 부회장 인경 스님
조직 구성 후 내년 2월 출범
"명상 지도자 교류 확대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상설화해야"

특히 인경 스님은 불교계 불교명상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 명상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네 단계로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교명상지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인경 스님이 제시한 첫 번째 단계는 불교명상지도자들의 교류 확대와 프로젝트 수주다. 명상지도자들간 상호교류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끌어올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스님은 두 번째 단계로 학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명상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통합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은 "현대사회는 자격증 시대이다. 자격증을 각 단체별로 발급을 하는데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협회 전체적인 통합된 자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명상지도자 양성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00년 동안 지속적이고 역량 있는 지도자 배출을 위해 동국대, 승가대 등 기존의 대학들을 활용하거나 협회 자체적으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화선 수행학교 오원명 교장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들의 고뇌를 언급하며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교장은 "한국은 일제 탄압과 6 · 25 전쟁 등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앞 세대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정신을 물려받아 정신적 방황으로 괴로워 한다"며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선 실제적인 명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나쁜 습관 버리고 신년 준비 하세요

문화사업단, 12월 20~21일 '만나주오 템플스테이'

12월 7일까지 사전 접수

세상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다. 커피, 담배, 술, 스마트폰 그리고 업무까지. 이제는 습관을 넘어 중독이 돼버린 구속 인자들을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가 준비한 신년 준비 프로젝트를 주목해보자.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해로운 습관을 버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나를 만나게 되는 '만나주오(滿娜珠吾)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오는 2015년을 맞아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 20~3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진행된 '2030 마음 치유 템플스테이'의 시즌2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시즌1이 청년들의 마음자리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는 '위로'의 템플스테이였다면, 시즌2는 '해소'의 의미를 더해 한층 진화했다.

내용도 풍성하다. 놀이 치료, 춤 테라피 등 마음치유 명상을 통해 내면을 가다듬는 것은 물론, 미래의 나에게 전달하는 타임레터, 동지팥죽 공양, 음악과 대화가 있는 일감스님의 '만나주오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태화산의 맑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휴식은 보너스다.


지난해 진행된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 시즌1 모습. 이번에 열리는 시즌2는 '해소'의 의미를 더해 한층 진화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현대인들은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저마다 '중독'의 문제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의 심신 수양을 돕는 건전한 콘텐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템플스테이를 통해 더없이 행복한 추억과 지침을 얻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만나주오 템플스테이' 참가를 희망하는 20~30대는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벤트 홈페이지(http://2030.templestay.com)에 신청 사연을 작성하면 된다. 참가자 확정은 12월 10일에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출판문화상에 〈미술관에 간 붓다〉

조계종, 25일 발표… 오는 12월 9일 시상식

명법 스님의 〈미술관에 간 붓다〉(나무를심는사람들)가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11월 25일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내역을 발표하고 12월 9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명법 스님의 〈미술관에 간 붓다〉(나무를심는사람들)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김성철 교수의 〈붓다의 과학이야기〉(참글세상), 성낙주 씨의 〈석굴암 법정에 서다〉(불광출판사)가 채택됐다.

〈미술관에 간 붓다〉는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 스님이 누구나 한번쯤 접해 본 불교예술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책으로, 본지에 '불교와 미학'으로 연재한 내용을 더 보완해 출간한 것이다.

입선으로는 돌스튜디오의 〈10대와 통하는 사찰벽화 이야기〉, 정상교 〈도쿄대학 불교학과〉, 범일 스님 〈수트라〉, 최혜자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김병훈 〈해커붓다〉, 배종훈 〈행복한 명상 카툰〉, 고상현 〈정도전의 불교비판을 비판한다〉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올해는 특별히 학담 스님의 〈아함경〉은 특별상으로 선종됐다.




제1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받은 〈미술관에 간 붓다〉와 저자 명법 스님(사진 왼쪽). 수상작은 본지에 '불교와 미학'으로 연재한 내용을 보완해 출간한 책이다.

대상 상금은 1,000만원, 우수상은 400만원이며, 올해의 불서에 선정된 나머지 7종의 도서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불교출판문화상은 2014년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 51개 출판사의 총 104종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김호성(동국대 교수),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최승천(미디어붓다 선임기자), 백승권(글쓰기 강사) 씨가 맡았다.

노덕현 기자

올바른 비구니 승가상 모색 위한 공청회 열린다

열린비구니, 12월 18일 더케이호텔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으로 전국 비구니회 집행부와 갈등을 진행 중인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이 공청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열린비구니모임은 오는 12월 18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 비구니의 청정성 회복과 승가상 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비구니 스님만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열린비구니모임 발족동기와 향후 방향 △현 전국비구니회의 문제점 △한국 비구니의 승가상 확립을 위한 대안 모색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열린비구니모임은 공청회 취지문에서 "열린비구니모임과 이를 지지하는 스님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1차적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 비구니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이번 공청회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주어사, 종교화합 성지로 만들어야"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25일 '주어사 갈등' 야단법석

가톨릭 성지화 사업 위험성 높아
주어사 역사적 다양성 인정 필요

조선 후기, 여주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주어사에서는 조선의 탄압을 피한 가톨릭 학자들이 강학과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결국 순교했으며 이들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주어사는 폐사당한다.

이런 주어사의 성지화를 사이에 두고 가톨릭계와 불교계가 맞서는 가운데 대중결사모임인 '붓다로 살자'가 주어사 성지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열었다.

'붓다로 살자'가 11월 25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개최한 야단법석에서는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장, 한상봉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주필을 비롯해 조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사 등이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학기 신도회장은 사회 · 역사적 관점에서 주어사 복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가톨릭이 한국에 자리잡은 이면에 불교계의 포용정신이 있었다"며 "주어사 복원은 이런 사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사도 "가톨릭 뿐만 아니라 실학자들도 사찰에서 다양한 사상을 모색했다"며 "사찰이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이 움트는 산실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한상봉 지금여기 주필은 "천진암과 주어사는 천주교에 있어 또한 천주교에 있어서 어머니 모태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며 "두 성지는 불교보다 천주교에 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정 공간을 선점하려는 태도는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주필은 "다종교사회에서 한 지역을 특정성지로 만드는 것은 지배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지화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조현 기자도 "두 종교가 성지화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것 보다 함께 소외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내면 성찰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평에서는 주어사지를 종교화합의 성지로 가꿔가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유신 붓다로살자 기획실장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동일한 공간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주어사는 불교, 가톨릭, 유학의 세 종교가 함께 공존했던 곳으로 경쟁관계가 아닌 화합의 상징으로 가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장병위문법회 동참 감사의 인사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입동지절에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에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 5회째를 맞아 5천여 훈련병들에게 위문품과 함께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사기진작을 복돋아 주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신 종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4월,11월)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위문법회를 봉행하오니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여 호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국연무사 지운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23일

종정 석월인 화남, 총무원장 법수 합장

- 동참 스님 -

●종정 월인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대종사
●원로원장 혜공 대종사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운 대종사
●울산광역시 종무원장 도성 스님 ●대전 종무원장 법지 스님
●재무원장 북천암 주지 무착 스님 ●총무원장 법수 스님
●총무부장 동일 스님 ●약천정사 현성 스님 ●무찰 스님
●구미 봉죽사 주지 법종 스님 ●승가사 주지 선견 스님
●성주암 주지 법등 스님 ●호봉사 불전 스님 ●약사암 혜전 스님
●천왕사 선웅 스님 ●몽불사 주지 법관스님, 총무 묘전스님
●무량사 주지 법산 스님 ●미타사 주지 원경 스님
●천태암 주지 도광 스님 ●보현사 주지 선호 스님 ●약사암 주지 정광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사서실장 무량 스님 ●보성사 주지 원명 스님
●보혜선원 주지 보혜 스님 ●영복사 주지 보현 스님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전화 : (051)552-8554, (051)556-0278 전송: (051)556-8551

일 주 문



특전사 수계법회서 법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1월 23일 광주 특수전교육단에서 열린 특전사 교육수료식 후 열린 수계법회에서 법사로 법문했다.



불교언론인회 2014정기총회

윤청광 불교언론인회 회장은 11월 28일 인사동 포도나무집에서 2014불교언론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사硏 제9차 집중세미나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은 12월 13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에서 '원효와 동아시아 유교사상가의 만남' 제9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덕숭총림 선덕 정암 법찬 스님 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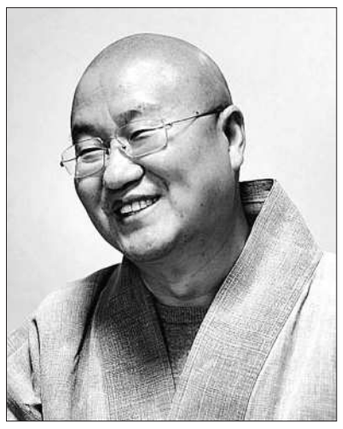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인 정암 법찬 스님이 11월 25일 법랍 53세, 세수 72세로 원적에 들었다. 분향소는 예산 수덕사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 수덕사에서 진행됐다.

1962년 정혜사에서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법찬 스님은 1974년부터 해인사 등지에서 14안거를 성만했다. (041) 330-7700

"민추본 지역확장 구심점 역할 할 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



12월 7일 부산일보 대강당서 발대식
범종단 연계, 지역 인식 개선 중점
출·재가 운영위원 두고 활동력 배가

"그동안 조계종 공식 대북창구이자 남북불교교류의 창구 역할을 해온 민족공동체운동본부는 서울이 중심돼왔습니다. 남북불교교류나 통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추본 부산본부는 대구, 대전, 광주 등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첫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이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종재 자승, 이하 민추본) 부산지역본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민추본 부산본부는 12월 7일 오후 1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부산지역의 남북불교교류 활동의 첫발을 디딘다.

심산 스님은 부산 본부 출범식에 앞서 "부산에서는 민추본과 연계한 대북관련 활동이 미약했다"며 "민추본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점(據點)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추본 부산지역본부 창립은 남북불교교류 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중앙 중심으로 진행돼 온 한계를 극복하고 교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참여 유도와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심산 스님은 가장 먼저 부산지역의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산 스님은 "부산지역에서는 민족공동체라는 이름에서 '친북' '좌파' '좌북' 등의 개념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다"며 "조계종에서 이끌고 있는 남북불교 공식 창구임에도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그동안 부산불자들은 종단에서 진행한 대북관련 행사를 기사로만 접해왔다. 이젠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심을 끌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등 지자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대북관련 민간 기업 및 삼광사에서 운영하는 대북사업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가자와 재가자 각각 15명씩 운영위원으로 임명해 활동력을 높이기로 했다.

부본부장에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내정됐으며, 승가위원에는 마하사 진효 스님, 발원사 호법 스님, 내원정사 지일 스님, 여여정사 도명 스님, 원오사 정관 스님, 공덕원 능호 스님, 대둔사 주석 스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가위원에는 박상명 부산시의회 의원, 박대성 김해복음병원 이사장, 김광수 부산민주공원 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홍법사에 두기로 했다.

심산 스님은 "부산본부 창립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도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되며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및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051)508-0345 하성미 기자

군종교구 제46회 군승의날 성료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27일 일산 여래사에서 제46회 군승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군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포살법회와 추모재에 이어 열린 기념법회는 헌화와 순국선열과 순직 군승에 대한 묵념,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기에서 3기까지 원로 예비역 군승들에 대해 공적패를 수여됐다. 행사에는 김태영 前 국방장관과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지낸 원태호 예비역 중장 등 현역과 예비역 군 불자들도 참석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소임 보는 동안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하는 군법사들에게 힘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26일 개막



조계종 총무원은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기획전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발걸음, 동행' 전 개막식을 11월 26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3층에서 가졌다.

이번 전시에는 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작가의 작품은 물론, 불교적 사상과 색채가 담긴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이 전시된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설법硏, 불교활동가 1천만원 지원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선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활동가 5명에게 각각 지원금 200만원 씩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금을 전달받은 불교활동가는 구미마하이주민센터 포브 소페악 스님과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장,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임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 등 5명이다. 설법연구원은 지난 11년간 총 32명에 6400만원을 지원했다. 배현진 기자

승가종, 제5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



(사)대한불교승가종(종정 월인, 종정협 이사장)은 11월 23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대법당에서 종도 및 각 종단 지도자 등 50여 명과 훈련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종정 월인 스님은 법회에서 "군생활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 때 호신진언을 염송하며 무사히 이겨나가자"며 "옴치림을 하게 되면 위험한 고비에서 틀림없이 액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승가종 원로원장 혜공 스님,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스님, 금강조계종 종정 법혜 스님, 지장종 종정 일월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호국연무사 발전기금도 전달식도 진행됐다. 한편, 대한불교승가종은 장병 포교의 원력으로 5년째 봄에는 수계법회와 가을에는 위문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바른 행, 보현보살 삶 실천할 것"

불교여성개발원장 이취임식, 제8대 박순 원장



제8대 불교여성개발원 박순 원장<사진 왼쪽>의 취임식이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7대원장을 비롯한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식전공연, 영상보고, 감사패 증정, 이임사, 임명장 수여 및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박순 제8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과 함께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마음으로 지혜로운 보현보살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권경임·원영상, 전법학술상 수상

불광연구원 12월 14일 잠실 불광사서 시상식



권경임 박사



원영상 박사

불광연구원이 선정하는 전법학술상에 권경임·원영상 박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24일 제3회 전법학술상 수상 대상으로 권경임 박사의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 활동방안 연구', 원영상 박사의 '일본 시종(詩宗)의 조사 잇펜(一遍)의 전법행각과 그 현대적 의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경임 박사(복지영성연구소 대표)의 논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불교계의 참여가 부족한 국제개발협력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한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

권 박사는 논문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이웃종교의 NGO활동자료와 사례를 불교계 활동과 비교 분석해, 불교계 구호활동 발전이 정체돼있음을 지적하고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원영상 박사(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사무국장)는 논문을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전법승인 잇펜(一遍: 1239~1289) 스님에 대해 고찰했다. 잇펜 스님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국내 첫 성과물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불광연구원은 12월 14일 오전 10시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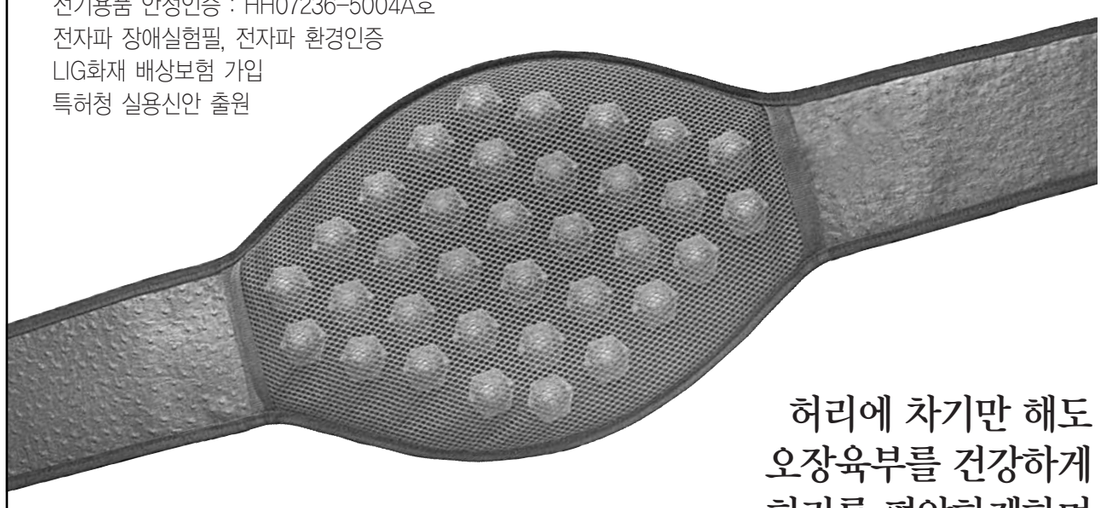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지구촌 재난 현장에 자비를 심다

아름다운동행, 5년간 해외구호사업 일단락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해외 긴급구호 사업이 11월 26일을 기점으로 일단락을 맺는다.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중국 · 칠레 · 파키스탄 · 일본 등지에서 이어져 온 재난 지원이 필리핀 타나완 국립 고등학교 완공과 함께 잠시 휴식기에 접어드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긴급구호봉사단을 사건 발생 이틀만에 파견하고 8천가구에 구호키트를 전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이어 필리핀에 파견된 아라우 부대와 협약을 맺고 380여일간 재건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6월 필리핀 팔로시 파윙 초등학교 완공을 시작으로 6개 초 · 고교를 완공했다. 태풍으로 날아간 지붕 강판 교체 및 파손 벽체 보수부터 급수 및 오배수 시설 보수, 전기 배선 작업, 놀이기구 세트 설치까지 완료한 것이다.

타나완 국립고 완공식에서 자승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여기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달려와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며 "한국의 많은 사찰과 불교 신자들이 하이옌의 피해 복구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던 것은 필리핀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나완 고등학교 학생들이 훌륭하게 자라 나와 이웃, 인류가 공존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여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팔라히오 텍슨 주니어 타나완 시장도 "타나완을 위해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조계종과 아라우부대의 노력으로 학교 건물이 복구됐다"며 "여러분이 보내 준 지원과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난 이전의 삶 복구

이처럼 1차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복구까지 도와준 곳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다.

2010년 발생한 강진으로 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50만명의 이재민이 생긴 아이티에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 재건과 교육복구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헤르메 바야드 고등학교는 2011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9월 완공됐다. 아이티는 2008년 재단이 생긴 후 처음으로 해외 구호사업을 전개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재단은 중국 · 칠레 · 일본 지진 피해 지원, 파키스탄 · 인도 · 태국 수해 복구, 아프리카 모기장 지원 등을 해왔다.



아름다운동행이 11월 26일 타나완 국립고등학교 완공을 끝으로 380일간의 필리핀 재건사업을 완료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현지 아라우 부대 장병들과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이 완공된 학교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0년 아이티강진 피해지원서 시작
일본 · 태국 등 9개국에 약 20억원 지원
재난 복구지원 및 재건사업 주력
유네스코 협력 통해 단체 공신력 얻어

그동안 아름다운동행이 해외에 지원한 금액은 총 19억6천만원. 2011년 일본 지진 및 쓰나미 지원으로 6억7천만원, 아이티 지진으로 인한 긴급구호와 학교재건에 5억3천만원이 쓰였다. 필리핀에는 4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5년간의 해외구호 사업이 잠시 끝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아름다운동행은 당분간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네트워크 강화 성과…과제는?

지난 5년간 아름다운동행이 해외구호사업에 나섬으로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것은 성과로 꼽힌다. 특히 아이티의 경우 유네스코와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만큼 재단의 공신력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외사업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해외전문 구호단체가 아니기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노하우와 정보 부족 역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각 국가의 정관계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재단은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이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건립사업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구호사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 불교의 해외구호사업 참여는 타 종교단체에 비해 한참 늦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교계에는 해외사업 전문가가 부족하다. 재원규모도 2천억원에 달하는 월드비전 등에 비하면 동행이 해외사업에 쓰는 비율은 20억원 대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불자들 사이에서 기부문화가 자리잡히지 않은 것 역시 풀어야할 숙제다. 재단 개인후원 대다수가 불자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 및 사찰 기부 비율은 전체 긴급구호 조성기금의 72%에 해당한다. 아직 불교계에 모금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 박성주 모금팀장은 "나눔과 보시가 다르지 않은데 아직 불자들 사이에서 모금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10월 8일을 기부데이로 정하고 나눔을 독려한 것처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법을 꾸준히 전개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의료봉사


2011년 일본대지진시 위문방문


2011년 태국 홍수피해 의료지원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구호활동


2014년 아이티 헤르메 바야드 고교 완공식


필리핀 학생들이 완공된 학교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긴급구호 활동실적

국가	사업내역(전달기금)	사업기간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5억3천만원)	2010~2014
중국	지진 구호기금 지원(6천2백만원)	2010
칠레	지진 구호기금 지원(30만원)	2010
파키스탄	수해 구호기금 지원(5천9백만원)	2010
인도	수해 구호기금 지원(1천1백만원)	2011
일본	쓰나미 재난 지원(6억7천만원)	2011
태국	수해 구호기금 지원(1억원)	2011
아프리카	모기장 지원(5천만원)	2011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4억8천만원)	2013~2014

"긴급재해 대응 위한 예비비 조성 나설 것"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해 · 재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발생원인과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공 스님은 "재난에 대한 피해는 이에 대비할 역량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그 피해가 훨씬 크고, 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빈곤층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 이웃들이 안정되고 존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동행이 긴급 재해 · 재난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한 법. 아름다운동행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재해 · 재난 발생으로 고통 받는 세계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공 스님은 "현재 긴급구호자금으로 편성해 둔 4억원을 더 늘려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긴급재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 구호활동 결과는 매우 뒤늦게 나타난다. 지속적인 후원이 지구촌 이웃들이 안정되고 존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자공 스님은 "긴급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이웃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원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이 투명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게끔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교종 주최

"통일부장관 초청"

제2회 전국통일기원대법회 및 문화행사

念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심산리 226-1번지)

■ 주요행사 : 통일부장관 특강, 가야금 앙상블 담현 가야금 합주, 트로트신동 장송호 축하공연



■ 주 관 : (사)세종평화통일포럼

■ 주 최 : (사)대한불교선교종

■ 특별후원 : (사)한국다문화희망협회

■ 후 원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북도

평화통일 한반도

願

(사)대한불교선교종 041)566-2277 | 세종평화통일포럼 044)863-1259

불교상담대학원 후원의 밤 행사 열려

11월 25일 세종문화회관서…작품 경매도 이어져


(사진 왼쪽부터)계환 스님, 혜거 스님, 지원 스님, 정만 스님, 도현 스님이 떡 절단식을 하고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1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불교상담대학원 대학교 설립과 교육관 불사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호계원장 일면 스님, 불교상담대학원 설립추진위원장 혜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티베트 불교학자 글렌 멀린 법사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방송인 김병조 씨와 장용 씨의 사회로 홍보영상 상영과 치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 수여, 떡 커팅, 기증 작품 경매, 소리꾼 장사익과 고한우, 관무용단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행사장에서 후원자로부터 기증 받은 서예와 그림, 도자기 등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불사금을 마련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은 소통부재에서 오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라며 "포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를 건립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티베트 명상전문가 법회 열린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12월 담마토크 아남 툽텐, 글렌 멀린 초청

티베트 명상수행자들의 법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12월 담마토크에 티베트 출신 아남 툽텐(Anam Thubten) 린포체와 캐나다 출신 글렌 멀린(Glenn Mullen) 법사를 초청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12월 13일 오후 2시 대각전에서 '조건 없는 행복을 찾아서'를 주제로 법문을 펼치며 12~14일에는 동국대국제선센터에서 2박 3일간 명상 수련을 지도 한다.



아남 툽텐 린포체(사진 왼쪽)는 12월 13일, 글렌 멀린 법사는 20일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법문을 펼친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티베트 사원에서 보내다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갔다.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수행공동체인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했으며,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티베트 불교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글렌 멀린 법사는 12월 20일 '자비, 지혜 그리고 힘'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의 측근이자 티베트밀교수행 전문가인 글렌 멀린 법사는 1949년 캐나다 퀘벡 출생으로 1972년에서 1984년까지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티베트 4대 종파의 스승 35명으로부터 교학과 수행을 배웠고 달라이라마의 스승인 깝제트리장 돌제창(Kyabje Trijang Dorjechang)으로부터 밀교를 배우고 전수 받았다.

이밖에 12월 6일 미국출신의 한마음선원 청고 스님이 '안정되고 중심 잡힌 삶 만들기'를 주제로 법문을 펼치며 12월 27일에는 인도출신으로 서울대 물리학과에 재학중인 치락 제인(Chirag Jain)씨가 고군분투 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간화선 법회를 열고 있는 국제선센터는 △6일 박규리 교수의 '선시란 무엇인가: 조주의 십이시가' △20일: 황수경 교수의 '마음사용법-자기 내면과의 만남, 자기사랑과 이해' △27일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와 박찬욱 교수의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개최한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2015 겨울 간화선 집중수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1차 수행은 2015년 1월 7~13일, 2차 수행은 2월 7~13일 각 7일간 진행된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걸으며 동물 원혼달래는 '이색 명상'

자비명상공동체 11월 23일 서울대공원과 명상 걷기대회

동물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걷기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이색 명상 프로그램이 열려 눈길을 끈다.

자비명상공동체(대표 마가)는 11월 23일 서울대공원에서 '가을낙엽길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공원 30주년 및 한국동물원 105주년을 맞아 자비명상공동체와 함께 마련됐다. 행사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100여 명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가 스님은 걷기 명상을 시작하며 "발을 들었다 땅에 닿는 그 순간을 느끼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 걷기 명상"이라고 지도하면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림 하라"고 강조했다.

걷기명상이라는 것이 생소한 참가자들에게 마가 스님은 "발에다가 현미경을 놓고 관찰하듯 발을 올리고 내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자체에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걷기를 멈추게 한 뒤 참가자들에게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주문했다. 진 사람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손 끝을 잡고 숲길 걷기를 인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짝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나 않을까 조심스레 짝을 인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다.

이어 낙엽을 주우라고 주문한 마가 스님은 "아무것도 붙들지 마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을 낙엽에 실어 보내세요"라고 주문했다.


자비명상공동체(대표 마가)는 11월 23일 서울대공원에서 '가을낙엽길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100여 명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20~70대 다양한 연령대 참가
"동물원 명상 인상 깊어"한 목소리
동물 위령비서 희생동물 추모도

참가자들은 숲속의 바람은 촉감으로, 낙엽 밟는 소리는 청각으로 느끼며 걸음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다했다. 잠시 후 동물원 가장 위쪽에 위치한 동물 위령비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서울동물원에서 살다 죽은 수많은 동물들을 추모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마가 스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법문도 이어졌다.

"나와 동물의 관계를 바라보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동물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위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생명체들을 힘들게 했는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뭇생명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성찰해보세요. 우리가 앉아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동물이 서로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로 인해 희생된 동물의 아픔을 느껴보세요. 내가 귀하듯이 다른 존재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받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사랑받길 원합니다."

이후 명상가수 김무한 씨가 작사 작곡한 '화' '숨한번' 등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 명상을 한 참가자들은 코끼리 사육 막사로 자리를 옮겨 코끼리와 마음을 나누고 명상의 시간을 지속했다. 마가 스님은 〈백유경〉 이야기를 설명하며 "눈먼 세 장님이 자신이 만진 코끼리 일 부분이 전체의 코끼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과 아만에서 온다"며 "전체를 볼 줄 아는 지혜를 명상을 통해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걷기명상에 참가한 신태희(30 · 여)씨는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명상을 동물원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하니 인상 깊었다"며 "위령비가 있는 곳에서 모든 존재들이 사랑받길 원한다는 마가 스님 법문을 듣고 동물들의 원혼을 달래는 명상을 하는 것이 매우 뜻 깊었다"고 말했다.

박정선(58 · 남) 씨는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가 참가해 하던 기존의 명상과는 달리 불특정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함께 걷기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자비명상공동체는 2015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걷기 명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서울대공원과 함께 개발 · 진행할 계획이다.

마가 스님은 "자연 · 동물과 하나,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인간본위의 삶을 살다보니 주변과 공존하지 못했다"며 "어느 지역에서는 산천어 축제 같이 생명을 잡아서 죽이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러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된 요즘, 불자로서 생명존중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서울대공원과 함께해 뜻 깊었다. 앞으로도 모든 생명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래 서울동물원장은 "서울대공원 30주년 및 한국동물원 105주년을 맞아 자비명상공동체와 손을 잡게 됐다"며 "이번 걷기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여러분이 동물원을 걸으면서 동물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 등 여러 동물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신도지도자 양성 절실…자료 개발 및 교육 필요"

포교원,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세미나 개최

조계종의 신도조직을 이끌어갈 신도 지도자인 선혜 품계 품수자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불교지도자 교육의 목적과 필수요소'를 주제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지도자교육 과정의 과목과 강의시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응철 교수는 "불교계 대부분 사찰에서 신도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역량과 자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신도지도자를 발굴 · 육성하려면 종단 차원에서 공통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정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도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층이어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2회 이상의 집체연수, 그리고 단위 사찰 스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신도지도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종단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종책적 차원에서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도지도자 배출을 위한 지도자 교육에 애정과 관심이 절실한 때"라며 "이번 세미나가 종단 현실에서 시행 가능한 내용인지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은 파

총무원장 한파 원로원장 현각

감찰원장 농파 총무부원장 근파
교육원장 정원 포교원장 혜남

총무부장 도일 재무부장 묵암 교무부장 묘산
교육부장 수암 감찰부장 능일 규정부장 청보
포교부장 경암 사회부장 혜원 문화부장 정암
홍보부장 일산

불기 2558년(2014년) 11월 27일

(사)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

▶ 체탈 도첩 공고 ◀

귀의 삼보 하옵고

본 종단 종헌 종법에 의거 해종행위자로 확인한 바
종법 32조 1항, 종법 26조 4항, 종헌 22조 2항 등에 의거
전 종단 주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으므로
체탈 도첩을 공고 합니다.

● 제적자
만송(홍성익), 인각(한상보),
본지(이성부), 이상 3인

(사)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파

▶ 직인 효력 무효 공고 ◀

본 종단 직인은 체탈도첩자 종회의장 만송(홍성익)이
소지 하고 있는 관계로 종단 대표자 직인 인감을
2014년 11월 27일 부로 그 효력이 무효 됨을 공고 하며,
2014년 11월 14일 만송(홍성익)이
수원 양평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도
아울러 무효로 공고 합니다.

연극으로 인생 2막… 어르신 끼에 반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대동제… 11월 25~26일 열어

고만고만한 키 그리고 짧은 파마. 어르신들이라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취미도 재능도 모두 제각각이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소속 어르신들의 학예제인 탑골대동제, '넌 내게 반했어' 가 11월 25~26일 양일간 개최됐다. 복지센터 내 포크댄스, 합창, 하모니카, 가야금 등 31개 동아리에서 2백여명이 참가했을 만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풍물동아리의 흥겨운 무대로 막을 올린 축제는 태평무, 훌라춤, 라인댄스, 팝송·대중가요 메들리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탑골문화예술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연극 '멋진 인생' 으로 정점을 찍었다.

관객들은 전문배우 못지않은 연기실력을 뽐내는 어르신들에게 한순간에 매료됐다. 극 중간에 대사를 잊어버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발성부터 호흡, 연기 표현까지 3년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흠집낼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할 때마다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배우들이 지나간 세월을 안타까워하며 '청춘을 돌려달라' 고 노래할때는 '잘한다' 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경험에 기반해 만들어진 연극이다 보니 관객들의 호응 역시 어느 공연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

연극 '멋진 인생' 은 어르신이 직접 경험해 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공동창작극이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문화학교인 탑골문화예술학교 연극반 3학년 학생 15명이 연출가의 도움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각색해 만든 작품이었던 것. 6.25 전쟁 당시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1장 '타향살이' , 일만 하다 보니 세월이 다 흘러가버렸다는 2장 '청춘을 돌려다오' ,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에 속앓이

센터 소속 어르신 위한 학예제
합창·가야금·연극·춤 등 다채
31개 동아리서 2백여명 참가 호응

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3장 '웃는 얼굴 다정해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극 제목 역시 어르신들이 직접 정했다.

"젊은 시절 꿈이 가수와 연기자였다"는 연극반 김만수(71) 어르신은 "늦게나마 예전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했다. 경찰, 신부님 등 맡은 배역에 따라 연기 공부를 위해 그들을 직접 찾아가 관찰할 정도로 연극에 대한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다.

김충자(71) 어르신은 "시어머니 연기가 실감나 참 재미있게 봤다"며 "내 나이 또래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문화예술학교 어르신들이 연극 '멋진 인생' 을 선보이고 있다.

양반들이 멋지게 무대에 서는 것을 보니 나도 연극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객석 끝에서 공연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희구(76) 어르신 또한 "해마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날로 발전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보는 사람도 즐겁지만 공연을 하는 이들은 설렘과 흥분에 더욱 신나는 시간이었다. 실용댄스를 선보이기 전 무대뒤에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던 김양택(82) 어르신은 긴장되지 않냐는 질문에 "하면 하는 거지 떨릴게 뭐 있냐"며 호기롭게 웃어넘겼다. 그는 "춤을 출 때는 기분이 달라진다. 나이 먹고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다"며 "춤을 배우고 난 후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했다.

10년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여심(63) 보살은 풍물을 배우고 난 후 건강해졌다는 경우다. 그는 "10년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즐겁게 음악에 맞춰 몸을 놀리고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오늘 무대를 보는 이들은 노년을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반했을 것"이라며 "노년의 아름다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발달장애인, 나의 꿈 주장대회

성북복지관, 발달장애인권리향상 지원프로그램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11월 24일 발달장애인권리향상 아동들을 위한 '자기주장대회' 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움직이는 세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은 본인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연령에 맞는 대우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

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기주장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발달장애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대회를 통해 자기 삶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번동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15명은 하나같이 "학교에서도 발표를 안 해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원고를 쓰고 지워가며 발표가 주는 설렘을 가득 만끽하고 자신감도 얻었다는 후문이다.

'내 친구 소개하기' 와 '친구와 나 사이의 벽' 2가지 주제로 발표를 한 최유진(뇌병변1급) 학생은 몸을 자유스럽게 움직이


발달장애인 학생이 자기 주장대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 못해 친구들에게 번번이 부탁할 일이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에 솔직하게 담아냈다. 최 양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번동중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사 진은숙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뿌듯함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특히 유진이 발표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변지영 선생님 역시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차별과 싸우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천수천안,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전달

12월 4일 송년법회서…자원봉사자 표창도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사장 대오)이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아벨리스 컨벤션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갖는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2002년 경기도 고양시 지역 스님들이 모여 창단, 10년 넘게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다.

이날 행사는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국회의원, 천수천안 관계자, 고양시사암연합회 스님 및 자원봉사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이날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5명에게 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금은 지난 11월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 고양시 복지관 등 각 봉사기관에서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봉사상 수상자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송경자 씨, 고양시장상에 덕암사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 고양시 저소득층 가정에게 '자비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해선 스님 외 7명, 고양경찰서장상에 김현숙 씨 외 4명 등이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우수봉사자에게도 봉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연간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이상 봉사자와 총 누적 봉사 3천 시간, 1만 시간 이상 봉사자들이 대상이다.

봉사단측은 "이번 송년법회에는 금년 5월 개설된 무료급식소 천수천안 자비나눔의 집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난해보다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진각복지기금마련 콘서트 '만월'

나눔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 교육도 진행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은 11월 22일 진각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 '만월(彎月)' 을 서울 강남구 선릉 회당기념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콘서트는 예년과 달리, 나눔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백여명의 청소년들은 정기 봉사, 기부 등 나눔문화교육을 시작으로 야단법석, 비보잉, 홍경민, 아웃사이더 등 문화공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진각종 성초 총인예하를 비롯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회정 정사, 상임이사 회성 정사, 윤희준 진선여고교장, 고병원 진선여중교장,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회정 정사는 "진각복지재단은 그동안 사회의 어려운 곳에 자비를 나누며 50여 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며 발전해왔다.


진각복지재단이 11월 22일 나눔 콘서트 '만월' 을 서울 회당기념관에서 진행했다.

12월 8일 오픈예정인 진각부자가족복지시설을 통해서도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원자들에 대한 공로패도 수여됐다. 신라원 회장 홍병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주묵 씨가 공로패를 전달받았으며 창초사랑봉사대가 자원봉사부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현진 기자

미얀마 오지 쉐띳 마을 학교 건립

천호 월서희망재단, 11월 14일 학교 완공

미얀마 오지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가 건립됐다.

천호 월서 희망재단(이사장 월서, 법주사 조실)은 11월 14일 미얀마 오지 마을에 학교를 완공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월서 스님, 불국사 박물관장 종상 스님, 영취사 치원 스님, 봉은사 혜연 스님, 미얀마 산디마 스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및 학교 전교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미얀마식 법회에 이어 월서 스님 법문과 미얀마 마을 대표의 감사인사, 학교기금 및 선물 증정 등 순서로 진행됐다.

월서 스님은 지난 6월 19일 미얀마 북부 유네스코 유적지인 바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쉐띳마을 학교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학교 건립을 지원해왔다.

기념식에서 월서 스님은 이날 월서 스님은 만법귀일(萬法歸一), 처렴상정(處染常淨) 등의 휘호를 직접 쓰고 뜻을 설명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5만불을 학교 건립에 기증했다.


천호 월서 희망재단(이사장 월서, 법주사 조실)은 11월 14일 미얀마 오지 마을에 학교를 완공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월서 스님은 학교 건립을 계기로 한국불교와 미얀마 불교 및 문화교류를 제안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헌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약속을 지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22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2(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6회 원효학술상(元曉學術賞)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철학, 한국 철학 속의 세계' 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해 한국 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 및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람.]

- **공모 주제** :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 상기 전제하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선택 · 1인 1편 응모)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 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 · 박사 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 2015년 1월 2일(금) ~ 2015년 2월 27일(금)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3) 접수처 :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kbpf@cho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5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5년 5월 중(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www.kbpf.org 문의 : 02-719-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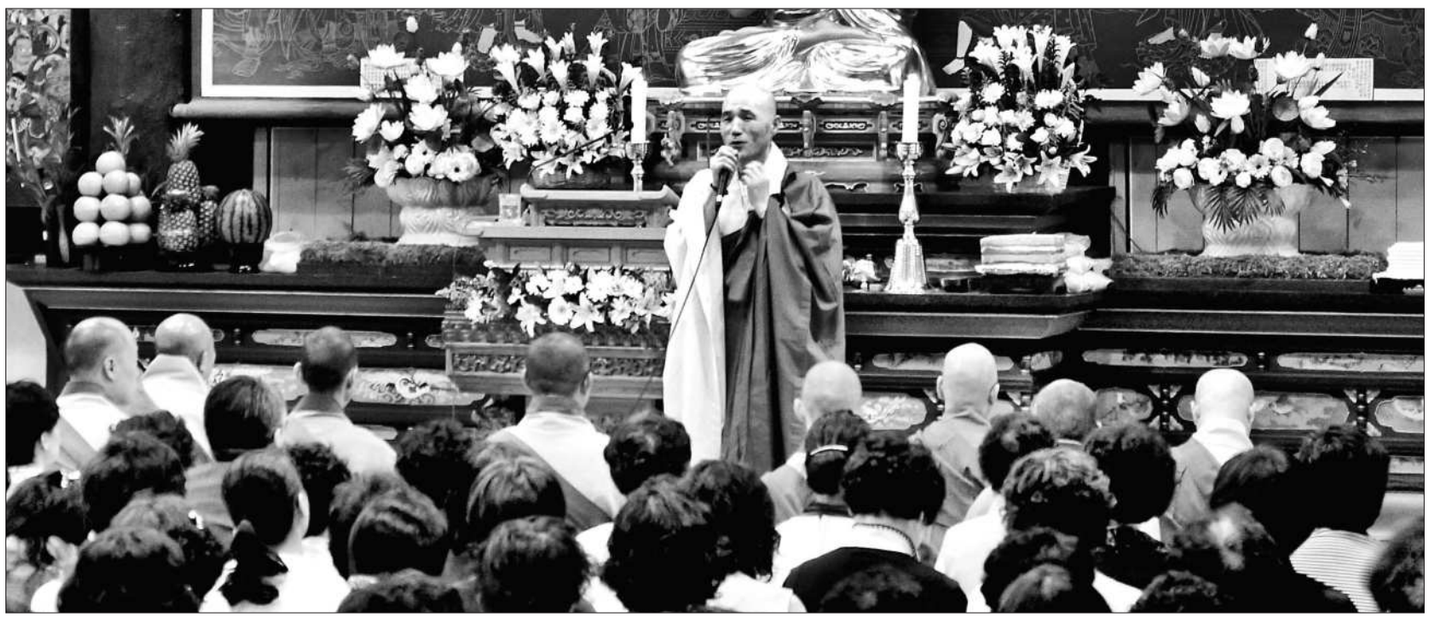
금강경은 인류 교과서… 독송하면 뇌세포 안정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현묵 스님(송광사 유나)

금강경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다. 금강경의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무주상 보시일 것이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내어 주는 것.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더 풍성하게 해주는 지혜의 방편임을 절감하게 된다면 이 또한 큰 삶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읽고 또 읽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는 길. 그래서 텅빈 마음 가운데에서 불법의 꽃을 피우는 진정한 도의 길을 안내해주는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현묵 스님은 … 현묵 스님은 1971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로 출가, 1972년과 1976년에 사미계와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1975년 겨울 송광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전국 제방선원에서 현재까지 79안거를 성만했다. 1983년부터 지리산 칠불사선원에서 10년간 산문(山門)을 나오지 않고 참선수행하며 7년간 묵언정진했고, 대중과 함께 3년결사 정진을 회향했다. 그후 무문관선원과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다가 1998년부터 송광사선원에서 정진하며 조계총림 유나 소임을 맡고 있다.

무주상 보시 강조하는 금강경

지금부터 금강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경전 구성은 발심, 수행,성불 이렇게 세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심이라는 것은 내가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발원하면서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수행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그 힘으로 금강경에 무수히 나오는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성불 도중생' 원컨대 성불을 이루고 난 뒤에는 많은 이웃들,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는 약본 금강경이 있고, 광본 금강경이 있습니다. 약본 금강경은 1분~5분까지가 발심, 수행, 성불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금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심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묻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들려줍니다. '무릇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줄 알면 즉견여래 곧 부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광본 금강경은 제1분에서 32분 전체를 말합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반복해서 자꾸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시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여러번 강조하신 것이 있고, 또 게송으로서 요약해서 들려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정말 모든 종파와 사상을 초월해서 해탈의 가르침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금강경은 인류의 교과서라 하기도 하고, 또 행복의 열쇠라 하기도 합니다.

금강경의 대의는 무엇이냐? 파이집 현삼공(破二執 現三空) '두 가지를 깨뜨리고 세 가지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파이집은 아집, 법집을 깨뜨린다는 뜻이고 현삼공은 아공, 법공, 구공을 말합니다. 아공은 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법공은 나 외에 모든 사물이 다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빠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하다는 생각도 함께 구자를 써서 그것도 비워져야 한다 해서 구 '공' 을 쓴 겁니다.

전체 흐름의 내용을 보면 항상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는 또 육바라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소의경전을 금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의경전이라 하면 수행의 지침서, 생활의 지침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용수보살은 반야 600부의서 주석서를 달았습니다. 대지도론이 백여권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재보시, 무외시, 법보시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재보시는 재물보시를 말합니다. 어른이 되면 입은 지퍼로 잠그고, 주머니는 자꾸 오픈해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머니는 딱 닫아놓고, 입은 열어서 잔소리로 보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은 입은 딱 지퍼로 잠그고, 주머니는 자꾸 열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금강경 내용하고 통하는 겁니다.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야 무주상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무외시, 육바라밀중 지계와 인욕

무외시란 뭐냐? 무외시는 육바라밀 중에서 지계와 인욕을 가리킵니다. 오계를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삿된 행동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자비스런 모습이 됩니다. 또 인욕바라밀도 무외시에 들어갑니다. 요즘 청년들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힐링을 하기 위해서 절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참을 때도 마음을 텅 비우고 참을 줄 알아야지 끙끙 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스님 법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이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더라도 비바람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면 돼요. 내가 남에게 비난을 듣고 험담을 듣는다고 해서 내 지갑의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마다 돈이 오만원씩 빠져나간다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겠지만, 내 지갑은 그대로야. 남이 나를 비난해도 내 주머니 지갑은 그대로 남아 있고 칭찬을 해도 더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내 주머니는 그대로예요.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마음을 텅 비우고 "오늘은 뭐 일진이 별로 안 좋구나. 구름, 안개가 지나가는 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우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영원한 칭찬도 없고, 영원한 비난도 없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줘야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업을 지으니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마음속으로 대신 참회합니다. 부처님 그 사람 용서해주시고, 나로 인해 구업을 지었으니 제가 참회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 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렇게 한 생각 돌리면 지옥이 극락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말을 들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아 마음이 우울하면 그게 다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보시라는 것은 책을 찍어서 공양하는 것도 법보시지만, 진정한 법보시는 그게 아니고 육바라밀 중에서 정진을 잘하면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생기면 거기서 또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올 때 법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면 그게 법보시예요. 정진, 선정, 지혜 이 세 가지 바라밀이 법보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 "금강경은 해탈의 가르침 전해
> 하루에 한번씩 읽으며 수행 권해
>
> 정진 잘하면 선정이 생기고
> 선정이 생기면 지혜가 생긴다
>
> 누군가 나를 비난·험담 하더라도
> 마음 텅 비우는 여유 가져라"

내 마음 양보하면 만복이 온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 아들 삼형제를 키운 집인데, 행정고시 패스한 자식도 있고 아무튼 자식들이 다 잘되었습니다. 아들 셋은 장가를 가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지 며느리 세 사람이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제일 큰 동서가 어머니가 한 군데 오래 계시면 지루하니 돌아가면서 석 달씩 모시자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가 눈치 보며 말씀이 없자 그렇게 결정이 됐고 돌아가면서 석 달씩 모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석 달도 지루하니 한 달씩 모시자해서 한 달씩 모셨어요. 어머니는 힘도 없고 얻어먹는 처지에 잔소리하면 며느리들이 또 불편해할까 싶어 참았다고 해요.

근데 둘째가 가만 생각해보니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맏이가 살림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한 달씩 모시자니 화가 난거죠. 고민고민하다 며느리가 스님께 상의를 했대요. 스님이 며느리 얘기를 가만히 듣고는 "보살님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병이 생긴 건데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년 내내 어머니를 모셔 버리세요. 보살님이 한 생각 돌이켜서 시어머니다 생각지 말고 전생에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모셔버리세요. 그러면 보살님 집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보살님 병도 깨끗이 나을 겁니다"라고 했대요.

이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해하며 나와서 길을 가다보니 평소에 이용하던 은행앞까지 와 있더래요. 스님 말씀 들어서 손해날 것 있겠냐 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찾았답니다. 그 돈으로 제일 좋은 이불 한 채를 사서 큰방에다 펴놓았어요. 그리고 먼저 차를 몰고 가서 어머니를 직접 집으로 모시고 왔대요. 시어머니도 의아해 했겠죠.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 평소 같으면 링겔 맞고 드러누워있거나 기분이 저기압일 아내가 시어머니하고 정답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본거예요. 남편이 신기하다 생각하고 직장 나가있는 동안도 수시로 전화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뵈러 와서 용돈을 주고 가면 그 돈을 둘째 며느리한테 주니 차곡차곡 돈이 쌓이겠죠.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내려가니, 동네사람들이 둘째 며느리 칭찬을 엄청하는 거예요.

한 마음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만복을 부릅니다. 내 마음을 양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강경의 공덕을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 경전을 지니고 있으면 부처님 사리탑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꽃과 향을 뿌리고 찬탄한다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구게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주면 저 강가에 수많은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세상에 그 모래알보다 많은 칠보를 채워 남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덕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시비한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남에게 험담 받고 또 비난받은 그런 말을 들은 그 인연으로 그 업은 소멸 될 것이고 오는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공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강경 1천일 기도… 뇌파 바꿀 수 있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아시고, 그 사람을 항상 지켜주고 이끌어 준다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소중한 금강경을 우리 불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겠다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뇌세포가 바뀌는데는 삼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매일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뇌세포가 완전히 교체 되려면 삼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천일기도를 그렇게 원을 세우고 하곤 했습니다. 천일은 삼년이잖습니까? 3년을 한가지 원을 세워서 꾸준히 하면 우리의 뇌세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한 사람은 절대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건강하고 훤한 빛을 띠는 그런 광명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금강산림법회에 와서 이런 인연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원을 세워 보세요.

그럼 독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뇌파가 안정이 됩니다. 뇌파가 안정이 되면 더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심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형상들은 다 허망하게 소멸되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 뜰 앞에 피어있는 국화도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있습니다. 항상 원을 세우고, 발심해서 수행하고, 성불해가는 마음으로 늘 정진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점점 뇌파가 안정되고 좋아져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빙의환자를 위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 환자를 위한 일광逸廣 도인의 전언!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는 퇴마가 아니라 귀신을 천도遷度해 줌으로써 치료된다

사람의 병에는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으로 생기는 병,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병, 전생의 업 때문에 생기는 병 등 세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이나 음식 등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귀신이 붙거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8세 미만의 자폐증 환자*
▶ *8세 미만의 뇌성마비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 물질만능 치우쳐 계율정신 잊어왔다"

11월 26일 자운계율사상연구원 세미나서 고언 이어져

"한국불교 승풍,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불교는 참담한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다."

1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한 세미나장에서 노스님들의 질타와 계율정신 회복에 대한 절절한 당부가 이어졌다. 한국불교 계율을 바로 세우고 불교중흥에 헌신했던 자운 스님(1911~1992)의 계율사상을 잇는 자운계율사상연구원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에서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연구원 이사장을 맡은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 원장을 맡은 원로의원 인환 스님, 운영위원장을 맡은 원로의원 성우 스님 등이 나서 한국불교의 청정승가 회복을 당부했다.

세민 스님은 "자운 스님의 뜻은 계정혜 삼학이 뚜렷한 수행전통, 계율정신이 살아있는 종단, 사부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승가상을 구현하는 것이었기에 척박한 현실에서도 비구 · 비구니 계본을 수만권 배포하고, 각처를 다니며 계를 설했다"며 "하지만 스님 입적 20년 후 종단과 불교계를 돌아보면 그 가르침과 정신이 잊혀지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민 스님은 이어 "연구원은 자운 스님 만을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율 사상과 율장, 율원, 청규의 흐름과 함께, 계율사상 구현에 이바지한 석암, 종수, 일타, 지관 스님의 생애와 사상도 연구할 것"이라며 "점차 퇴색돼 가는 계율 사상이 다시금 자리잡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원로의원 인환 스님도 "불교사적으로 계율이 잘 지켜질 때 불교는 왕성했지만, 반대로 계율이 문란하면 쇠퇴했다. 우리 한국

계율사상 전문연구기관으로 출범
원로 스님 대거 임원진으로 참여
"퇴색돼 가는 계율의 가치 살릴터"

불교의 승풍이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불교가 사회의 등불,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사회에서 걱정하는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원로의원 성우 스님은 세미나장에 모인 젊은 학인 스님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이날 세미나장에는 해인사 · 범어사 · 운문사 · 청암사 · 봉녕사 등에서 200여 학인 스님들이 운집했다.


조계종 前 전계대화상 자운 스님


자운계율사상연구원은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계율 연구에 나선다.

성우 스님은 "스님 한분 한분이 스님답게 계율을 지킨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다"며 "이를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율학승가대학원, 수행 정체성 세워야"

이날 출범식에 이어 자운계율사상연구원은 '조계종단과 계율'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조계종단의 율원(律院)의 역사와 문화' 발표에서 "최근에는 종립이 늘어나며 체계성을 위해 율원이 율학승가대학으로 개칭 · 운영되고 있지만 그 정체성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적인 계율만 배우고 익히는 교양차원에서의 계율과 달리 수행차원에서의 계율은 또 다른 의미이기에 승가대학에서 학문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율장정신과 조화된 종헌종법의 집행, 현대사회 각 문제에 대한 계율의 새로운 접근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해인사 경성 스님은 청규 및 계율을 활발히 시행하려는 노력이 종단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성 스님은 "조계종이 외부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청정계행 확립이란 내적 성숙을 놓쳐왔다. 승가와 종도 모두가 선지식이 되고 큰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와 자세를 지니고 나선다면불교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은 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연구자 현장 접근 위한 종단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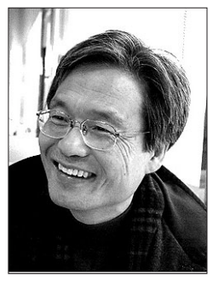
김용덕 조계종 성보위원, 〈불교민속문화의 현장론적 고찰〉서

조계종 성보위원 김용덕 교수(한양대 · 사진)는 최근 〈한국 불교민속문화의 현장론적 고찰〉을 발간했다. 책은 불교민속을 다양한 면에서 분석, 정리한 최초의 자료집이다.

김 교수는 책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20여개 중 불교문화재는 '영산재' '연등회' '수륙재' 뿐이다"며 "그동안 불교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햇다.

김 교수는 이어 "불교문화는 대부분 무형문화유산으로 의식주, 수행의례, 전통기예 등 조사할 부분이 많다. 불교민속 연구의 현장 접근을 위해서는 연구기관 설립과 연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교민속행사는 다비식처럼



불시에 발생하기도 하기에 지역 사찰마다 일어나는 행사 정보를 연구자에게 미리 알리고, 현장을 조사하는 네트워크 구축, 이를 위한 종단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책 제1장에서는 불교민속 연구 방법론을 다뤘으며 제2장은 불교의례 성격과 구조, 상징적 체계, 제3장은 꽃살문 설화도 지화 등 사찰 장엄, 제4장에서는 연등회 설행 현장, 제5장은 불보살 신앙의 전승 현장을 담았다. **노덕현 기자**

미륵사 사리장엄의 숨은 이야기를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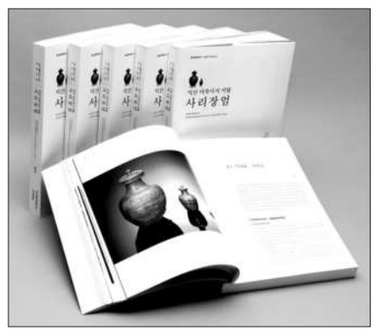
국립문화재硏,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발간

백제불교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미륵사지 사리장엄에 대한 첫 조사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최근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을 발간했다.

사리장엄은 미륵사지 석탑 해체 중 발견된 것으로 △금동제 사리 외호(金銅製 舍利 外壺) 1점 △금제 사리 내호(金製 舍利 內壺) 1점 △금제 사리 봉영기(金製 舍利 奉迎記) 1점 △은제 관식(銀製 冠飾) 2점 △청동합(靑銅盒) 6점 △각종 구슬(금, 진주, 유리, 마노) 9,700여 점 등 총 9,900여 점이 발견된 바 있다.

특히, 금으로 만들어진 사리 봉영기에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하여 가람을 창건하며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유물의 절대연대와 석탑의 발원자가 명확히 밝혀졌다.

이번에 발간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보고서에는 9900여 점의 유물 수습 과정과 정밀 기록, 보존처리, 성분 분석 등 5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연구 과정이 상세히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남북통일에 있어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은?

〈불교평론〉 지령 60호 맞아 '불교, 통일을 말하다' 특집

북한 지역의 종교인식과, 통일 과정과 이후 통합과정에서의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한 자료집이 출간됐다. 〈불교평론〉은 지령 60호를 맞아 2014년 겨울호로 '불교, 통일을 말하다' 특집을 펴냈다.



특집호에는 △윤법달 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의 '북한의 종교인식과 불교'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의 '북한불교의 역사와 현황'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원의 '남북불교 교류의 의의와 전망'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의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상상하는 한반도의 미래' △김흥수 목원대 교수의 '한국개신교의 통일선교 운동'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분단극복과 불교의 역할'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합심문화와 마음의 통일' 등 7편의 논문이 실렸다.

윤법달 교수는 '북한의 종교인식과 불교'를 통해 "북한은 현재 서방세계에 적극적으로 개방화 정책을 취하며 종교를 대외교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현재 1만명의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이 종교와 불교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들로부터 남북한 불교 교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교수는 1980년대 이후 개신교의 통일선교운동 흐름을 짚고 북한을 선교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종교간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에 각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분단극복을 위한 불교의 역할은 먼저 남북 · 남남갈등 해소와 민족동질성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며 "화쟁의 논리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공영의 사상을 사회에 알리는데서 통일운동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단에서는 △오강남 리자이나대 명예교수의 '세월호 앞에서 종교를 다시 생각한다' 등과 근현대 불교학자들을 재조명한 기획 연재 '현대한국의 불교학자', 문화비평으로 △신성민 본지 기자의 '인생은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불복장 전승은 한국불교 전통 살리는 것"

대한불교 전통불복장보존회 11월 27일 창립 첫 학술대회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무관, 이하 보존회)는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존회 회장 무관 스님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불교의 유무형 유산들이 관심을 받고 보존방안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불복장 시원, 신라 불탑 사리장엄구

이날 이승혜 삼성미술관 리움 선임연구원은 '중국불상의 성물 봉안' 발표를 통해 중국불상의 성물 봉안 전통과 한국불교의 복장 의례를 구분해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불복장의 기본 형식은 고려 팔엽통, 조선 후령통이라 지칭되는 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팔엽통과 그 중심이 되는 오보병은 현재까지 조사된 중국불상에서 발견된 바가 없다. 이는 고려시대 중인도 마가다국 출신 자현 스님이 전한 인도 후기 유가밀교의 인도에서의 고려 전래와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우 동아대 교수는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에서 "754년~755년



사경제작의식에 향이 등장해 사리공양구에 포함됐으며, 766년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 대좌에 나온 사리구,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사리구의 직물과 향목 등 공양구를 보아 그 연원이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시원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진 탑 사리장엄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학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전통 불복장의식 설행자 계보와 불복장에 납입되는 물목 등 설행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보존회는 이날 지난 7월 시연회 자료 및 조사보고, 발표논문들을 함께 담은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도 발간, 배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동국선원과 협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불교문화대학원은 11월 25일 부산 동국선원(동국사 주지 법안)과 불교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교교육 및 불교문화사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불교계 인사와 국회의원, 해운대구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실 개소식와 현판식을 겸해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과 동국선원은 앞으로 △교육 · 문화사업 운영 지원 △입학자원 유치 협력 등을 지원한다.



윤영해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 및 영남지역 불교발전으로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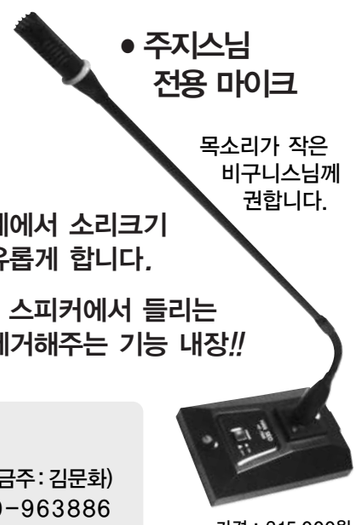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지리산 청소년불자 유쾌한 대만 나들이

화엄사 어린이법회 2년 만에 10배 증가 성공모델
불자청소년 용돈모아 대만불교 성지순례비 마련 '화제'

깊은 산속 지리산의 불자청소년들의 정성이 담긴 대만불교 체험이 눈길을 끈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어린이법회의 대만불교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대만불교체험에는 어린이법회와 문수학생회 소속 청소년 9명을 비롯해 인솔교사 4명 등 총 13명이 참가해 불광산사를 비롯해 카오슝 시내 투어 등 대만 곳곳을 돌아봤다.

화엄사 어린이법회 아이들은 이번 대만불교체험을 위해 1년간 직접 돈을 모았다. 부모가 마련해준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은 용돈을 모아 경비를 만들어 가며 스스로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익혔다. 아이들은 다소 모자란 부분은 지난 부처님오신날 화엄사에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과 화엄사의 일부 지원금을 화엄사 측에서 지원받아 마련했다.

대만불교 체험도 일반적인 일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정과 방문지를 결정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만불교 체험을 인솔한 연수국장 종호스님은 "아이들에게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고,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하는 여행을 통해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화엄사 어린이법회와 문수학생회는 지역 어린이포교의 훌륭한 사례로 꼽힌다. 화엄사는 지역 농촌포교의 첫발로 2013년 어린이법회와 문수학생회 법회를 처음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법회 참여 학생들이 5~6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30여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이면 화엄사를 찾고 있다. 어린이법회에는 정기법회를 비롯해 기초불교영어, 어린이 불교교리, 여름불교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커리큘럼하에 진행된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 또한 참여해 온 가족이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만불교 체험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 직접 일정을 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탐방했다.

한편, 화엄사는 11월 23일 화엄사 경내에서 제2기 화엄선재학당 수료식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9월 3일 개강해 3개월간 불교기본교육과정을 교육한 화엄선재학당은 불교입문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와 수련회, 문화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료식에는 40여 명의 학당 이사주가 수계증을 받고 새로운 불자로 탄생했다.

화엄사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신도교육의 모범이 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진으로 지역포교의 견인차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자비의 연탄 4000장 전달

소원바위 동전으로 기금 마련… "불자들 기부마음 전해 기쁘다"

사찰의 소원바위에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올려놓은 동전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는 11월 22일 나누우리봉사단과 진안군 어린이봉사단 '이쁜 손 이쁜 마음',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안군 마령면과 부귀면 일대 독거 어르신 200가구에 연탄 4000장과 쌀 40kg씩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 기금은 탑사 천지탑 소원바위에서 모인 동전으로 마련한 것이다.

진성 스님은 "작은 동전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탑사를 찾은 모든 분의 마음이 추운겨울 홀로



지낼 어르신에게 전달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탑사는 매년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자비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4대종단, 22일 '종교인 평화합창제'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4대종단 평화합창제가 11월 22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군산지역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이번 합창제는 불교의 그린비 합창단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동참했다.

불교에서는 군산사암연합회 도연 스님을 비롯해 동국사 종걸 스님, 흥천사 법희스님 등 스님들과 이웃종교 지도자등 10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평화합창제는 2011년 군산지역 4대 종



단 지도자들이 '군산시 종교인 연합회'를 구성해 각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원불교, 불교, 천주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대회는 개신교 주관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등 자비나눔 잇달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11월 27일 쌀 2000kg을 빛고을나눔나무에 전달했다.

광주지역 불교공동모금회인 빛고을나눔나무(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 이사장 연광)에 지역 사찰들의 자비나눔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선원장 혜월)은 11월 27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쌀 2000kg(20kg 100포대)을 구입해 빛고을나눔나무에 전달했다.

한마음선원은 지난 2011년부터 4년째 매년 2000kg씩 쌀을 전달하고 있다.

신도회(회장 김용석)에서 마련한 '한마음 쌀'은 농성동, 양3동, 광천동, 상무동, 유덕동 등 광주 서구 5개 동과 대해노인복지센터에 보내져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김용석 회장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듯 따듯한 마음으로 모아진 공양미가 어려운 가정에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좋은 식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도 지난 11월 24일 광주불교회관 법당에서 빛고을나눔나무에 자비의 쌀 1000kg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지역불교계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쌀 지원사업에서 사용된다.

이어 광주불교산우회(회장 오정의)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산우나눔기금'으로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한병원 부회장과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혜공 스님이 참석했다. 나눔기금은 겨울난방 지원사업의 일환인 연탄나누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빛고을나눔나무는 오는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지역 불교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광주불교 송년회 밤' 행사와 12월중 광주지역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연탄나누기' 행사를 갖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 복지관, 다례제 및 장수만만세 잔치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11월 27일 제2회 고창군 다례제(茶禮祭)를 개최했다. 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다례제에는 평초등학교 고광욱 교장, 대산초등학교 최승관 교장, 매산초등학교 김나미 교장, 성송초등학교 강해정 교장 등 지역초교 교장선생님들과 다례교육 수강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원 스님은 "다례 교육은 복지관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의 다도와 예절교육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에서 성인이 함께하는 차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복지관 다례교육은 2010년부터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해 100여 명이 다인을 배출하여 지역 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고창복지관은 11월 26일 '장수만만세 잔치'도 개최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관장 대원 스님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 130명이 참석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제사 창건 11주년 기념식 및 신도회 구성

광주 광제사(주지 석두)는 11월 2일 창건 11주년을 맞아 경내 미타전에서 기념법회 및 만찬을 개최했다. 광제사는 유은학원 창립자인 故최선진 선생의 생가로 화엄사 종고스님에게 기부된 이후 사찰로 바뀐 곳이다.

기념법회에서는 회주 종고 스님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1부 법요식과 2부 기념 만찬이 진행됐다. 법회에서는 남녀신도회인 일관회(회장 김경욱), 명등회(회장 선길자)도 구성됐다.

종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행은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불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염불과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2014년 결산 총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1월 22일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에서 정기총회 및 회원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일 스님은 "올 한 해 환경사업, 회향과 나눔사업, 회원소모임 사업,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기까지 회원들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있어 가능했다. 그리고 임원과 사무국 식구들의 헌신적인 애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정관개정, 2014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5년 사업 및 예산 승인이 진행됐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2014년에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나누기 및 붓다의 떡공양 등을 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외계층 초청 사찰음식 체험전

자연음식문화원은 11월 22일 금선암(주지 덕산)과 함께 '지역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전'을 개최했다.

이날 체험전에서는 대전 영선사 법송스님이 강사로 나서 사찰음식에 스며있는 수행정신과 사찰음식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주머니 쌈, 더덕 오미자, 현미 고사리 전 등의 조리법을 직접 시연했다.

정선해(전남 목포)씨는 "사찰음식이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담백하여 고소한 맛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쌀부터 김치까지 나누는 기쁨 '훈훈'

부산 · 경남 지역 사찰 및 복지관 나눔 행사 풍성

겨울이면 차가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이런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양산 정종사, 초읍 불광사,천태종 삼광사 등 교계 각계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자리가 마련됐다. 쌀, 김장, 연탄 등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훈훈하게 데워줄 나눔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양산 정종사(주지 여해)는 11월 22일 쌀1360kg을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병원장 능행)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쌀은 정종사 불자들이 생전예수제 기도 동참비로 십시일반 모아 의미를 더했다.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은 "자재요양병원이 새롭게 개원한 소식을 듣고 그 뿌리를 잘 내리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취지를 전했다.

정종사의 나눔 보시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해 초 불자들에게 나눠줬던 저금통과 법당에 설치한 모금함 성금을 모은 1만불을 에볼라 창궐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재단 부산 성우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울산 도솔천에 각각 김장 500포기를 전달했다.

부산 불광사(주지 보광)는 11월 28일 연탄 3000장을 초읍동 독거노인 및 소외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이는 보광사 불자들이 생일을 맞아 낸 기부금과 보시 저금통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보광사는 매달 소외 이웃을 위한 쌀 나눔 및 장학금, 무료급식을 진행해 왔고 연말을 맞아 연탄나눔

양산 정종사 쌀 김치 나눔
불광사 연탄 3천장 보시
삼광사 사랑의 집수리도

으로 이를 회향했다. 주지 보광 스님은 "초읍동에 있는 소외 이웃들은 연탄을나누어 드려도 보관 장소가 없을 정도로 주거 환경이 좁고 열악하다"며 "앞으로 이들에게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삼광사 인근 저소득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을



양산 정종사는 11월 22일 쌀1360kg을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기부했다.

대상으로 총 14가구를 지원한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2월 10일~14일 김장 200포기를 담그고 주변 이웃들을 위한 회향의 자리를 연다. 특히 12월 14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김장 담그기 체험 활동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범산)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복지기금마련 일일뷔페 '모두가 함께하는 3GO'(함께하고, 사랑하고, 나누고)를 11월 25일 수영구 유토피아 뷔페에서 개최했다. 이날 모인 모연금은 불국토 산하 복지기관에 기부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혜총)은 12월 11일 바르게 살기 운동 남구 협의회와 함께 지역내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나누기를 실시한다. 아울러 12월 16일에는 우리은행 중부영업본부와 함께 저소득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활동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금정구노인복지관(관장 조수경)은 11월 19일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나누기와 12월 8일~12일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유, 내복, 남방기구를 지원한다.

동명대(총장 설동근)에서 운영하는 남구복지관은 12월 2일 '제5회 스마일 김치나누기' 행사를 열고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150세대 소외계층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대 직원 20여명이 함께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동림사, 부적응 학생 위한 템플스테이

11월 25일 불교문화 체험 및 마음수련 등


기장 동림사는 11월 25일 대청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열었다.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는 11월 25일 기장 대청중학교 부적응 학생 12명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이는 불교문화 체험 및 마음 수련을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유민 학생(가명 · 대청중 3학년)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을 하고 그 옆에 발원을 적고 절을 했는데 그냥 마음이 많이 편안했어요" 라며 체험 소감을 밝혔다. 대청중 서갑선 전문상담교사(50)는 "체험 전보다는 학생들이 순해지고 시간도 잘 지킨다"며 "학생들의 모습에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여 준비해주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동림사는 지난 4년 동안 마케팅고, 센텀중, 양운중, 대청중, 신광중 등 6개의 학교와 결연을 맺어 마음수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림사 템플스테이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않고 주지 성타 스님을 중심으로 불자들의 순수 봉사로 진행돼 더 눈길을 끈다.

성타 스님은 "불교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편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동림사는 앞으로 중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위한 불교문화학교를 열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등학교와 연계해 체험 학습을 열고 불교문화를 알려 국제포교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심인문화제, '회당' 12년만에 연주



진각종 심인문화제 공연

진각종 대구교구청이 주관한 대구 심인문화제가 11월 27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렸다. '대구 ' 심인문화제 '는 진각종의 진언행자와 일반 대중이 화합하고 함께하는 축제마당으로 이 자리에서는 교성곡 ' 회당 '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 등의 연주가 펼쳐졌다.

특히 교성곡 '회당' 은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의 구도와 생애, 사상을 조명한 작품으로 총 4악장 16곡으로 약 75분 길이의 칸타타 형식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2년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당시 초연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공연이다.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은 "이 뜻 깊은 선율과 음성공양의 원력이 널리 회향되어 지금 우리사회에 하루속히 밀엄정토가 구현되기를 서원한다"고 전했다.

'대구 심인문화제' 는 진각종이 지역교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축제형식의 문화불사로, 내년부터는 매년 10월 증조 열반절에 개최할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해요"

2014년 전국불교 합창제


전국불교 합창제가 11월 25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2014년 전국불교 합창제(단장 조옥자)가 11월 25일 부산 시민회관대극장에서 개최됐다. 5회를 맞는 전국불교합창제는 제주, 충청, 경남 · 양산, 전북, 경기, 충남, 대구 · 경북, 서울 · 경기, 대전, 부산 등 10개의 불교연합 합창단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로는 승가원 사물놀이단의 공연, 공로패, 감사패 수여, 회향의 무대 등이 열렸다. 특히 회향의 무대는 27년 간 합창단 지휘를 맡았던 강영화 작곡, 덕신 스님이 작사한 '향연' 을 전 출연자들이 함께 불러 장관을 연출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법한 준비를 위해 노력한 전국불교합창단 정혜원 회장님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조옥자 단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및 참가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이 합창제를 통해 부산불교합창단의 발전과 교류 및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옥자 단장은 "이번 전국불교합창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깊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기획 되었다"며 "합창제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금강선원 성련사 부처님 점안식


대일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성련사 부처님 점안식

대일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성련)은 11월 23일 대구 금강선원 성련사에서 부처님점안 및 이운법회와 제1회 경로 큰잔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은혜사 조실 일공 스님, 동화사 석보성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금강선원성련사 총무원장 성련스님은 "종도가 화합하고 발전하여 불교가 중흥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인재불사와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진 제1회 경로큰잔치에서는 난타 등 즐거운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남월 스님 〈영축산에 머무는 새〉 출간

경남 양산 나은사 주지 남월 스님이 11월 23일 경내에서 〈영축산에 머무는 새〉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서운암 문도 대표이자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 前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동진 스님 외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책 〈영축산에 머무는 새〉는 불자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할 불교 교리, 상식, 불자 예절 등을 다루고 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부터 수행자까지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편집 구성했으며, 남월 스님의 통도사 수행 기록을 담고 있다.

하성미 기자

동국사-동국대 불교대학원 MOU체결


동국사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상호발전을 위해 체결한 MOU 양해각서

부산 동국사(주지 법안)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윤영해, 이하 불교문화대학원)은 11월 25일 동국사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동국사 주지 법안 스님, 동림동문회회장 광진 스님,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 부산불교포럼회장 보당 스님, 대구경북 동문회장 진일 스님, 배덕광 국회의원, 황병두 구의원 외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가했다.

앞으로 동국사와 불교문화대학원은 교육문화 사업을 위한 강사 섭외 및 커리큘럼 등을 지원하며 입학생 유치 및 인재발전을 위한 발전 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대관음사 이웃돕기 바자회

11월 24일~29일 노천법당서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총동문회(회장 배선회)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11월 24일~29일 대관음사 노천법당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생활용품, 농수산물, 의류, 연잎차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총무국장 인허 스님은 "매년 추운 겨울이면 사부대중 모두가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김장, 무료급식, 도배 등 독거노인과 소외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누워계신 부처님 말하시네…무거운 짐 두고가라고

와불이 있는 사찰을 찾아서

① 태안 보타락가사

심신을 모두 놓아두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도량. 경내서 서해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절. 바로 태안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보타락가사이다.

대개 우리나라 해안 사찰에는 관음상이 웅대한 자태로 서 있다. 3대 관음성지라는 동해의 낙산사와 서해의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에도 예외 없이 관음보살상이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 기장군 용궁사와 강릉 정동진 등명낙가사에도 또 이곳 태안 보타락가사에도 있다.

특히 이런 관음상은 해수관음상이라 해서 '바다'로 상징되는 사바세계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불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님은 보타낙가산 해안가 절벽에 항상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안 사찰에는 어김없이 관음보살상이 세워져 있다. 천 개의 눈과 귀로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듣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자애롭게 구원하는 관세음보살. 그런데 이곳 태안 보타낙가사 관세음보살은 웅대한 석재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절에 비해 특이하다. 매일 정오(낮 12시)에 웅장한 찬불음악소리와 함께 대웅전 지붕 위에서 잠깐 현현 하신다. 깜짝 이벤트다. 사찰을 방문한 이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 환희심과 법열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회주 법진 스님의 아이디어로 특수 설계해 만들어 졌다. 신도들의 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역사가 5년 남짓 되는 보타락가사에는 보물이나 문화재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름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중국의 관음성지 보타낙가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관음기도를 많이 했던 회주 법진 스님은 10여년전부터 관세음보살을 모신 중국 절강성 보타산(普陀山)으로 기도 순례를 자주 떠났다. 보타산은 지장보살을 모신 안휘의 구화산(九華山), 보현보살을 모신 사천성의 아미산(峨眉山), 문수보살을 모신 오대산(五臺山)과 더불어 중국 4대 불산 중의 하나다. 옛 시인들은 '산과 호수의 으뜸은 서호에 있고, 산과 강의 명승은 계림에 있고, 산과 바다의 절경은 보타에 있다' 고 노래했을 정도로 보타산을 신성시 여겼다.


금불로 만든 길이 10m의 거대한 '열반 와불상' 부처님은 알듯 모를듯한 엷은 미소를 띄며 참배객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준다.


서해안의 새 관음성지로 떠오른 보타락가사 전경


대웅전 안에 모셔진 부처님

보타산은 '보타낙가산' 의 준말로, 보타산과 낙가산 두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불경에서 나온 이름으로 백화산, 광명산이라고도 부르며, 남해보타산이라고 부른다. 보타산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당(唐) 대중(大中) 연간(847-860), 어떤 인도 스님이 이곳에 이르러 열손가락을 스스로 소지공양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일곱 색깔의 보석을 받았다는 전설로부터 이곳이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성지로 알려졌다.

보타산에는 역대로 끊임없는 불사를 일으켜 청대의 건륭(乾隆) 연간에는 3개의 큰 사찰과 88개의 암자, 148개의 기도원이 있었고, 승려는 모두 2,000여

서해안서 새로 떠오는 관음성지 명성
매일 정오 대웅전 부처님 지붕 위로 현현
10m 금불로 만든 '열반와불상' 조성해

명에 달했다. 특히 보타산 풍광은 바다와 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흔히 "산과 호수의 으뜸은 서호(西湖)에 있고, 산과 강의 명승은 계림(桂林)에 있고, 산과 바다의 절경은 보타에 있다."고 표현하며, 또한 '남해의 불교왕국' 이라고 일컫고 있는 성지다.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이 발원하는 것도 바로 한국의 관음성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아직 태안락가사는 계속 불사를 지속중이다. 이 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와불전이다. 그 안에는 금불로 만든 길이 10m의 '열반와불상' 이 모셔져 있다. 열반에 든 부처가 누워있는 거대한 모습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띤 부처님 얼굴이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재미있다. 부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대목 중 하나가 열반하는 장면이다. 부처님은 석 달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고, 숨을 거두고 10여 일이 지나 제자들이 모두 모인 다음에는 관 밖으로 발을 내보였다고 기록돼 있다. 또 부처님 다비 후 나온 사리는 3등분해 천신과 용왕, 인간계로 나눴고 인간계에서는 8명의 왕이 가져갔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이 두 그루의 사라 나무 사이에 비스듬히 누워 열반했다고 전해지는 인도의 쿠시나가르 현지에는 그의 열반을 기리는 '열반사(涅槃寺)' 가 조성돼 있다. 그 곳의 열반상은 11세기 당시 모래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지만, 이 곳 보타락가사는 금불이다. 조성시기와 무게감은 서로 다르지만 보타락가사의 열반상을 대하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이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듯하다.

"헛되이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라고.

태안 보타락가사=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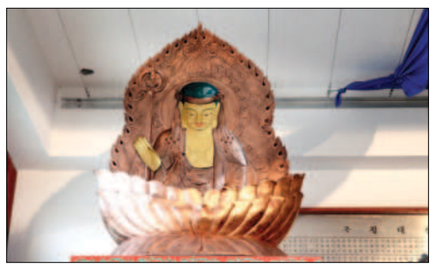
"열린템플스테이 개설해 운영할 예정"

회주 법진 스님 인터뷰



"보타락가사 해수관세음보살님은 하루에 한 번 세상에 나투십니다. 평소에는 법당 내에 모셔져 있다가 정오가 되면 대웅전 위로 올라와 서해바다를 바라보도록 설계됐죠. 관세음보살님의 대원으로 중생의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구제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타락가사가 조성된 이유입니다.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은 앞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보타락가사에서 종교를 초월한 열린 템플스테이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좌선과 사찰 예절, 지구력 체험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2층 규모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불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관음성지답게 천도재 전문 도량으로 운영하겠다는 법진 스님은 "보타락가사 인근에는 시험보는 학생들을 위한 훈장복덕바위, 부부금실 바위 등 재미 있는 설화가 깃들여진 바위들도 많아 관광명소로도 손색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주지 스님 추천 이것만은 클릭…오백나한상 수석, 관음보살상


관람객 시선에따라 눈이 함께 움직이는 관음보살상

와불전의 열반상 뒤로 돌아가 보면 수석 수집가에게 기증받은 오백나한상 수석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와불의 거대한 규모에 놀라 이 나한상들은 뒷전으로 밀리는데 한 번 친견해 볼만하다. 불심이 돈독한 서울의 한 수석가가 평생 모은 돌을 회주 법진 스님에게 희사해서 조성된 것이다. 와불전에서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와불 뒤 천정쪽에 모셔진 관음보살상이다. 천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관람객들의 시선에 따라 관세음보살님의 눈도 함께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다. 중생의 아픔을 마치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로 전해진다. 자못 흥미롭다.

주변 가볼만 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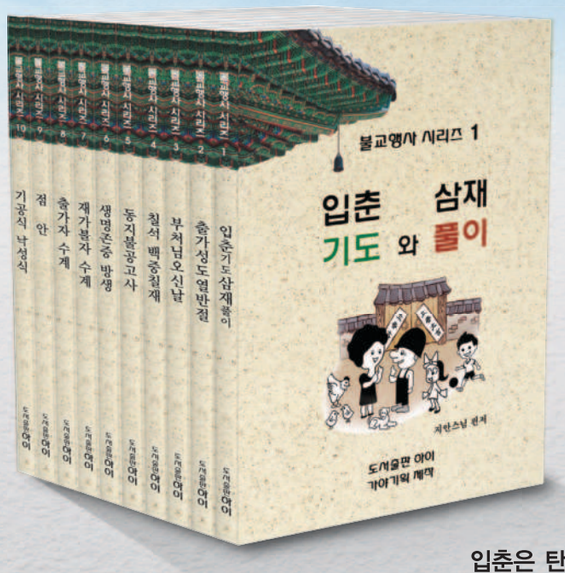
▲태안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국보 제 307호)

우리나라 마애불상의 초기 형태로 부채꼴 바위 면에 사각형 감실을 마련해 중앙에 보살상을 두고 좌우에 불상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1구의 불상과 2구의 보살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삼존불상과 달리 2구의 불입상과 1구의 보살입상이 한 조를 이루는 특이한 삼존불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2구의 불입상은 양감 풍부한 얼굴에 크게 번지는 미소, 넓게 벌어진 당당한 어깨와 장대한 체구, 도톰한 듯 날카로운 대좌의 연꽃무늬 등 세부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양식 특징을 보인다.

불교행사지침서

알기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정진기도
시리즈



1차 판매중



입춘, 출가성도열반전,부처님 오신날, 칠성불공,백중칠재, 동지불공 고사, 방생, 재가불자 수계, 출가자 수계, 점안, 가공식 낙성식 기도와 예식 행사,공양차림은 어떻게 지내고 지켜야 되는지 전10권으로 시원하게 알려준 지안 스님의 지침서

입춘은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가름침에 따라 중생구제 기도로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기도순서, 기도진행, 삼보통청, 신중청,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기타식, 입춘추, 삼재부족등 수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다.
준비,식순,진행,방생문,어류방생 기도문, 조류방생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 이야기, 방생 공덕, 용궁 치성 방생등 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을 태양의 부활로 여겼으며, 재액 초복을 위해 집안신에게 팥죽을 올리는 세시풍속의 의례적 고사로 불교신자들은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
동지 정의, 세시풍속, 불공 준비, 순서, 진행, 삼보통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 제례, 영가 시식, 동지 고사, 팥죽 예화등 수록.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16km 이어진 석굴에 萬佛이 나투시니…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⑤ 돈황 막고굴

경이롭다. 수많은 석굴에 수천의 불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돈황 막고굴을 보고 있자면 신앙의 열정에 대한 경외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오직 '경이롭다'고 되풀이해 말할 수 밖에 없다.

돈황 막고굴(敦煌 莫高窟)은 천불동(千佛洞)이라고 불리며 감숙성 돈황현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서쪽에는 모래 언덕인 명사산을 끼고 있다.

돈황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이다. 당나라 시기에 서역 문물이 유입되면서 동서문화 교류 · 무역의 중계지로 번영했다. 또한 몇 세기 동안 서역으로 불교 경전을 구하는 불교 승려들이나 많은 순례자들이 돈황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천의 불상으로 이뤄진 석굴을 조성해냈다.

막고굴의 비문에는 석굴들의 조성 계기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에 따르면 366년 낙준(樂)이라는 승려가 구법길에 올랐고 이내 명사산 동쪽 기슭에 이르렀다. 석양이 맞은편의 삼위산을 비추자 산봉우리가 온통 금빛으로 빛나며 그 속에 마치 천만 존의 부처님이 그 금빛 속에서 광명을 나는 것 같았다고 한다. 낙준 스님은 장엄한 불국의 현상을 보고 이곳을 도량으로 삼아 수행할 것을 결심했다. 이후 스님은 불교의 예법에 따라 장인을 불러 절벽에 첫 번째 석굴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형성된 막고굴은 사막의 도시 돈황을 최고의 유적도시로 지금까지도 번성시키고 있다. 돈황 막고굴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하루에만 1만 5000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는 중국 대표 유적이다. 그만큼 보존 관리도 철저하고 연구도 세밀히 진행되고 있다.

돈황 석굴을 콘텐츠로 한 활용도 열심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돈황 막고굴의 진수를 알 수 있는 체험관을 막고굴 근처에 건립했다. 별도로 예약을 해야 하는 곳으로 막고굴의 유명 석굴들을 3D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순례단 역시 미리 예약을 해 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돔 형식의 화면에 막고굴의 전실이 투영되고 불보살상은 사방을 돌며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어 더빙도 이뤄져 쉽게 이해하게 했다. 이는 단순 관람 일변도의 한국불교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부분이다.

경변벽화의 절정

돈황은 사실상 불모지다. 이곳에 굴을 파서 석실을 만들어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돈황 막고굴 인근은 역암이어서 불상을 조성할 수도 불화를 그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당시 장인들은 벽면에 흙을 발라 벽화를 그렸고, 공간에 따라 강바닥에서 채취한 흙을 이겨 불상을 조성했다.

이렇게 4세기부터 조성된 석굴과 불상, 불화들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16km의 절벽에 펼쳐진 석굴은 총 492개이고 채색 소상(塑像)이 2400점, 벽화는 4500㎡에 이른다. 특히 벽화를 모두 펼칠 경우 높이 1m에 길이가 45km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막고굴을 중국인들은 '벽화예술의 화랑'이라고 부른다.

돈황 막고굴을 소개하는 안내서에도 석굴의 경변벽화를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 꼽고 있다. 불교 경전에 담긴 내용을 옮겨 그리는 경변도를 막고굴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하다. 아미타불 경변도 71폭, 관음무량수경변도 84폭, 정토경변도 76폭, 화엄경변도 29폭, 보은경변도 32폭, 부모은중경변도 4폭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

각 도상에는 다양한 기법이 사용됐으며, 아름다운 비천, 미소를 지은 관음보살, 웅장한 금강역사 등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변벽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대의 생활상과 양식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돈황, 동 · 중앙아시아 잇는 관문
동서 교류 · 구법의 중요한 루트

4세기 후반부터 석굴 개착해
490여 굴, 2000여 불상 존재
벽화 이으면 45km까지 펼쳐져
17굴 '왕오천축국전' 발견 유명

주요 문화재 3D 극장서 '한눈에'
중국 문화재 활용 · 보존정책 귀감

단적인 예를 2012년 열린 '경주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신 돈황연구원 교수는 막고굴 경변벽화에서 삼국시대 한반도 사람을 묘사한 벽화가 40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신 교수는 "막고굴 61호를 비롯해 120호, 121호, 138호, 148호, 158호, 335호, 427호 등에서 조아리는 자세와 두 손을 모으는 동작을 가진 인물상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이는 고대벽화 속의 한반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벽화에 한반도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국가의 사람이 불교에 귀의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그린 것"이라며 "이미 돈황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이 있었고 석굴 조성에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경동, 혜초 그리고 서구 열강

400여 개의 석굴 중 한반도와 가장 연관이 있는 석굴은 16호굴의 곁간굴인 17호굴이다. 16호굴에 들면 오른쪽 벽면에 작은 문이 나 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운데에 당나라 고승 홍변(洪辯)의 소상이 있다.

일명 '장경동(藏經洞)'으로 불리는 17호굴은 발견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돈황 막고굴의 존재를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문화재 수탈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 역사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도교 수행자인 왕원 도사는 막고굴을 도교의 영관(靈官)으로 개조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 1900년 6월 2일 16굴을 정리하던 중 인부가 곁간굴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결국 왕 도사는 밤중에 인부와 벽면을 떼어냈고, 안쪽에 문 하나를 발견했다. 이곳에 들어가니 흰 삼베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한 꾸러미 당 10개의 경전 두루마기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후 프랑스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1908년 돈황에 오면서 수탈은 시작된다. 장경동 석실에 들어간 펠리오는 3주간 석실 내 문서들을 선별해 90파운드를 주고 600개의 두루마기 경전을 가지고 본국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다. 현재는 편목번호 P.3532로 분류돼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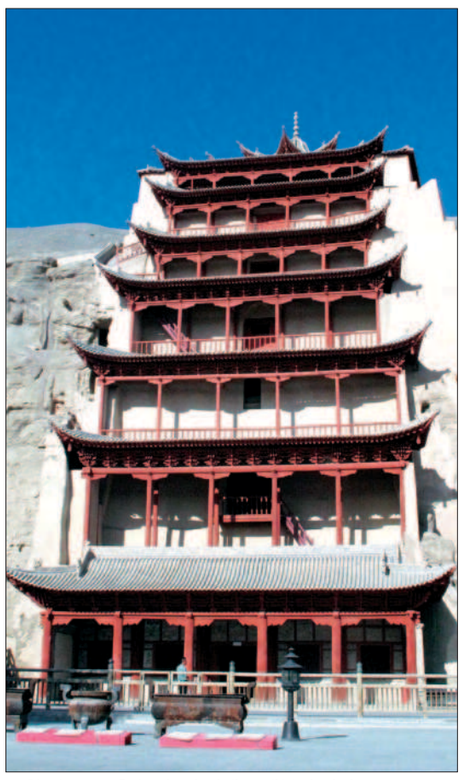
펠리오에 의해 막고굴의 존재가 알려진 뒤 영국의 마크 스타인, 일본의 다치바나 즈이쵸, 러시아의 올젠부르크, 미국 하버드대학교 탐험대 등이 앞 다퉈 찾아와 문화재들을 약탈해갔다.

장경동에서 파리로 옮겨진 〈왕오천축국전〉은 당시 한반도 수행승들의 구법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다. 중국 승려 의정의 〈구법고승전〉에는 60인의 구법승이 나오는 데 이중 9명이 신라 스님으로 그 비율은 15%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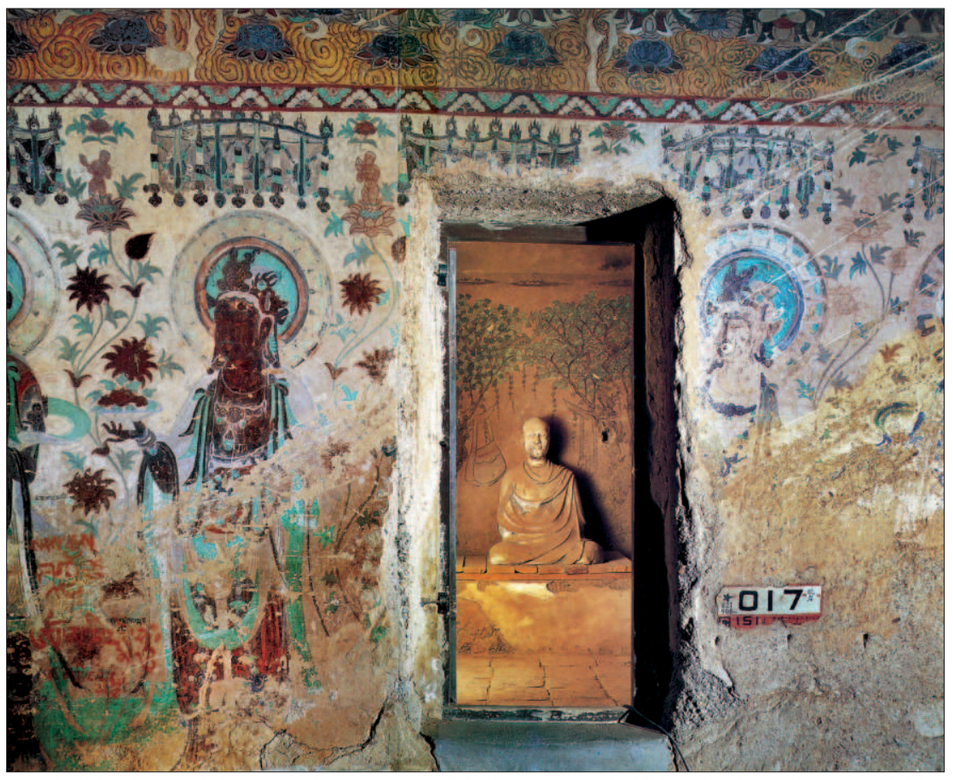
수 많은 구법승들은 구법을 위해 불모의 땅을 지나 천축으로 향했다. 이는 구도뿐만 아니라 중생 제도라는 간절한 서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곱씹어볼 일이다.

motp79@hyunbul.com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격주 연재됩니다.



돈황 막고굴 9층 누각. 이 안에는 대불이 있다.



16굴의 곁간굴인 17굴. 장경동으로 불리는 이 석굴은 돈황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도 발견됐다.



돈황 막고굴 45호굴. 뚜렷한 채색 소상들이 눈길을 끈다.



돈황 막고굴 130호굴의 미륵보살 좌상. 당나라 시기에 조성됐다.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불탑의 나라 – 미얀마 ★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12/16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불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 꽃보다 청춘~ 라오스
▶ 비엔티엔 / 방비엔 / 루앙프라방 5일 요금문의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0〉 두륜산 대흥사 대웅보전

수제천 흐르는 악학궤범 펼쳐져

서산대사 의발 전한 선교양종 도량

고려시대 불교계의 최고봉이 보조국사 지눌스님이라면, 조선시대 불교계의 최고봉은 청허당 휴정스님, 곧 서산대사일 것이다. 순천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께서 1200년부터 생의 말년 10여년을 주석하면서 한국불교 조계의 숲을 여신 곳이고, 해남 두륜산 대흥사는 서산대사께서 1604년 임종을 앞두고 가사와 발우를 부촉한 종통귀의처(宗統歸依處)다. 그 법의 인연으로 송광사는 이후 16국사를 배출하여 승보사찰의 법통을 이었고, 대흥사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하며 선교통일(禪敎統一)의 선림교해(禪林敎海)를 이루었다. 서산대사는 대흥사에 법을 부촉하면서 대둔사 터가 전란과 흉년, 돌림병의 삼재가 들지 않는 '삼재불입지처(三災不入之處)' 이고, 바다와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골짜기는 깊고 그윽하여 만세토록 훼손되지 않을 '만년불훼지지(萬年不毁之地)' 이며, 뇌묵당 처영스님 등 제자들이 모두 남방에 있고 대사 역시 남쪽에서 출가하였으니 결국은 법통이 원래자리로 돌아가는 '종통소귀지처(宗統所歸之處)' 라 하여 의발(依鉢)을 대흥사에 전하게 하였다. 서산대사의 저서 〈선가귀감〉에 이르기를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 하였으니 대흥사에 이르러 형성된 선교양종의 대도량의 면모는 인연이 지은 응당의 발현이라 하겠다.

대흥사 대웅전은 석가여래와 아미타여래, 약사여래의 삼세불을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의 일심으로 모신 대웅보전이다. 시방삼세 상주일체의 부처님 세계다. 세 부처님의 존상마다 그에 조응하는 후불탱을 모셨고, 독립성에 가까운 닫집을 갖추었다. 붉은 빛의 후불탱과 하늘 연꽃이 줄지어 내려온 길다란 닫집이 시선을 압도하고, 삼매에 젖은 세 부처님의 열반적정이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하늘에서 힘차게 줄지어 내린 닫집 연봉의 수직성과 그 횡적 반복이 인상주의 작품들의 찰라적 순간처럼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수직의 연봉들은 특별한 공간을 둘러싼 휘장효과와 함께 신성의 위계를 표현하는 결계장치로서의 효능도 발휘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봉에 입힌 색채도 각양각색으로 조화롭고, 닫집에 베푼 색채가 후불탱의 색채와 일체를 이루는 덕분에 화면의 크기는 보다 확장되는 느낌이다. 그에 반해 법당을 가로지르는 대들보의 굵직한 선은 용처럼 살아 꿈틀대는 힘찬 곡선의 파동이다. 가공하지 않은 무위의 건축부재에서 자연주의 건축정신이 물씬 풍긴다. 서산 개심사 심검당 벽체의 뼈대들과 안성 청룡사 대웅전 측면기둥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건축의 자연주의 유산들이다. 한국의 미적 본질이 무위의 자연주의 소박함에 닿아 있음을 우리는 안다.

모빌형식의 봉황 탄 동자조형

법당의 구조 및 장엄법식은 직지사 대웅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서 익숙히 본 장면이고, 특히 닫집경영과 천정의 봉황장식에서 논산 쌍계사 대웅전과는 여러모로 닮은 데가 많아 비교된다. 대흥사 대웅보전 천정에 모빌(mobile)형식으로 매단 봉황과 선학은 모두 다섯 개체다. 봉황이 3개체, 도교적 선학이 2개체인 모빌형식이지만 움직이지 않게 철사로 고정되어 있다. 모빌조형은 봉황과 선학 저마다에 문수동자처럼 양쪽 머리를 묶은 천동(天童)이 타고 있는 천동비봉(학)조형이다. 천동비봉도는 벽화형식으로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과 청원 안심사 대웅전, 양산 통도사 대웅전 등에서 나타나지만 조형으로는 매우 드문 양식이다. 새를 타고 있는 동자조형의 모티브는 고구려 벽화고분 오회분 4호묘, 5호묘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봉황과 선학을 타고 양팔을 뻗어 천공의 바람을 가르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해서 더없이 귀엽고 해맑다. 예경의 긴장공간에 미끄럼타는 아이들의 신명이 왁자한 느낌이다.

대들보에 가공 않은 무위 자연주의
악기벽화는 유교핵심 예악사상 반영
살미넝쿨, 여덟굽이로 천정 휘감아
칠보문양에 고사리 싹의 생명표현

대웅보전의 천정양식은 가장자리 부분은 널판으로 연결한 빗반자이고, 안쪽천정은 2단의 층급을 갖춘 우물천정이다. 기둥에서 뻗어나온 부처님의 갈색 기운이 내출목의 공포부재를 담쟁이 넝쿨처럼 타고 오르면서 천정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장관이다. 공포부재 살미양식을 빌려 내부에 깃든 신성한 에너지가 여덟 굽이로 천정 바닥면까지 휘감아 오른다. 울창한 생명의 숲을 보듯 신령의 기(氣)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놀라운 형국이다. 특히 어칸 기둥의 공포구조는 외부의 용두에 조응해서 몸통과 꼬리부분을 내부로 힘차게 한 바퀴 감아올려 힘과 역동성을 강하게 추동한다. 나선형으로 돌돌 감아 오르는 살미의 중중구조에 휘감아 뻗치는 꼬리의 힘까지 더해서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대웅보전의 용꼬리는 사선의 직선으로 뻗친 남원구역의 천불전 용미와 훌륭한 비교의 짝을 이룬다.



천정에 장엄된 아홉가지 전통악기와 칠보문양. 장구, 북, 해금의 삼현육각의 일부는 물론이고, 영산재에 사용하는 바라, 태평소 등 다양하다.



천정에 조영한 모빌형식의 봉황 탄 동자조형. 대흥사 대웅보전의 봉황과 선학조형은 모두 다섯개체로 드문 양식이다.

삼현육각 등 전통악기 9가지 묘사

빗반자의 벽화도상들은 독특한 구성으로 시선을 끈다. 빗반자에 베푼 도상은 두가지다. 하나는 악기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칠보,혹은 팔보장식 그림이다. 정면 빗반자엔 악기벽화를, 좌우측면 빗반자엔 칠보장식을 그려 놓았다. 18, 19세기 낭만주의적 사찰건축에서 일반적으로 빗반자엔 주악비천과 공양비천벽화를 장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흥사 대웅보전과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처럼 인물 없이 전통악기만 체계적이며 집합적인 형태로 표현한 예는 극히 이례적이다.

내소사엔 11가지의 악기가, 대흥사엔 9가지 악기가 나타나는데 대흥사의 것이 아류격이다. 묘사된 악기들은 장구, 북, 해금의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일부는 물론이고, 영산재에서 사용하는 바라, 태평소, 생황, 나각을 비롯하여 종묘제례에 등장하는 편종까지 다양하다. 천정의 악기벽화는 전통악기 교육용 편집교재를 펼쳐놓은 듯이 다분히 교본적이고 시청각적이다. 〈악학궤범〉의 악기그림들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천정에 펼친 〈악학궤범〉의 자락에 하늘 같은 무궁한 생명의 음악, 기악합주곡 '수제천 (壽齊天)' 이 흐른다. 천정 여백의 텅 빈 공간이 장중한 정악의 선율로 가득하다.

악기벽화의 본질은 법계에 울려퍼지는 천상의 선율이다. 일본 지온인 소장 〈관경16관변상도〉(1465년), 〈은해사염불왕생첩경도〉(1750년), 개심사 대웅보전 후불탱인 〈관경16관변상도〉 (1767년) 등에는 하늘에 그려진 악기그림의 본질을 자내증으로 드러내 보인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대덕에 대한 찬탄과 예경의 음악공양인 것이다. 천의가 휘날리는 악기 그림에서 품격과 정성을 갖춘 예경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에서 꽃 화병을 장엄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동시에 악기벽화는 유교사상의 핵심인 예악사상(禮樂思想)의 흔적으로도 보인다. 〈예기(禮記)〉의 악기편(樂記篇)에 따르면 '예' 는 위계와 절제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는 분별작용이고, '악' 은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동화작용이다. 석가여래께서 행하시는 영산회의 설법은 멈춤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그때 악기벽화는 법회의 성중들이 모두 일승의 삼매에 빠지는,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미적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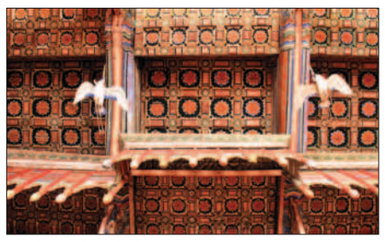
빗반자에 길상과 복록의 칠보문양

빗반자에 나타나는 칠보문양에도 천의가 휘날리는데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낸다. 〈묘법연화경〉 등 불교에서 표현하는 칠보, 혹은 팔보는 금, 은, 마노, 유리 등이지만, 대웅보전 천정에 장엄된 칠보문양은 부채, 무소뿔, 경전 두루마리, 경쇠, 마름모형과 오각형 엮음 등이라 보다 관념적인 특성을 띄고 있다. 물질적인 금은의 보석이 아니라, 지혜와 수명의 연속성 등 시대정신이 반영된 길상과 복록의 칠보문양이다. 이 같은 칠보문양의 단청장식은 건축의 현판이나, 외출목의 순각판 등에서 자주 표현하는 것이다. 공주 신원사 중악단 닫집에도 파다하고, 특히 순천 송광사 관음전 천정은 온통 길상과 복록의 칠보문양의 세계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인데, 관음보살에 청하는 인간의 욕망이 일정하게 밴 단면이라 하겠다. 관념적인 칠보문양마다 신성한 기운으로 부푼 천의가 펄럭이고, 붉고 노란 기운들이 고사리 싹처럼 돋아나서 기물의 영적인 성격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칠보문양에 생명의 새싹 같은 기운이 피어나는 장면은 유일무이한 극적인 대목이다. 그것은 사군자 묵매도에서 매화가지에 찍어 넣는 짧고 강한 태점처럼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복록과 상서의 시간적 무한성을 예리한 시츄에이션으로 이끌어 간 것이다.

천정의 중앙부분은 하늘의 관념적인 붉은 연꽃으로 장대한 장면을 이루었다. 모든 우물 칸에는 우물반자 내부에 뾰족뾰족 둥근 띠를 이어간 소란반자 틀을 마련했다. 틀의 바탕은 먹빛으로 가물 현(玄)의 바탕을 만들었다. 그 바탕에 붉은 색으로 꽃잎을 바림한 연화문을 무시무종으로 펼쳤다. 천정의 연화문은 처처소소(處處所所) 부처의 자리이고, 사부대중이 우화서(雨花瑞)의 꽃비에 성불하는 환희심의 당처일 것이다. 진리의 꽃, 그 꽃을 일러 묘법연화라 부른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중앙 칸 천정장엄.



대웅보전 삼존불과 내부장엄.



어칸기둥 용꼬리와 살미구조.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이 누리의 진리는 '비동비정'이다

마음씨 타령 ⑤

돌말이 뛰어가. 돌장승이 말을 해. 실로 우리가 이 자리, 가고 오는 것이 없어요.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리를 알아야 이걸 압니다. 납득이 갑니다. 만약 가는 것을 가는 걸로 보고 오는 것을 오는 걸로만 봐. 가고 오는 데 치우쳐 버려. 그러하면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가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는 걸 간다고 비유합시다. 내가 죽었어요. 이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합시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났다 합시다. 나도 난 것이 아니거든요. 파도가 생겨도 물을 여읜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 자리는 휘영청한 자리 의젓한 자리, 그 자리거든요. 그대론데 나긴 뭘 나. 나는 듯한 거예요. 가는 듯한 거예요. 전부 듯이에요. 우리가 사는 듯 나는 듯 남자인 듯 여자인 듯 늙은 듯 젊은 듯 한 거뿐이에요. 왜 듯인고? 늙음이란 정법이 없습니다. 정법이라면 한 번 딱 늙으면 영원히 늙어야 되는데 그것도 변해. 변해. 젊은 것도 듯한 거예요.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 것이 차차차차 늙어. 전부 듯 놀음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돌말이 가만있는데 가만있는 것이 가만있는 거예요? 가만있는 것은 가만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또 가도 가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본바탕 그걸 알면 이까짓 말 참 쉬워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조금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 의미로구나. 우리는 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팔만대장경에 얽매이지 말고 팔만대장경의 뜻을 알아야 되요. 그렇다면 돌말이란 것도 하나의 보리상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는 보리상이니 뭣이니 말할 것도 없고 뛴다 안 뛴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뛰면 참말로 뛰는 건가요. 돌말, 이것도 역시 하나의 환상으로서 나타난 거라 말이죠. 안 뛰는 건 참말로 안 뛰는 건가요? 뛰는 건 뛰는 것이 아니고 이름뿐인 뛰는 것이고 안 뛰는 건 안 뛰는 것이 아니고 이름뿐인 안 뛰는 거라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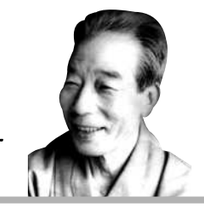
그러하면 돌말이 뛴다고 한 사람이 얘길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맞아. 뛴다 해도 좋아. 안 뛴다 해도 좋아.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설법을 통해선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돌말이 뛴다. 지화자 좋을씨고 돌말이 뛴다. 이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피어. 그거 참말로 핀 건가요? 참말로 핀 것이라면 영원히 있어야 되게? 곧 떨어져. 그 참말로 꽃이 떨어지는 건가요? 나중에 또 피어. 꽃이 피는 건 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건 떨어진 것 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돌말이 뛴다. 뛰긴 뭘 뛰어. 그러나 또 어찌 안 뛰냐 말이여. 왜 그러냐면 뛴 것은 뛴 것이 아니고 안 뛴 것은 안 뛴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을 딱 끄집어서 하자면 뛴다고 해도 말이 돼. 안 뛴다고 해도 말이 돼.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의 진리는 모습으로 봐서 차별현상으로 봐서 동, 움직일 동자, 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동을 위한 동 아닙니다. 동, 정이 둘 있는데 이건 고요한 것, 이건 움직이는 것 이랬는데, 여러분, 동이란 말이 어디서 성립이 됩니까? 이 정자가 있기 때문에, 고요한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없으면은 절대로 동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정, 이건 고요함을 뜻하는 건데 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동이 없는데 정이란 말은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 **동이 있기 때문에 정이 성립**
> **생 역시 사가 있기에 존재**
> **사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 **모든 것이 이러하니**
> **좋지 않아요?**
>
> **이 자리 주인공인데**
> **주인공이 결정한 대로**
>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 누리의 진리는 동도 아니고 정도 아닙니다. 비동비정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동 가운데 정이 있어. 정 가운데 동이 있어. 그러하니 우리가 움직거려. 그러나 다 움직거리는 것은 아니거든. 그 가운데는 정이 있거든. 정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 또 정은 동이 있어. 동이 있기 때문에 정이라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동은 비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생사, 생은 사가 있기 때문에 생이란 말을 하고 사는 생이 있기 때문에 사란 말을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에요. 그러하니 뛰는 것은 안 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안 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 중에 정이 있듯이 뛰는 가운데는 안 뛴단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래 봐도 좋아요. 안 뛴다는 것은 뛴다는 말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하면 뛰고 안 뛰는 건 둘이 아니다. 동과 정은 둘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이 누리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긍정이 갑니다.

처음에 이런 도리를 모르고 그만 말마디 거기에만 딱 들어앉아 버리면 참 있을 수 없단 말이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지화자자 좋을씨고 돌말이 뛰네. 돌말도 뛰어. 뛰는 듯해도 좋아. 모든 것이 사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러하니까 뛰는 듯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자리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 저녁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 돌말이 뛴다 돌계집이 노래를 한다. 나무달이 무공적이,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 줄 없는 거문고 소리를 듣는다. 이 말 전부 아까 돌말이 뛴다와 이 소식하고 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그 누리의 지도리를 딱 파악한 뒤에는 이거 마음대로 쓴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까짓 거 걸거침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써도 그 말한 그대로라요. 하 군, 알겠나, 우청,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벌써 뛴다 안 뛴다 상대성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뛰는 것은 뛰는 것이 아니고 안 뛰는 것은 안 뛰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도리,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누리의 진리를 파악함으로써만이 이 말이 소화가 돼. 그 전에는 소화가 안돼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흙 구덩이 속에 연꽃이 핀다

17-2 회향게(回向偈)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히들 계율을 일괄하여 혼동해 버리고 율도 또한 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에서 비구(比丘)와 대처(帶妻)로 분열되어 싸우는 것도 그 연원을 깊이 따지고 들면 이 율장(律藏)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계와 율을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부처님이 설사 말씀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를 지키느냐 어쩌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로서 곤란한 점이 많다. 이것은 난행도(難行道)이다. 물론 하기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퍽이나 존귀하고 거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가 그런 곤란한 일을 꼭 해야 되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있다. 자칫하면 짐짓 계율을 지키는 척하고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성(自性)을 속이는 그런 가장이 있고, 위선 · 가식 · 거짓부렁이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율은 더 이를 나위도 없고, 계에 있어 선행(善行)을 닦는다든지 거짓말을 안 한다든지 살생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이를 고찰해 볼 때 그런 계를 지킨다는 것이 실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깨닫는다.

생물로서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산 것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사람 생각으로는 동물을 죽이면 살생이고 식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따라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연과학(自然科學)이 발달하여 동물과 식물도 다 한가지로 생명체인 이상 생물학에서 통틀어 연구하게 되었으며 또 깊이 들어가면 동물과 식물의 한계가 모호한데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쌀이나 보리 같은 식물은 이를 먹어도 살생이 아니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식물일지라도 엄연히 그 자체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빼앗는다면 틀림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심지어 물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微生物) 같은 것이 꽉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물 마시는 것조차 벌써 살생이 된다. 물론 이런 것이 모두 다 살생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루라도 살생을 하지 않고는 못 살아간다. 중생은 이렇듯 죄악의 업장(業障)이라는 것이 깊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계가 아니라 죄악의 자각과 우리 스스로가 못나고 어리석은 중생이라는데 대한 심각한 반성인 것이다.

계율이란 제아무리 지키려고 애쓴다고 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조목마다 다 지켰다손 치더라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이 엉성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 **연꽃은 높은 산이나**
> **산 봉오리에 피는 것은 아니다.**
> **진흙 구덩이 속 연꽃은**
> **더럽고 지저분한 요소에**
> **하나도 물들지 않고**
> **꽃잎에 향기를 피워 자랑한다.**
>
> **인간은 오탁악세에서**
> **성도 내고 탐심도 부리며**
>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는다.**
> **이러한 가운데서 연꽃처럼**
> **옳은 사람 노릇하는 이야말로**
> **참다운 사람이다.**
> **현실을 도피한다면**
> **연화세계는 생각할 수 없다.**

이 계율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다는 소린가? 그것은 오직 염불을 하는데서만 청정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쉽사리 나무아미타불로서 완전히 계율이 이루어진다.

일본의 친란상인(親鸞上人)이라는 이는 아무리 애써도 계를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인물이 잘 생기고 퍽 풍모가 있는 사람이어서 여성들이 자꾸만 따르니 이들을 물리칠 수 없어 인정을 쓰다 보니 연애를 자꾸 거듭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죄를 참회하는데는 염불하는 것 밖에 없다' 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렇듯 인간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고백하였다는 점으로 많은 추앙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관련되어 재미나는 얘기는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가 원효대사(元曉大師)라는 소설을 지어냈는데, 여기 나오는 원효대사는 친란과 방불한 데가 있다. 원효대사는 결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데, 일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집어넣어 딴 사람을 만들어 왜곡된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원효대사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어 어느 모로 보나 완전무결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빈틈없이 하는 것이 부처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원효대사의 말씀에 무리지지리(無理之至理)하고 있다. 아무 이치도 없는 무리한 것 가운데 지극한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불연지대연(不然之大然),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차라리 커다란 긍정으로서 참된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사회는 오탁악세(五濁惡世)요 진흙 구덩이와 같다.

진흙 구덩이 속에 연꽃이 핀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산 봉오리에 피는 것은 아니다. 진흙 구덩이의 연꽃은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요소에 하나도 물들지 않고 꽃잎에 향기를 피워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는 말도 있다. 연꽃과 같은 오묘한 진리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 오탁악세에서 성도 내고 탐심도 부리며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일 안 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다.

손톱 속에 흙도 넣고 손으로 빗자루도 들고, 더러운 것, 정한 것, 가리지 않고 만져야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연꽃처럼 옳은 사람 노릇하는 이야말로 참다운 사람이다. 이를테면 오탁악세를 떠나 현실 도피를 한다면, 연화(蓮花)세계는 생각할 수 없다. 이를테면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의 진흙 속에서 진리의 오묘한 꽃은 창조되는 것이다. 이점이 원효대사의 사상이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영남 범음. 범패 제4기 학인모집

본 염불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 내용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작법무-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각사물 등..

- **교육과정** : 6개월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사)한국미륵불교 부설
영남범음범패 염불원장 재봉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봉사는 나를 위한 소중한 선물”…

정형자 씨 (조계종자원봉사단원)



정형자 씨는 … 1993년 불교간병인협회에서 전문 교육을 수료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해 보훈병원, 동부시립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병원일을 거들어왔다. 국립재활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목욕봉사를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조계종자원봉사단원으로서 수해복구, 노숙인 급식 등에 나섰으며 군법당, 복지관 등에서 급식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로 2001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왜 하냐구요? 글쎄요. 불자로서 보시는 당연하잖아요. 저는 가진 돈이 없으니 몸으로 보시하는거죠.”

정형자(66) 씨는 23년간 거의 매일 봉사로 삶을 꾸려왔다. 몸이 아플때도 약을 먹어가며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타났다. 철마다 수해피해를 입은 곳에 복구작업을 하기도 했고 병원에서 환자를 목욕시키도 했으며 외롭고 적적한 이들을 찾아 말벗도 돼주었다. 160센티가 못되는 키에 44킬로그램의 여린 몸을 이끌고 다니면 주위에서는 ‘간병받아도 시원찮을 몸에 누구를 보살피냐’ 면서 우려섞인 감탄을 보냈다.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던 정 씨 손에는 어느새 정부에서 주는 장관상 두 개가 손에 쥐어졌다. 2001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 최근에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헌신적인 삶에 바쳐진 훈장이었다. 무재칠시(無財七施) 중 신시(身施)로써 누군가의 팔다리가 되어 살아온 그녀의 보시바라밀 삶을 들여다본다.

손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정 씨가 조계종 봉사단원으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12월. 불교간병인협회 교육공고를 보고 간병인 일에 지원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전에는 불교방송에서 진행하는 사찰순례팀에서 한 달에 한 번 남짓 참가자들을 인솔하는 봉사를 했었다.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간병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1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도무지 체력이 받쳐주지 않더라구요. 원래도 몸이 약했는데 간병인 일이 좀 힘들어야지요.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관두려고 했는데 내 자신이 건방지게 느껴지면서 부끄러워지더라구요. 어설프게 덤벼들었다가 몸이 힘들다고 그만두는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봉사는 할 수 있겠다 싶어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정 씨는 진솔한 성품이었다. 생계를 걱정해야할만큼 팍팍한 삶이었는데도 바른 심성을 잃지 않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2주간 간병인 교육을 받고 바로 서울 둔촌동 보훈병원으로 봉사를 나가게 됐다. 대부분 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 사람이 그리운 이들이 대다수였다. 손 좀 잡아 줄 수 있겠냐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어떤이는 그렇게 잡은 손을 한참이나 꼭 붙들고 있었다. 사람 온기가 무엇보다 그리운 이들이었다. 그녀는 환자들을 일일이 챙기며 그들이 하는 말에 차분히 귀기울였다. 신문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 집을 나설 때 챙겨갔고 불자였던 환자들이 염주를 부탁하면 그러마하고 조계사 근처에서 사다줬다. 그때부터 염주를 가지고 다니며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아마 지금까지 수십, 수백개는 나눠줬을 것이다. 몸은 물론 마음마저 약해진 환자들에게 그녀가 나눠주는 염주는 종교를 막론하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됐다.

매주 금요일이면 환자들은 아침부터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는 등 부산을 벌였다. 그녀가 속한 봉사단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조금씩 환자들에게 정이 든 그녀는 오가는 이 없이 늘 혼자 오도카니 앉아있던 할아버지한테 유독 마음이 쏠렸다. 거동을 못하던 할아버지는 말수도 적었고 가족도 없었다. 가끔 조카가 오간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불자였던 할아버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1년이 좀 넘어서였을 거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임종하기 며칠 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할아버지 얼굴이 계속 생각났다. 울고 또 울었다. 집에서 걸레질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할아버지 생각에 펑펑 울었다. 죽음이 서글펐고 외로웠던 할아버지의 삶 또한 그랬다.

“같이 봉사다니던 분이랑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다할 추억을 쌓은 것은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니 그냥 그 자체로 슬펐어요. 그 후로 기도할때마다 할아버지가 극락에 가시길 빌었어요. 다른 봉사자 분은 할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49재를 지내줬다고도 하더라구요.

1993년 불교간병인협회 첫 노크
목욕봉사 및 노숙인 급식 등 진력
서울대 병원서 14년간 봉사행 펼쳐
행자부 · 문광부 장관 표창 수여

20년 새벽기도로 신심 다져
여행갈때 경전 가장 먼저 챙겨
1995년 생명나눔에 장기기증 서약
2년 후 자녀들도 따라서 동참

만남은 짧았지만 기억은 길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문득 문득 생각난다는 정 씨 눈에 그리움이 선했다.

당시 보훈병원까지는 집에서 두 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그런 걸 따져보고 다니지는 못했다. 이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었던 데는 불교간병인협회장을 맡고 있었던 정진 스님의 가르침이 컸다.

귀감이 돼 준 스님

정진 스님은 평생 병들고 소외된 자들 곁에 있던 분이었다. 보훈병원에 법당이 없는 걸 알고 보훈처를 수차례 오가며 결국 병원 구석진 자리에 법당을 개원했을 정도로 환자를 위한 마음이 극진했다. 법구경 등 경전테이프를 한가득 가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쉬고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포교에 열성적이기도 했다. 스님의 자동차는 항상 나눠줄 물건들을 바리바리 싣고 다니는 바람에 바닥이 내려앉을 정도였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진 스님은 지금 생각해도 참 존경스런 분이에요. 스님은 저희에게 매일 봉사하러 나와도 부처님오신날이나 초하루날에 빠지면 봉사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는 거였죠. 환자들에게는 그래도 그 날이 좀 더 다른 날보다 설레는 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각자 초파일을 보내기 위해 빠진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면서요. 정진 스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늘 있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절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거라 하셨죠. 제게 대단한 교훈을 주신 분이에요. 돌아가신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 씨는 그 후로 부처님오신날이면 절 대신 봉사현장을 지켰다. 아니 봉사하러 다니면서는 절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교리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평생 약자들을 돌보며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정진 스님을 보며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아갔다. 정 씨 말대로 스님의 행동과 생각은 주변인 모두에게 귀감이 됐다.

좀 더 힘든 일을 찾아

그러다 1995년 국립재활원으로 봉사장소를 옮기게 됐고 2004년부터는 집에서 가까운 상계동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목욕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좀 더 힘든 일,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목욕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목욕봉사는 봉사중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소문난 일이었다. 오죽하면 조계종사회봉사단 목욕 봉사팀에 10년째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곳이 허다할까.

장애인복지관에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다수라 1명당 4명의 봉사단원이 팀을 이뤄 목욕을 시킨다. 옷 벗기는 것부터 만만치 않기에 하루에 10명 정도 씻기고 나면 말할 수 없이 녹초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목욕봉사가 힘들다는 것은 봉사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서비스를 받는이에게도 마찬가지다. 내밀한 신체를 타인의 손에 맡겨야 될 때 느끼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상대방의 이러한 감정마저 씻겨야 한다.

“중풍에 걸렸거나 하반신 마비가 된 이들을 씻기다 보면 그대로 볼일을 볼 때가 있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이 큰 일을 봤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되면 어쩔 줄 몰라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이렇게 배변도 보고 얼마나 잘된 일이냐. 시원스럽게 볼일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며 다독이고는 해요.”

물론 처음에는 환자처럼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더 민망해하고 있을 상대를 생각하니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팀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관세음보살’ 하고 중얼거려요. 기독교인들이 놀랄 때마다 하느님 찾는 것처럼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을 찾는거죠.”

정씨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사의 첫 마음을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찾으며 남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길, 자비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길 짧게나마 기도했던 것이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23년 보시바라밀 실천행

불교 접하고 삶이 변해

정씨는 봉사하러 다니면서 꾸준히 금강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하다. 20년이 넘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경전 독송과 사경, 화엄신중단 기도를 빼놓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108배도 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중단했다. 지방에 갈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경전만이라도 읽으려고 꼭 챙겨간다.

돌아보면 그에게 기도와 봉사는 둘이 아니었다. 처음 가정에 우환이 생겨 절에 다니기 시작했을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이처럼 열성일 수 있었던 까닭은 그를 통해 자신이 치유되어 갔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을 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타인에게 봉사하며 스스로에게 생명력을 부여해나갔다.

"불교를 접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죠. 원체 몸도 약한데다가 마음도 건강하지 못해 보는 사람마다 힘이 없어보인다고, 얼굴에 화색이 하나도 없다고들 말했어요. 하지만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수줍음을 많이 타던 성격도 바뀌었고 가리던 음식도 많았는데 이젠 안 그래요. 작고 가냘프던 목소리도 좀 더 굵어진 것 같고요. 힘들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온 여동생도 요즘 제게 '보고만 있어도 좋다' 고 하더라구요."

360도는 아니지만 아마 240도는 달라졌을 거라며 웃는 정 씨.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경전을 보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교는 여전히 그에게 의지처다. 만약 마음을 달래러 절이 아닌 교회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면 아득해지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고 있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었을테니 말이다. 그랬다면 남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 지금과는 달리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정 씨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 힘들다"는 말을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고 산다고 말한다.

20여년 동안 잔잔히 변해온 그의 삶은 자녀들에게도 귀감이 됐다. 1994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생기고 장기기증 인식이 사회적으로 저변화되지 않았을 때도 그는 선뜻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그게 1995년의 일이다. 거부감은 없었다. 죽으면 그뿐 육체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기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으나 하나같이 만류하고 나서 설득을 거듭했다. 2년 후에는 오히려 자녀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왔다. 아들은 골수 기증 등록까지 마쳤다. 얼마 전에는 자녀들이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생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보고 감화를 받은 것이다.


1995년 불교간병인협회 소속 봉사단원으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불교간병인협회 초대회장 정진 스님이다.

정씨는 지금도 꾸준히 봉사를 다니고 있다. 월요일에는 목욕봉사, 목요일에는 제기동 동부시립병원에서 병원일을 거든다. 2005년부터 해왔으니 벌써 10년째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불광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본다. 서울대병원에서 14년간 해온 봉사는 병원사정상 12월로 마무리돼서 너무 아쉽다고 했다.

봉사가 중독성인 것 같다며 봉사를 못가는 날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하다는 정 씨. 더 많이 꾸준히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는 게 걱정이다. 나이가 더 들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봉사를 그만둬야 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아쉬워진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봉사하러 다닐 때 교통비마저 부담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반기며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던 사람들, 정이 고프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삶의 상처도 치유되어갔다. 특별히 어루만지지 않고 함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주일 내내 봉사했던 적도 있어요. 피곤했지만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나를 보며 웃어주는 이들, 반갑다며 인사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다닌거죠."

그들의 미소를 떠올리는지 정형자 씨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매주 금요일이면 불광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200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였던 대오 스님은 재단소속 장기 봉사단원이었던 정형자씨에게 공헌패를 수여했다.

전법일기

인심을 얻는 것도 포교

이곳 동네의 반장님 부부는 신심이 돈독하여 초하루와 보름법회에는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절이 생기기 전에는 멀리 속리산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나이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 절로 오셨다. 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몸이 불편한 부인을 부축하고 반드시 다녀가는 일등 불자다.

마을의 반장이 신도로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다. 마을의 대소사를 알 수도 있지만 사찰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

다행인 것은 이 동네의 이장님과 반장님이 우리 절 신도라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내가 여기에 처음 와서 절을 짓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한 곳이 마을 이장 집과 반장 집이다. 지금도 명절에는 과일이나 떡을 주면서 꾸준하게 정을 나누고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도 하지만, 마을의 인심을 얻는 것이 첫 번째 포교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절이 이웃에게 인심을 잃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다면 전법도량으로서 별 의미 없다.



그림 · 박구원

이웃의 어떤 절에서는 동네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절 진입로를 막고, 그 스님은 이장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동네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제공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사월초파일에 봉축 연등을 설치하면서 절 진입로가 있는 큰 길까지 장엄등을 연장하려 했으나 종교가 다른 몇 몇 분들이 반대하여 그 계획을 접었다. 나는 조그만 일이라도 마을 사람들과 다투거나 얼굴 붉히기 싫다. 뭐든 순리대로, 안 되는 일이라도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무슨 일이든 서둘다보면 실수하게 되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용한 전법을 하고 싶어서다.

여기에다 마을 주민들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동짓날은 팥죽을 쑤어서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해마다 농한기 때는 버스를 제공하여 야유회도 다녀오길 권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에 위문품을 주는 일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네에서 좋은 평점을 받아야 매사에 시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가을의 특별법회에는 수 백명이 몰려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마을버스도 지나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내심 동네 주민의 원성을 살까봐서 걱정하였는데 항의전화 한 통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동네사람들이 감수해 준 것은 평소에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았으면 무슨 언성이 오갈지 모르는 게 사람의 심리다.

이렇게 민심은 어려운 위기의 상황일 때 발휘되는 경우가 많다.

전법의 대상은 가까이에도 늘 존재한다. 멀리서 오는 세 사람의 신도보다 이웃의 한 사람이 훨씬 소중한 포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까이 살면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또한 종교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웃에게 보다 친절하려고 애쓰는 것이 나의 포교론이다. 여기 시골의 종교현황은 절에 다니는 가정이 3분의 1이며, 동네교회 다니는 가정이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그 어느 곳도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동네의 분위기는 절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지 않는 편이다.

마을길을 산책하는 게 하루일과인데 가끔씩 동네 이웃들과 만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반갑게 화답하는 분도 있지만 무표정한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큰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안면을 익히고 말문을 트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전법의 방법이라서 그렇다.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영산불교에서 '붓다의 3신'의 진실을 밝힌다

붓다의 실존과 위대함의 징표인 붓다의 법·보·화 3신을 말한다


현지사 대적광전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 인격적 형상을 가진 원만보신불의 모습으로 모셔놓았다

부처님은 계십니다

부처님은 우주법계의 가장 깊고 높은 차원인 '무아속 절대계'에 계십니다. 이를 〈화엄경 노사불품〉에서는 연화장세계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진실은 전불교사를 통해 부정된 적이 없지만 한번도 교학상으로나 수행상으로 전면에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실존을 사자후해온 현지사에서, 부처님 실존과 위대함의 징표인 부처님의 3신설을 교학과 신행과 수행의 전면에 내세우고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함을 천하에 알립니다.

기존 불교의 3신설의 문제

기존 불교의 3신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불교의 법신은 공성을 증득하면서 얻게 되는 우주의 본체인 공, 마음, 불성, 진여를 말합니다. 이를 완전히 깨친 부처님은 이 공을 자기의 몸으로 한다는 것이 법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법신의 개념을 영산불교에서는 더욱 깊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둘째, 불과(佛果)의 핵심은 보신(報身)의 증득에 있습니다. 이것이 법신의 증득 후에 도달하게 되는 불법수행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존 불교의 3신설은 이를 적극적으로 천명하지 못하고 법신의 증득이 곧 보신의 증득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초래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공성을 증득하는 삼매가 더욱 깊어지면 우주본체인 공은 빛의 차원으로 드러납니다. 기존 불교에서는 법신을 자성광명의 세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붓다의 법신은 자성광명보다 훨씬 강도나 광도가 수승한 무량광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공성을 철증한 대수행자가 수많은 생을 바라밀 수행을 통해 증입하게 되는 청정과 환희의 세계이고, 불과를 이룬 대수행자의 여여의 지(智)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대지(大智)의 광명체입니다. 이 무량광명의 본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신체이면서 모든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총섭하고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위신력

비로자나불은 인격적인 형상이 없지만 여기에 원만보신이 계합하게 되면 인격적 주체가 되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불력을 발휘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원만보신이 계합하게 되면 우주의 성주괴공을 좌우하는 창조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만보신

원만보신은 수많은 생을 수행해온 대수행자가 불과를 증득해서 얻는 몸입니다. 이 보신의 증득이 불과의 핵심입니다. 보신은 영혼체와는 다르며, 불과를 이룬 분만이 가지는 몸입니다. 32상80종호를 갖춘 대단히 상호단엄하고 아름다운 유형의 몸이고, 무량의 지혜·자비·복덕·위신력과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보신은 찬란한 무량광 빛의 몸입니다.

천백억 화신

화신은 보신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투는 보신의 분신입니다. 보신이 영원한 생명을 지님에 비해 화신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몸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점안한 불상이나 탱화에는 이 화신이 깃들어 중생을 제도합니다.

또 절대계의 붓다가 중생구제나 불법의 홍포라는 대원을 띠고 사바세계에 나타날 때, 보신은 절대계에 그대로 두고 영혼체만 빠져나와 인연있는 중생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몸을 특히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영산불교 3신설의 의의

부처님은 3신을 가진다는 불신론은 부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부처님이 우주법계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학상의 이론입니다.

우주법계의 어떤 존재도 부처님처럼 본체인 공과 완전히 계합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힘과 질료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우주의 법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영산불교의 불신론은 교학상으로만 거론되었던 3신설을 칭명염불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불신을 실제 증득함으로써, 기존 불교의 3신설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또 기존불교에서 외면당했던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함을 천명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
- 12월 21일 (일), 오전 9시 30분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3회)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춘천본사
033)243-1787,1795
대전분원
042)525-532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배우의 삶 던지고 재소자 포교하는 스님

영국 앙굴리말라 단체 이끄는 아잔 케마담모 스님

영국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교화시키는 단체가 있다. 바로 앙굴리말라(ANGULIMALA)다. 1985년 3월 설립된 단체로 영국 웨일즈 지역을 비롯해 영국 감옥에 있는 1600여 불자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앙굴리말라를 이끄는 사람은 아잔 케마담모(Ajahn Khemadhammo) 스님이다. 한 때 연극배우였던 스님은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인 로렌스 올리비에(Laurence Olivier, 1907~1989)와 함께 연기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불교에 귀의해 영국 재소자들의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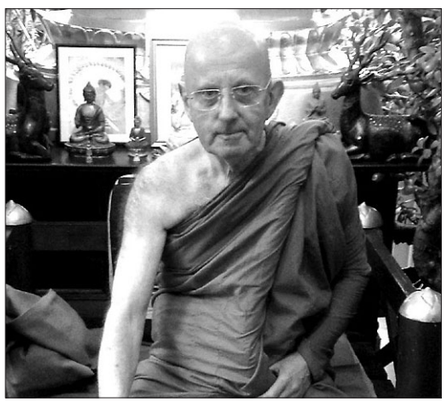
영국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 UK)는 11월 25일(현지시간) 아잔 케마담모 스님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국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가장 처음 귀의하는 종교가 불교이고, 불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케마담모 스님의 헌신적인 공로는 재소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다종교적인 시각을 갖게 했다. 그 결과 스님은 2003년 영국제국훈장(Order of the British Empire)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잔 케마담모 스님의 속명은 앨런 아담스(Alan Adams)다. 1944년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난 케마담모 스님은 성공회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독실한 어머니와는 달리 종교에 회의적이었다. 스님은 "어릴 때 매주 일요일 두 번 교회를 가야만 했는데 정말 싫었다. 어느 날 길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교회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는데 해방감을 느꼈다"고 웃으며 말했다.

17세 때 드라마 스쿨(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에 입학하면서 스님은 기독교와 자연스레 멀어졌다.

"한 2주 동안은 기독교적으로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도 해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종교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영국 재소자 교화단체 앙굴리말라를 이끄는 아잔 케마담모 스님(사진 왼쪽)과 연극배우 시절의 스님 모습. 스님은 연극배우의 삶을 포기하고 재소자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성공회 집안에서 자랐지만
기독교 신념체계에 회의 느껴
말라뿌따 경전 읽고 출가 결심

케마담모 스님은 셰익스피어와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공연하면서, 그리고 배우들의 현실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엄격한 정신교육법을 전파한 스타니슬랍스키 이론을 습득하면서 불교 명상에 매료 됐다.

"배우로 산다는 것은 명상적인 삶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되면 캐릭터의 마음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내 마음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젊은 시절 그는 평화와 행복을 꿈꾸는 보통사람들과는 달랐다. 기독교 적인 신념도 거부했으며 행복해지기를 바라거나 무언가를 바라는 소망 같은 것도 없었다. 그의 '무엇을 바라는게 없음' 의 마음은 그가 불자가 되는데 일조했다.

케마담모 스님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햄스테드 비하라 사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한 종교가 아니어서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어도 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가. 난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이) 그저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을 믿는 것만 삶의 방식이라 부를 수 있나. 당신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것, 더 나아가 말하는 것,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마담모 스님은 로렌스 올리비에와의 만남도 회고 했다. 올리비에는 영국 남부 브라이튼에서 하우스파티를 열었다. 당시 50대였던 올리비에는 처음 케마담모 스님을 봤을 때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오계(五戒)를 지키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 젊은 배우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파티 다음 날 저는 무대 문 옆에 서 있었는데 로렌스 올리비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중파 방송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있었고, 친절히 저를 그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이후 올리비에와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졌죠."

올리비에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교적인 성찰은 연극 무대를 뛰쳐나오게 했다. 연극단장인 딸라뿌따(Talaputa)와 부처님이 연예인의 공덕에 대해 문답한 〈딸라뿌따 경〉을 접하면서다.

"부처님은 딸라뿌따에게 배우는 무대에서 애욕 · 성냄 · 어리석음의 폭류에 묶여 있는 중생들을 자극하는 것을 공연해 그들을 더욱더 애욕 · 성냄 · 어리석음에 빠지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보고 관객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반성했습니다."

극단을 나온 케마담모 스님은 2주간 안거 수행을 마치고 여행과 명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스스로를 '파트타임 스님' 이라 생각해 불만족스러웠던 케마담모 스님은 '풀타임 스님' 이 되기 위해 27세가 되던 해 태국으로 떠났다.

1972년 태국에서 구족계를 받고 출가한 케마담모 스님은 아잔차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출가생활을 하다 1977년 영국으로 돌아와 불교명상 그룹을 만들고 포교활동을 펼쳤다. 1985년 3월 단체를 설립하고 에든버러, 피터헤드 등에 있는 교도소에 법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재소자와 교도소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스님을 따르는 불자 재소자는 1600여 명, 자원봉사자는 50여 명 정도다. 봉사자들은 재소자들에게 법회와 명상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 모범사례를 공유해 법당 유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마담모 스님은 "부처님은 인간이 갈망하고 불만족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셨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재소자들은 가족과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긴 채 죄 값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 삶에 희망을 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2회 아시아 불교예술 성료

손타르 감독의 'Kung Fu Nuns', 우수작 선정



아시아 불교예술제 'The Inner Path' 에서 우수작으로 뽑힌 티베트의 손타르 갈(Sonthar Gyal) 감독의 'Sun Beaten Path' 의 한 장면.

아시아 불교예술제 'The Inner Path' 가 지난 11월 24일 '불교영화, 예술 그리고 철학(Buddhsit Film, Art & Philosoph)를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료됐다.

아시아불교영화진흥재단(NETPAC)의 주관으로 열린 'The Inner Path' 는 지난 2012 인도에서 처음 열린 이래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올해 아시아 불교예술제에서는 티베트의 손타르 갈(Sonthar Gyal) 감독의 'Sun Beaten Path', 'Kung Fu Nuns' 등 두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The Indian Express〉는 "두 작품 가운데 여성의 출가와 수행 과정을 담은 작품 'Kung Fu Nuns' 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고 전하고 "손타르 감독의 2011년도 작품인 'Kung Fu Nuns' 에서 여주인공의 삶은 출가에 대한 동시대인의 편견을 허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NETPAC의 아루나 바스데브(Aruna Vasudev) 의장은 "손타르 감독은 불교의 전통과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탁월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Sun Beaten Path' 와 'Kung Fu Nuns' 의 우수작 선정 이유를 밝히고, "올해 아시아 불교예술제에서는 손타르 감독 작품 외에도 16편의 불교영화를 상영한 것은 물론 무대 공연, 컨퍼런스, 전시회 등이 마련돼, 아시아 불교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킨스키 닷산 스님, 미륵불 복원 한창

15미터 청동 미륵불, 바이칼 지역에서 최대 규모

러시아 바이칼 지역에 '미래 부처님' 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한 스님이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며 훼손된 채 수장고에 묻혀있던 미륵불 복원에 나서 화제다.

〈TASS〉 통신은 11월 25일 바이칼 지역의 타티아나 체렙쵸바(Tatiana Zherebtsova) 문화장관의 말을 인용, "아킨스키 닷산(Aginsky Datsan) 스님이 19세기에 조성된 후 2차 대전을 거치며 훼손된 채 수장고에 묻혀있던 미륵불을 복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칼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미륵불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히 아킨스키 닷산 스님은 "내년 3월까지 복원이 완료되면, 바이칼 지역을 대표하는 불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SS〉 통신은 타티아나 문화장관의 말을 인용, "아킨스키 스님의 불상 복원에 소요되는 1백만 달러는 바이칼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킨스키 스님이 복원하고 있는 미륵불은 16미터 규모로 19세기 초 중국 장안에서 조성되어 바이칼로 이운된 것"이라며 "현재 스님과 함께 5명의 바이칼 박물관 학예사들이 수장고에 보관된 미륵불 파편을 모으고 제자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실된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 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한 스님이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며 훼손된 채 수장고에 묻혀있던 미륵불 복원에 나서 화제다.

아킨스키 스님은 복원과 함께 바이칼 지역의 불교 부흥을 알리는 법회를 봉안하는 한편,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 이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아킨스키 스님은 타티아나 문화장관과 봉원장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거주증 없는 비구니 스님들 내 쫓겨져

中자치 당국, 티베트 비구니 단속 압박

티베트에 거주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 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로 내 쫓겨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월 20일 "중국 자치 당국은 올해 들어 티베트 제2의 도시인 르카쩌(日喀則) 딩그리(딩르〈定日〉)현에 있는 비구니 사찰 창루사(寺)에서 여승 100여명을 축출해 고향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보도했다.

인도로 망명한 한 10대 여승은 최근 RFA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수시로 사찰 거주증이 없는 비구니들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일반인 복장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나취(那曲)지구 비루(比如)현에 있는 자다사에서도 여승 26명이 같은 이유로 축출되는 등 티베트 전역에서 승려 추방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9월 비루현에선 사찰을 대상으로 정화 캠페인이 전개돼 신축 종교 건물들이 파괴되고 거주증이 없는 스님들이 대거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축출된 승려 가운데 상당수는 일정 기간 숲 속 등에서 숨어 지내다 단속 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찰로 돌아오거나 인도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베트 자치구 당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직전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 독립을 요구하는 유혈 시위가 발생한 후 티베트 불교 사찰들에 대한 증 · 개축을 금지하고 승려들에 대해 거주증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티베트는 물론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들에선 수시로 반(反)중국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귀환 허용을 촉구하는 분신이 133건 발생했다.

이나은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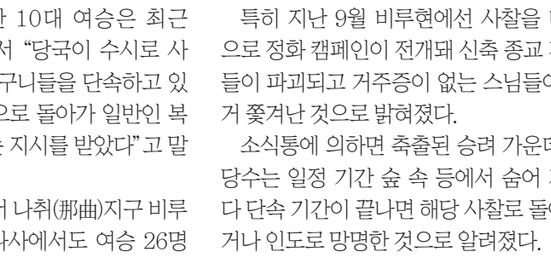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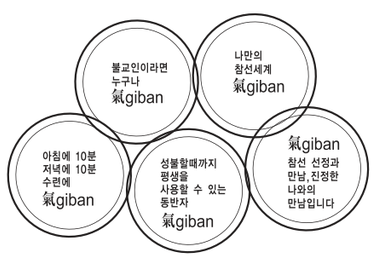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고흥 해수관음상 영운사 모연문

귀의삼보하옵고,

동북아 '우주항공허부'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자리한 해련산 신선대 **영운사 해수관음상**은 서방정토. 서해바다에 '용궁 .용왕. 방생'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이 경건하 예배하고, 소원을 빌면 **32응신**을 나투시어 모든 일이 잘 성취되는 영험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영운사에서 **대웅전 법당 건립**의 어려움으로 **기와 불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정법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영운사 주지 혜양 합장 –





불사 동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농협 351-0311-0956-53 (영운사)
(동참하신 분은 **010-2614-8730**으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 주 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 (영운사 주지 혜양 010-2614-8730)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10개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택배비 별도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보련기획

BORYEON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자신의 참본성 밝히는 마음공부 노래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선법합창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았다. 대행 스님의 선시와 법어를 노래로 만들어 마음의 도리를 널리 전해온 선법 합창단은 12월 13일 안양아트센터에서 30주년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사부대중 340여 명이 출연한다. 스님 64명을 비롯해 보살합창단, 거사합창단, 청년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등 계층별로 구성된 합창단들이 무대에 올라 선법가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선법가는 대행 스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부의 방편 중 하나다. 합창단은 마음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노래로 익혀 그 의미를 대중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다. 단원 모두가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는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은 실력의 여부를 떠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자' 는 공연 제목처럼 뜻을 모아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며 공연의 취지를 설명한다.

창단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시대별로 정리하는 자리로 공연이 꾸며진다. 1부에서는 대행 스님의 법어 영상을 시작으로 스님들의 합창 '선법가는' '선정관문 알아보세' 가 불려진다. 이어 OB합창단이 '마음의 불씨' '누가 하는가요' 등을, 청년합창단은 '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 등을, 어린이합창단은 '한사랑, 마음의 씨앗' 등을 공연하고 김원규 씨가 '정신발전의 길' 을 독창한다.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라는 주제로 12월 13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음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340여 명이 출연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선율로 전할 예정이다.

12월 13일 안양아트센터서
대행 스님 가르침 선율로
선법가 음성포교 30년 관록

2부에서는 서윤재 씨의 독창 '자유인의 한마음', 청년 소리꾼 최준의 피아노 병창, 보살 합창단의 가요메들리와 거사합창단의 렛잇비, 혼성 합창단과 청년 합창단의 '공식으로 흐르네', OB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그 마음 그대로'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 '만남' 을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릴 예정이다.

선법합창단의 기획을 맡은 윤수영 보살은 "각 합창단 별로 1주일에 3~4번 씩 모여 연습하고 있다. 선법가 공연은 물론 2부에서는 좀더 색다른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보살합창단은 율동에 맞춘 가요메들리를 거사합창단은 개그콘서트의 '렛잇비' 프로그램을 응용한 무대도 펼친다"고 설명한다.

거사 합창단 허재승 단장은 선법가는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각자의 업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가 선법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자기 수행의 방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입적하신 대행 스님께서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수행법의 하나로 선법가를 권하셨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과 몸을 잘 지켜볼 수 있는 생활 참선의 한 방편이 선법가라고 생각한다 "며 선법합창단 활동의 보람을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1984년 창단 이래 소년소녀 가장돕기 · 군법당 음성공양, 대장경연구소 발전기금 모금 공연, 안양교도소 공연 등을 통해 선법가로 세상을 밝히는 공연을 이어왔다. 특히, 1986년 4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음악제 찬불가 공연을 시작으로 1987년 호암아트홀서 한마음선원 국악 포교단 정기발표회를, 1999년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해탈의 문' 을 주제로 공연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제1회 한마음 합창제 '임의 소식' 을, 2004년에는 제2회 간암환자돕기 한마음 합창제, 2011년에는 '제3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 음악제' 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졌으며 2013년에는 오대산 월정사 야외특설무대에서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 를 개최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GD마크 선정

꽃살문 · 단청 문양 수첩 30점… 브랜드 경쟁력 강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지난 5월 런칭한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가 산업통상자원부 우수디자인 상품(GD마크 : GOOD DESIGN)으로 선정됐다. GD마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총 1,200여 작품이 각축을 벌인 끝에 화려한 단청과 꽃살문에서 추출된 전통문양 수첩 30종이 영광의 'GD' 마크를 달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본디나는 국가에서 인증한 'GD' 날개까지 달고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본디나' 는 '본디 나로 돌아가다, 본연의 나를 되돌아보다' 는 의미를 지닌 불교문화상품 전문브랜드로, 은은한 전통의 멋에 현대적 감수성을 더한 전통문양 수첩과 네임택, 여권 케이스, 여행용 폴딩백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본디나 제품

이와 함께 불교문화사업단은 서울디자인위크(WEEK) 기간 내 운영되는 서울디자인스팟&투어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서울시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9곳이 선정, 본디나와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되는 2014 서울디자인페스티벌(SDF)의 한국콘텐츠관에서는 본디나 문화상품 특별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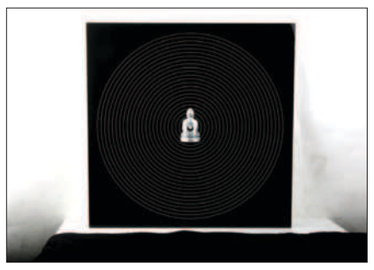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진 스님, '하루헌 궁리전' 서 전시

12월 9일~14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서

선진 스님(보현암 주지 ·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이 '제11회 하루헌(何陋軒) 궁리(窮理) 전' 에 참여한다. 궁리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12월 9일~14일까지 대구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27명의 작가들과 함께 일체가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선진 스님은 "마음 밖에 사물이 없어 일체가 마음의 조작이라는 이치를 깨달은 자는 화합하는 자입니다. 화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것이고 부정과 거짓이 없어 함께 행복하다는 것이죠. 너와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세상을 궁리해 보자"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한다.


선진 스님의 출품작 '궁리'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사격을 연상케 하는 작품을 통해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간절한 기도 먹빛으로 화폭에

김원교 개인전 12월 3일~8일

"박대성 선생님에게 글씨를 배우기 위해 10년 동안 경주를 오가며 천년 고도에 산재해 있는 불상들을 만났습니다. 불상들의 은은하면서도 의연한 미소를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가 나의 마음을 깨웠고 또 거기에서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김원교 작가의 개인전 '먹빛으로 물들다' 가 12월 3일~8일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빛' '내 안의 화엄' 등 불상에 조각보와 꽃 등을 응용한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지난 10여년간 경주를 오가며 박대성 화백으로부터 글씨를 사사받아온 그는 경주의 문화재를 그림으로 담아냈다. "몇 번의 개인전을 열면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즈음 평소 존경하던 박대성 화백님의 제안으로 글씨를 배우게 되었죠. 학교(광동고)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선생님의 작업실이 있는 경주를 오가며 너무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김원교 작가의 '내 안의 화엄'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가로 4미터가 넘는 '내 안의 화엄' 이라는 대형 작품을 선보인다. 2년 동안 작업했다는 이 작품은 비로자나불과 반가사유상 등을 조각보를 배경으로 작업, 대중들에게 불상의 편안함을 전달하고자 했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BBS 108배 저녁 편성 '수행 강조'

12월 1일 정기 개편 …월호 · 법찬 스님 진행자로 나서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12월 1일 하반기 라디오 프로그램 정기개편을 했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 신행공동체 중심이 되는 방송, 불교뉴스 강화, 지방사 포교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이다.

특히, BBS는 청취자들의 요청에 따라 오후 6시 30분 '저녁예불' 을 오후 6시로 30분 당기고, '저녁예불' 과 '행복을 찾는 108배' 를 편성 신행공동체와 함께 수행하는 라디오를 표방했다. BBS-TV '불교뉴스' 를 오전 7시 라디오로 동시 편성 불교종합뉴스를 30분간 집중보도하며, 지방사(부산, 대구, 광주, 청주, 춘천, 울산)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포교 프로그램을 선별, 전국 네트워크로 다시 만나는 '다르마 네트워크' (토 · 일 오후 9시 5분)를 신설했다.

또 행불선원 월호 스님과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불교이야기를 풀어갈 '리셋! 밝고 둥글게' (월~금 오후 9시 5분),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를 통해 깨달음의 법문을 들려줄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의 '선지식 법문' (월~일 오후 11시)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이며 '행복한 2시' (월~금 오후 2시 5분)는 불자 대학생들의 멘토로 각광받고 있는 법찬 스님이 새롭게 진행을 맡았다.

기존의 프로그램도 불교적인 색깔을 더하여 명상음악으로 하루를 챙기는 '마음의 샘터' (박지혜 아나운서 월~금 오후 10시 5분)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배우는 '명상카페' (일중 스님, 토 · 일 오후 10시), 가요와 찬불가가 함께하는 '한 낮의 풍경소리' (정준영 아나운서. 매일 낮 12시 10분)로 개편했다. **정혜숙 기자**

전통문화의 고수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 8일까지

2014년 한국전통문화 미술인전이 12월 8일까지 갤러리 경북에서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회장 김윤기)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22명의 작가가 참여 수월관음도 비천 여래 등의 불교 작품은 물론 깊은 밤 책장 넘기는 소리에, 감로수 등 다양한 전통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는 전 회원이 무형문화재, 명장, 문화재 수리등록인 등으로 구성되어 전통공예 전통미술 불교미술 고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불화 시연회, 범종교인 연합회전, 기획 순회전, 문화재 답사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전통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02)737-8883


전연호 작가의 '직부사자'

정혜숙 기자



문화人

한지에 빛 담아낸 '燈'의 예술 전통 넘어 현대적으로 풀어내

연등회 초대전 여는 인송자 등작가

"등은 선(와이어)과 면(종이)으로 이루어지지만 빛과 결합하면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등은 빛의 예술이라 할 수 있어요. 내부의 전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등 작업은 빛의 아름다움을 무궁무진하게 발견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이자 예술입니다."

등 작가 인송자 씨(44)가 12월 4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 갤러리에서 연등회보존위원회 초대전 '바람이 분다'를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의 사물과, 현대 조형 작품 등 10여 점을 선보인다.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라도 인 작가의 손길을 거치면 은은한 빛의 편안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예술로 빚어진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와이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되 닥종이의 질감을 이용해 먹빛을 표현, 사물의 아름다움을 빛의 예술로 탄생시켰다.

"본래 사물의 의미를 제 시각으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물 본래의 이미지가 있지만 작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다양한 실험을 거쳐 닥종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빛의 세기를 조절해 새로운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사물들에 얽힌 설화 등을 작품에 녹여 보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권좌' '화석2' 등 현대적 작품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은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작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세월호 사건 등 최근에 속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실망도 했고요. '불편한 권좌'는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자리가 지휘의 자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를 통해 그 자리는 누가 누구에게 부여한 자리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대중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습니다."


빛의 예술을 등에 담아내는 인송자 작가.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자신의 작품 '불편한 권좌' 앞아 있다.

절집 사물 은은한 燈으로 승화
무한한 빛의 아름다움 표현
TV방송 협찬·직접 출연
일상 속 등의 대중화 모색도

여기에 연잎 구조를 큰 원으로 확대시킨 '화석2'는 빛의 모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작품으로 담아냈는데, 이는 수묵화 한 점이 입체 미술로 탄생한 듯하다.

인송자 작가는 대학서 조각을 전공하고 등공예의 매력에 빠져 1999년부터 전통등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후 '빛놀이'라는 공방도 만들어 생활 속에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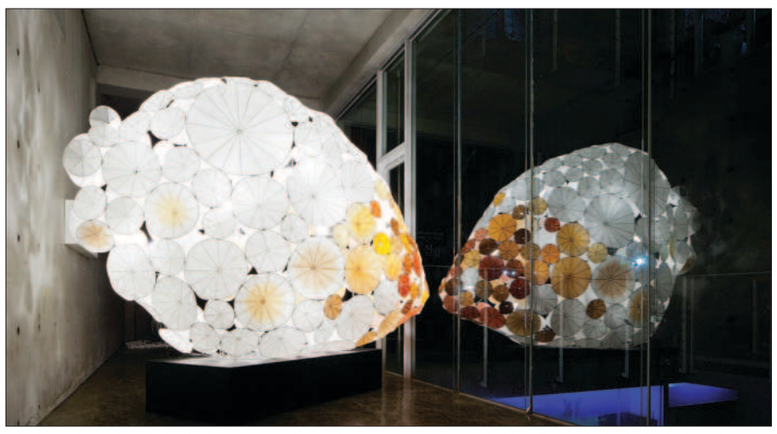
특히, 드라마 '부자의 탄생', 교양프로그램 '낭독의 발견' 등 다수의 방송에 등작품을 협찬,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SBS '생활의 달인'에 등공예 전문가로 직접 출연해 대중들에게 등 예술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전해준 바 있다.

그는 이런 활동을 통해 등예술이 우리 일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예술임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강조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민속주점이나 전통 찻집에나 걸려 있는 것이 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각 가정에 등 하나만 잘 사용해도 색다른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만큼 등은 옛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자 저는 꾸준히 등 작품의 현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무형의 빛을 가지고 잘 놀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빛은 세상의 근본이고 에너지의 시작이죠.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종이는 빛의 색깔을 곱게 담아주는 거름망 역할을 해요. 상상하는 것을 등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늘도 종이와 빛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으로만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빛을 잘 가지고 놀고 싶다는 인송자 작가. 그렇게 그는 자유자재한 빛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며 빛의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빛은 세상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또 하나의 세상을 열어가는 문이 되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지난해 연 개인전 '화석'의 작품 중 하나. 연잎 모양으로 물고기 형상을 조성한 것이 인상적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사물 작품 중 하나인 '범종'

망령된 생각, 하늘 해가 보고 있는 걸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㊼ 진관사 (上)




수려한 산세와 우거진 노송 속에 자리한 진관사는 조선초기부터 수륙도량으로 이름났다.

조선최고의 수륙도량

홍무(洪武) 정축년 정월 을묘일에, 상이 내신(內臣) 이득분(李得芬)과 중 신하 조선(祖禪)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국가를 맡게 됨은 오직 조종(祖宗)의 적선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상의 덕을 보답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아서는 안된다. 또 신하와 백성 중 혹은 국사에 죽고 혹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제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엎어져도 구원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내가 매우 근심한다. 옛 절에도 수륙도량(水陸道場)을 마련하고 해마다 재회(齊會)를 개설하여 조종의 명복을 빌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하니, 너희들은 가서 합당한 곳을 찾아보게 하라." 하였다. 사흘째 되는 정축일에 이득분 등이 서운관(書雲觀)의 신하 상충(尙忠)·양달(陽達)·승려 지상(志祥) 등과 함께 장소를 찾아 삼각산에서부터 도봉산(道峰山)까지 둘러보고 복명하여 말하기를, "여러 절 중에 진관사(津寬寺)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고 하니, 여기서 상이 명령하여 도량을 이 절에 설치하게 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쓴 '진관사수륙사조성기(津寬寺水陸寺造成記)'의 일부다. 〈동문선(東文選)〉 제78권에 수록된 이 기문은 조선 태조가 진관사를 국가차원에서 수륙재를 베푸는 도량으로 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매년 10월에 대규모 수륙재를 봉행하는 진관사의 전통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진관사가 언제 건립된 사찰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고려 초기 신혈사(神穴寺)라는 이름으로 존립했던 것은 확실하다. 고려의 8대 황제인 현종(顯宗 992~1031)이 신혈사에 머물렀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우선 그 이야기와 관련된 가사(歌詞) 한 수를 보자.

로석몽천혼유양(老釋夢天魂悠揚)
대성촉지금황망(大星觸地金煌 ᄇᆞᆸ
홀변위룡린갑동(忽變爲龍鱗甲動)
비룡이인재중당(匪龍伊人在中堂)
우수파악풍뢰권(右手把握風雷權)
좌수소지천중앙(左手笑指天中央)
련화좌하굴급천(蓮花座下掘及泉)
륙정근호쟁분망(六丁勤護爭奔忙)
산전협비이망상(山前夾匕爾妄想)
무내당당천일상(無柰堂堂天日相)
수지삼각오채운(誰知三角五彩雲)
일도암접청송장(一道暗接靑松)
세외불금상변해(世外不禁桑變海)
인간숙권미천망(人間 捲彌天網)
구가창만신혈로(謳歌唱滿神穴路)
구오공견비룡상(九五共見飛龍上)

불문곡령전두은해활
(不聞鵠嶺前頭銀海闊)
횡경협길언불상(橫庚ㅗ古言不爽)

노승이 꿈을 꾸니 혼령이 보이는 듯
큰 별이 땅에 떨어져 금빛이 휘황했네.
문득 변하여 용이 되어
비늘이 꿈틀대더니
다시 보니 용이 아니라
사람이 마당에 있었네.
오른손으로 풍운 뇌우 권한을 잡아 쥐고
왼손으로 웃으면서
하늘 중앙을 가리켰네.
연꽃 자리 아래에는 땅을 깊이 팠고
육정이 부지런히 다투어 호위했지.
산 앞에 비수 품은 너희 망령된 생각을
당당한 하늘 해가 보고 있는 걸
어찌하리.
누가 알았으랴 삼각산 오색구름이
한 줄기가 은연중 청송 고개에
닿아 있는 줄을
세상 밖은 뽕밭이 바다가 되는 걸
막지 못하고
인간에는 문득 하늘 가득하던
그물 거두어졌네.
신혈사 가는 길에 노랫소리 가득해라.
구오라 용이 날아오르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네.
못 들었나, 곡령 앞머리에
은빛 바다 넓었는데
왕위에 오른다는 꿈 풀이가 틀린 말이
아니었음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李瀷 1681~1763)의 문집 〈성호전집(星湖全集)〉 제7권에 전하는 이 가사는 해동악부(海東樂府) 가운데 '성변룡(星變龍)'이라는 악곡의 가사다. 악부는 중국 한나라 때 각 지방의 음악을 채집하여 정리하는 관서의 이름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악곡은 사라지고 가사만 전하여 시의 형태로 변화했다. 해동악부란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물을 소재로 사용한 악부다.

별이 용으로 변한 이야기

악곡 '성변룡'은 별이 변하여 용이 되었다는 뜻이다. 고려 8대 황제 현종의 불우했던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다. 현종이 천추태후로부터 살해의 위험을 넘기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오늘날 진관사인 신혈사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성변룡'의 내용이다. 〈성호전집〉에서는 가사를 싣기 전에 그 내용을 간추려 놓았다.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요긴한 설명이다.

대량원군(大良院君) 순(詢)은 안종(安宗) 왕욱(王郁)의 아들이다. 모후 천추태후(千秋太后) 황보씨(皇甫氏)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김치양(金致陽)과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김치양과 모의하여 그 아들을 왕의 후사로 삼으려 하여, 대량원군을 꺼려 강제로 출가(出家)하게 하니, 이때에 대량원군의 나이가 열두 살이었다. 처음에 숭교사(崇敎寺)에 머물 때에 어떤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큰 별이 절의 뜰에 떨어져 용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대량원군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뒤에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에 머물렀는데 천추태후가 사람을 보내 해치고자 한 것이 여러 차례였다. 절에는 노승(老僧)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방안에 구덩이를 파 숨기고 그 위에 침상을 놓아 불측한 재앙을 방비하였다. 나중에 목종(穆宗)이 승하하자 맞아다가 세우니, 이가 현종(顯宗)이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의 선원장 무상법현스님의
전법 수상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3판 인쇄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불러주시면
초청법회 및 싸인회를 통해 전법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찰과 단체(회사,기관,학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선원의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무상법현 일정 :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오후, 2.3.4주
일요일 오전, 음력 18일은 법회를 하고 있어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상기 외의 시간과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에는 언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 무상법현 합장
주소 :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05호 / 연락처 02)386-4755
이메일 opentemple@hanmail.net / 스님 직통 010-5245-0370



축
3판발행

"전국 유명서점과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을 50권 이상 주문하실 분은 법현스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9 ~ 11/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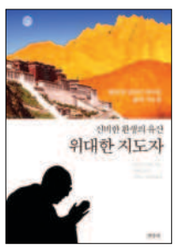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3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5	함이 없이 하는 도리(한영합본)	대행	한마음출판사
6	리셋	월호	마음의숲
7	죽창수필	운서주굉	불광출판사
8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4인	운주사
9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10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불광출판사



티베트 불교수행 3천년의 생생한 전승과 실천

위대한 지도자

라마 글렌 멀린 지음 | 김영로 · 조원희 옮김
민족사 펴냄 | 2만3천5백원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큰 바다를 뜻하는 '달라이' 와 영적인 스승을 뜻하는 '라마'가 합쳐진 말로, '바다와 같이 넓고 큰 덕의 소유자인 스승' 을 뜻하며, 티베트불교의 겔루크파 법왕의 호칭이다. 책은 달라이 라마 14인의 삶과 가르침을 엮었다.

책은 시간적으로는 약 3천년에 걸친 이야기이며, 공간적으로는 인도, 티베트, 몽골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관세음보살의 화현인 달라이 라마의 74번의 환생과 그들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환생 법맥으로 이어지는 달라이 라마의 신비스러운 계승 방법을 비롯해 역대 달라이 라마 14인의 탄생과 생애, 가르침을 망라했다.

로종(lojong)수행, 즉 '마음바꾸기 수행' 등을 비롯해 티베트 불교 금강승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대부분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의 하나가 '금강승'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강승의 가르침 대부분이 이 책에 들어있다.

저자는 캐나다 출신으로 1972년부터 12년간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의 스승 35명에게서 불교 교학과 수행을 지도받은 글렌 멀린(사진)이다. 〈샨티데바의 행복수업(입보리행론)〉, 〈죽음수업〉의 저자 김영로 씨와 〈위대한 길에서 마음 닦기〉, 〈사자의 서〉 등을 번역한 조원희 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현재까지 출판된 책 중 달라이 라마에 관련된 책은 80종에 이르지만 14대 달라이 라마(법명 · 텐진 가쵸)의 관한 책이 대부분으로, 제1대 달라이 라마에서 현재 제14대 달라이 라마까지, 티베트는 불교의 지도자 14인의 생애와 법문을 소개한 책은 이번 책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 〈위대한 지도자〉는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역사이자 티베트의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티베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졌으며, 환생제도로 이뤄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달라이 라마의 계승 방법 또한 많은 궁금증으로 불러일으킨다. 책 〈위대한 지도자〉에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과정이 생생히 담겨져 있으며, 역대 달라이 라마들이 티베트



달라이 라마 14인의 삶 · 가르침 망라
티베트 불교 금강승 중요 가르침 담겨

역사에서 담당해온 역할과 티베트 불교수행의 생생한 전승과 실천과정이 담겨있다.

티베트에는 방대한 문헌이 있는데, 이중 다수는 산스끄리뜨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한 것들과 이들에 대한 논서들이다. 그러나 더 인기 있는 것은 티베트 고유의 저술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위대한 스승들과 수행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나머지 것들은 개별 라마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저작으로 수는 많지 않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달라이 라마와 관련된 이런 종류의 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저자 자신을 포함하여 각 달라이 라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 역대 달라이 라마가 남긴 글들이나 가르침의 본보기들이 담겨져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티베트의 종교적, 정치적인 삶에 대한 과거 달라이 라마들의 공헌을 조명하고, 또 일반 티베트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류의 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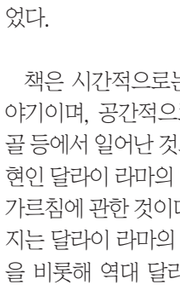
저자 라마 글렌 멀린(Glenn Mullin)은

캐나다 퀘벡 출신으로 대학 졸업 직후인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약 12년간 티베트불교 4대 종파의 스승 35명에게서 불교 교학과 수행을 지도 받았다. 또한 다람살라에서 20년 동안 달라이 라마와 그의 두 분의 스승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밀교는 달라이 라마 존자의 스승인 깝제 링 도르제창 스님과 깝제 티장 도르제창 스님에게 전수받았다. 〈열네 분의 달라이 라마(본서)〉, 〈여성 부처님들〉 등 40여 권의 역저서가 있다. 티베트와 관련한 각종 영화 제작에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1년에 여섯 달 이상을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불교 수행을 가르쳐 왔으며, 한국에서는 주로 서울 향천선원에서 지도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재구성

하루 한 편 떠먹는 삼국유사

일연 지음 | 윤병욱 편저
화담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를 제1부 '삼국유사 이야기 편' 으로 재편집하여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제2부 '삼국유사 정리 편' 과 제3부 '삼국유사 심화편' 을 할애하여 〈삼국유사〉의 완벽한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재의 인류가 이룩한 유 · 무형의 총체적 인프라는 '기록'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여 자신들의 생활상과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50만 년 인류사에서 길게 잡아 1만 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수십만 년을 두고 발생한 인류 역사는 어떻게 후대에 전해졌을까?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었다. 이를 흔히 '신화와 전설' 이라고 한다. 이 신화와 전설은 각 민족마다 고유하게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 있고, 중국에는 '삼황오제와 요순임금' 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단군신화'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와 전설 역시 찬란한 문명을 가꾸고 문자를 활용한 민족에게만 전해지고, 그렇지 못한 민족들에게는 점차 소멸되어 잊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군신화를 가장 먼저 대중에게 소개한 〈삼국유사〉는 암흑 같았던 우리나라의 상고 시대 역사를 밝힌 그야말로 등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인들은 흔히 〈삼국유사〉를 〈삼국사기〉와 즐겨 비교하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왈가왈부해왔다. 그런데 기실 〈삼국유사〉는 책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 〈삼국사기〉에서 빠뜨린 것을 보충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다룬 내용과 범위를 살펴볼 때 오히려 〈삼국사기〉를 초월한다. 역사학자 육

1부 '이야기 편' 으로 재편집
2 · 3부에 정리 · 심화편 할애

당 최남선은 〈삼국유사〉를 "조선 상대를 혼자 담당하는 문헌이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는가 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야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물론 철저한 실증사학적 입장에서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다른 역사서보다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부 사학자는 "허황하다" 혹은 "이단의 설이다"라고 가차 없이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 여기에 실린 신화와 전설, 민담과 신앙, 불교사상 등의 여러 내용이 일연 스님이 혼자 방 안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다른 사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와 더불어 당시 백성들의 염원과 신화, 전설의 세계가 어우러져 있다. 〈삼국유사〉는 이를 바탕으로 멋들어진 한민족 고유의 판타지 세계를 연출해내고 있다.

새롭게 재구성한 이번 책은 우리 조상의 기원과 역사적 애환을 되새기고, 민족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이제 이 책 한 권으로 고대의 한반도 역사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아름다운 기록 40년을 본다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

월간 불광 편집부 발행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근대 한국불교에서 문서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월간 〈불광〉이 창간 40주년을 맞아 지나온 40년사를 정리한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을 발간했다. 한국 잡지계에서도 쉽지 않은 '40년' 이라는 역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발행해온 〈불광〉 40년의 기록과 총 480권의 내용들 중 에센스만을 뽑아 한 권에 담았다.

월간 〈불광〉의 역사는 1974년 11월호부터 시작됐다. 〈불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 내 속의 부처님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밝게 비추겠다는 서원을 세운 광덕 스님에 의해 창간됐다. 〈불광〉 창간에 담긴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불광〉이 가야할 길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발행된 책은 한국불교의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고뇌했던 광덕 스님의 모습과 〈불광〉 창간으로 한국불교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스님의 이야기를 가상 인터뷰 '빛으로 온 그대, 광덕 스님' 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불광〉의 지난 40년을 시대별로 구분했다. 창간부터 1979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불광〉을 정리해 시대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불광〉은 다른 잡지들이 해보지 못한 교리문답이나 포교전략 등에 대한 특집기사를 싣기도 하고 경전을 현대적으로 풀이해서 연재하기도 했다. 이런 기획들은 뒤에 창간된 다른 잡지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불교 잡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되었다.

〈불광〉은 1980년대부터 조금씩 문화적인 성격이 돋보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예술, 신행,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2000년대부터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인 〈불광〉은 2010년대 전면 리뉴얼을 통해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창간 당시 13×18.7cm의 작은 사이즈였던 〈불광〉은 수차에 걸친 표지 변화를 단행했다. 2005년, 30년 만에 한 차례 판형 조정을 거친 후 2008년 표지에 바깥쪽으로 접히는 접지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접지가 접힌 상태에서는 전면 사진이지만 접지를 펴면 목차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2012년 17.1×24.7cm로 판형을 대폭 키우고 전면 컬러를 도입하면서 〈불광〉은 '읽는 잡지' 에서 '보는 잡지' 로 변신을 꾀한다. 이런 〈불광〉의 외형적 변화들 역시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에 잘 담겨 있다.

미당 서정주, 김동리, 고은, 조정래, 정채봉, 김춘수, 도종환, 이해인 수녀 등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불광〉과 함께 호흡했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후보이자 민족 사상가 함석헌, 연극배우 손숙(전 환경부장관), 지식인 윤 구 병 등 도 〈불광〉과 함께 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불모 석정 스님, 수안 스님과 함께 근현대 한국서단을 대표하는 일중 김충현 · 여초 김응현 형제,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안상수, 판화가 이철수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불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다. 그들의 손길을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월간 〈불광〉 창간호 표지

당대의 고승들과 시대의 석학들도 〈불광〉과 함께 했다. 성철, 서옹, 고암, 경봉, 석주, 일타 스님 등 한국의 근현대불교사를 이끈 고승들의 숨결과 서돈각, 양주동, 이항녕, 원의범, 황수영, 이병주, 홍정식, 목정배, 고익진, 문명대 등 한국 최고의 석학들의 손길이 〈불광〉 40년 곳곳에 묻어있다. 책은 이 모든 〈불광〉의 콘텐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불광〉 창간 40주년 기념 〈월간 '불광' 40년, 그 아름다운 기록〉은 기존 정기독자들은 물론 신규 · 재구독 독자들에게도 모두 무료로 전해질 예정이다. 또 이 책을 별로도 소장하고자 하는 독자는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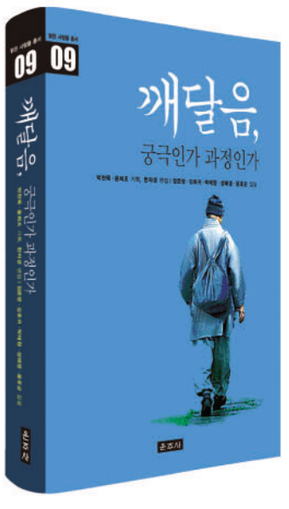
밝은사람들 총서 |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오강남 외 —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 정준영 외 — 326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일시: 11월 2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고찰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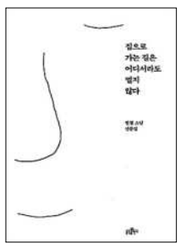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88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 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 8361 팩스 0505- 115- 8361 ●주문 (02) 3672- 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금 시작해도 주어진 시간은 충분”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글 원철 스님 | 그림 강일구 | 불광 펴냄 | 1만4천원



원철 스님〈오른쪽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서 7년간 일하다가 2011년 홀연히 산사로 내려갔다. 그동안 수행에 전념하며 스님들의 교육기관인 해인사승가대학서 학장 소임을 맡고 있다.

산사로 돌아가 처음 펴낸 이번 산문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수행, 공부, 여행 단상을 담았다. 누구나의 일상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힐링과 충고에 지친 요즘 우리들에게 맑은 차 한 잔 같은 ‘쉼‘, 그리고 반짝이는 ‘깨우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원철 스님은 노마드(homo-nomad) 스님이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수행자라는 것, 그리고 생각의 이동과 변화에 막힘없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 자유로움은 지금, 이곳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본한다. 늘 지금을 바로 보고 성실하자는 뜻을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집이다. 제목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무엇이든 바로 지금 시작하면 된다. 그 생각을 놓지 않는 것이 순간을 사는 방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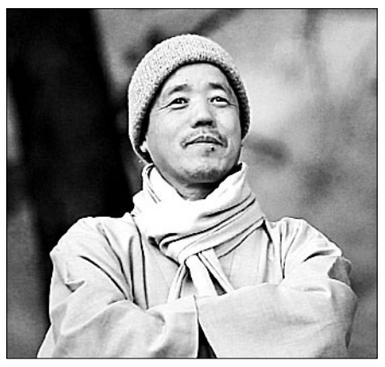
스님의 글에는 요즘 대세인 힐링 혹은 멘토의 아픈 충고가 없다. 스님은 어떤 깨달음도 강요하지 않는다. 잘하라고, 노력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지루하면 책을 읽고 심심하면 길을 떠나는 것이 내 나름의 행복 비결이다”라는 스님은 말처럼, 책 읽고 여행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김치 담고 빨래하고 해킹도 당하는 스님의 일상이 잔잔하게 그려질 뿐이다.

이 심심한 일상 속에 사금파리 같은 반짝거림이 있다. 읽다 보면 이심전심 전해지는 ‘무엇’이 있다. 가령, 깨 잘 볶는 사람이 커피콩도 잘 볶는다, 내리는 빗소리와 올라가는 끓는 물소리에서 느끼는 경계의 아름다움, 짧은 가을이지만 겨울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는 충분하다, 백차(찻주전자에 배인 찻물을 맹물로 우려낸 차)를 대접받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 등의 문장이 그렇다. 스님은 무엇을 가르친다거나 거창한 뜻을 전하려 하지 않지만, 덤덤한 일상의 이야기는 ‘백차’처럼 천천히 흘러들어 공명을 일으킨다.

현대인들은 너무 잘하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안간힘 쓰며 노력한다. 최선, 행복, 사랑, 용서, 일……. 모든 좋은 가치들을 가지려고,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더 힘들고 피곤하고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 원철 스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심히 바라보기’를 권유한다. 겨울날, 스님은 가만히 있지 못해 뜰의 나무를 가지치기하다가 되레 나무 모양이 망가진 것을 보면서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보다 못하다. …… 모든 것을 떨군 나무와 윤곽이 드러난 산줄기의 모습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즐기는 일은 한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멋과 여유다.” 너무 바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무심함’이 아니겠냐고, 스님은 슬쩍 말을 건넨다.

이번 산문집은 ‘중도(中道)’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산승에서 수도승으로 다시 산승으로 돌아간 스님의 위치가 그러하듯, 도시 – 산속 / 이동 – 머묾 / 떠남 – 만남 / 감춤 – 드러남 / 채움 – 비움 / 한 방울의 물 – 바다 / 개화 – 낙화…… 등 양변의 이야기다. 가만 보면 인생은 두 가지의 변주로 흐른다. 우리의 불행은 한 가지만 보기 때문이다. 삶 속에 죽음이 있으며, 잃었으되 얻는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며, 차갑지만 뜨겁기도 하고, 한 방울의 물에서 바다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중도의 지혜를 터득하면 인생의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산승이건 도시승이건, 머무는 자리가 어디건 성실함을 다하는 수행자인 원철 스님을 통해 하나에서 둘을 보는 마음의 눈을 떠보자.



2011년 산사 돌아간 뒤 펴낸 첫 산문집
‘중도(中道)’에 관한 이야기 주내용
“끝은 또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강조

스님은 생각과 일상에 대해 솔직하다. 거리낌이 없다. 자유롭다. ‘조선스키’ ‘짚신스키’ ‘이노무스키’ ……, 차창 밖으로 보이는 스키 대여점 간판을 보며 상념에 빠지거나, ‘공부의 신’이 3개 국어에 능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거나, 덥석 이불 빨래를 했다가 내리는 비에 후회하기도 한다. 겨울 찬바람을 막겠다고 외풍과 씨름하고, 서고 정리를 하다가 하루 종일 독서삼매에 빠지고, 도로에서 차가 막히자 내친 김에 근처 유명한 호두나무를 보고 가자고 핸들을 꺾는다. 또 도반 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 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죽고 싶다 ‘는 속내를 보이며 애써 누른 슬픔을 꺼내 보이기도 한다. 누구나 겪을 법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수행이란 특별한 수행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을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스님도, 평범한 우리에게도 세상은 평생을 머물러야 하는 거대한 수도원인 것이다. 평범함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그것이 비범한 삶일지도 모른다고 스님은 에둘러 말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쉬기 위해 휴가를 낸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몰려간다. 진짜 쉼은 어떤 모습인가. 스님은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한다. 평소 몸 놀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삼천 배를 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것이 ‘휴(休)’라는 것, 스님이 경전을 읽는 것은 일이지만 잡지를 읽으면 휴식이 된다. “쉬고 또 쉬면 쇠로 된 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말을 인용하며 스님은 ‘쉬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쉼’을 강조한다.

시작과 끝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은 익히 들어온 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고.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혜와 격려다. 스님은 이런 말도 일상에서 길어 올린다. “겨울 준비로 김장을 했다. 자연산 배추는 별로 볼품이 없지만 어디에 내놓더라도 맛과 향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배추걷이가 끝난 휑한 빈 산밭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 배추로서는 아름다운 마무리이겠지만 김치로서는 새로운 시작이다.” 배추의 죽음이 아니라 김치의 시작을 보라는 스님의 혜안이 머릿속을 환하게 한다. 배추로서 끝낼 것인가, 김치로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다.

김주일 기자

1년 열 두달 행복으로 인도할 설법가이드

일년 열두달 마음여행

조계종 포교원 엮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2만 3천원



불교는 스스로 이해하고 깨우치는 종교이다. 홀로 성찰하면서 신앙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불심이 깊건 약하건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자칫하면 정신은 흐트러지고, 마음의 틈으로 마가 스며든다. 이번에 나온 〈일 년 열두 달 마음여행〉은 불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설법의 말씀을 한 권에 담았다.

진심과 사랑이 담긴 설법의 말씀은 불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불법을 구전으로, 구전된 불법을 아름다운 문자로 만들었기에 책장을 넘길 때마다 든든한 스승을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불자라 할지라도 불심에 따라 설법의 이해도는 판이하게 다르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포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전법의 주제 · 분량 · 어투 등을 신경 써야 할 것이 매우 많다. 이 책은 열두 달, 한 달에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해 설법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단행본이다. 친숙한 콘셉트를 선정한 것은 물론이며 그 안에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까지 실어 설법을 준비하는 스님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법회와 설법〉에 월별로 소개되었던 설법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고, 계절과 시기에 맞게 소개된 48개의 설법을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설법을 접하기 어려웠거나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불자들에게 각각의 설법에서 얻을 수 있는 목표와 올바른 신행 생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유교경〉 〈반야심경〉 등 불자라면 꼭 읽어야 하지만 경전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불자들을 위해 에피소드와 경전을 씨실과 날실처럼 엮었고, 널리 퍼진 이야기들이나 전법자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구성했다. 수행을 많이 한 불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불자로서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일 년 열두 달 마음여행〉은 누구나 겪을 법한 고민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접근한다. 공부의 진짜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법우에게는 공부의 진짜 뜻을 설명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공부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 준다.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불자에게는 자비관법 수행을 권한다. 눈을 감고,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생각나는데 자신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니,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라고 권유한다.

김주일 기자

선수행자의 마음리셋법 … 행복 순간 떠올리기 등

9할

마스노 슌묘 지음 | 김정환 옮김
담앤북스 펴냄 | 1만3천원



일본서 선을 수행하는 승려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정원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저자 마스노 슌묘는 이 같은 못난 마음을 ‘번뇌’라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번뇌에 대해 꽤 너그러운(?) 관점을 피력한다.

“이 일곱 가지 마음 습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번뇌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조금은 해소한 듯해도 다시 새로운 번뇌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 점점 증식합니다. 하다못해 이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저자는 번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증식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일곱 가지 번뇌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번뇌, 일단 인정하고 마주하자

서론에서 저자는 불안, 걱정, 욕심, 질투 등 일곱 가지 마음 습관을 소개하며 우선 이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번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소개한다. 자신의 물건 중 딱 하나만 포기해 보기, 나만의 생활 규칙 정하기, 혼자 지키기 어렵다면 함께할 친구 구하기,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현금으로 사기, 출퇴근길에 바람을 온몸으로 느껴 보기가 그것이다.

오늘 당장 출퇴근길에 신발 앞코 대신 하늘을 보고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걸어 보라. “생활의 단 1퍼센트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저자의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 줄이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

1장과 2장은 각각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불안과 걱정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둘 다 ‘내 마음이 만들어 낸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불안이 현재나 먼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걱정은 아주 가까운 곳, 지금이나 내일 등 가까운 미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람은 행동과 고민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평소 사소한 일에도 걱정에 휩싸이는 사람에게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최대한 준비”하라고 말한다. 걱정을 줄이기 위한 실행 방법으로 저자는 ‘걱정을 종이에 직접 써 볼 것’을 권한다. 걱정거리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뒤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라”고 말한다. “행동할 때는 걱정도 고개를 치켜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멍하니 보내라

3장은 욕심내는 습관을 다룬다. 물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자는 ‘흘려보내기’와 ‘방하착(放下着)’을 제시한다. 무언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사지 말고, 단 며칠이라도 그 마음을 흘려보낸다. 며칠 후에도 계속 갖고 싶은 물건은 ‘사라’고 말한다. 방하착은 헛헛함이나 공허함을 소비로 달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법이다.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멍하니 보내는 것’이 방하착의 핵심이다.

짜증 줄이려면 감정 격할 때 주문 외쳐라

5장의 주제는 짜증내는 습관이다. 저자는 평소 말씨와 행동거지 그리고 생각을 정돈하면 불필요한 짜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방법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으로 “나만의 주문을 세 번 외쳐 보라”고 제안한다. 이를테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라든가 “화나지 않았다, 화나지 않았다, 화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 이를테면 타인의 언행으로 인한 짜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포기하거나 내 생각을 바꾸거나. 타인은 결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시각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마음 리셋법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실용적이라는 점이다. 못난 마음의 문제, 즉 번뇌의 원인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보다는 번뇌를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게다가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불안이나 걱정 등 부정적 감정을 다룬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서적과 이 책이 다른 점이다.

저자는 선(禪)을 수행하는 승려지만 이 책에서는 좌선이나 명상 등 깊은 수행을 권하지 않는다. 아침에 5분 빨리 일어나기, 술 마실 때 상대와 헤어지는 시간 정하기, 어린 시절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 떠올리기 등 저자가 제안하는 마음 리셋법은 참 쉽다. 간단하다. 그래서 책을 읽는 즉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신제품
문질러 발라주세요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근육통이 있으신 분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깨달음의 '원더랜드'는 지금 여기에 있다

불교로 읽는 古典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진우기
지엘통번역센터 원장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 있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자니 점차 몹시 지루해졌다. 그래서 앨리스는 데이지 꽃 다발이나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는 데이지 꽃을 뽑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분홍 빛 눈의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가까이 뛰어왔다. 그게 딱히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보고 서두르자, 그제서야 이전에는 조끼를 걸치거나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고, 호기심에 불타올라서 토끼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토끼가 울타리 바로 밑의 큰 토끼굴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본 앨리스는 어떻게 빠져 나올 건지는 생각조차 않은 채 굴로 뛰어들었다.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中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못한 순간에 삶에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한다. 그것은 대개의 경우 앨리스가 굴 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한 순간에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 대개의 경우 이런 큰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강조한 부분처럼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지루함'을 느껴야 한다. 나날의 삶에 신선함과 활력이 사라져 그저 만사가 시들하다. 이것만 성공하면 삶이 빛날 줄 알았는데 삶은 여전히 시든 배추처럼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한다.

둘째, 어느 정도의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마음, 삶에는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으리라는 기대 말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어느 날 딱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셋째 아무런 '생각 없이 뛰어들어야' 한다. 지금이 그때인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등등의 계산을 하고 분별하고 비교해선 안된다. 그러다간 다 놓쳐버린다. 지금이 아니면 안될 것처럼 올인하며 뛰어들어야 한다. 앨리스가 토끼굴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앨리스는 아직은 성격이 말랑말랑한 7살 소녀이고 호기심으로 충만해있으니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들은 자의라기보다는 거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그런 굴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굴의 메타포

'굴'의 메타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다. 굴은 우리가 맨 정신일 때 그렇게도 피하려고 했던 어둠의 세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혼돈의 세계이다. 앞뒤도 없고 상하도 없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들어맞지 않고 박살나는 순간이다. 평소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깔끔한 성격이라면 이 굴속에서의 당혹감과 실패감이 매우 크다. 굴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단군신화에 보면 웅녀는 굴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을 계속 먹고 나서 환골탈태하여 여인이 되고 단군을 낳을 수 있었다. 불교에서도 많은 훌륭한 수행자들이 굴에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거듭났다.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도중 토굴 속 버려진 해골에 쌓인 물을 마시고 난 후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깨달음을 얻고 발길을 신라로 돌린다.

밀라레빠(위대한 수행자로 추앙받는 티베트 불교의 성자)는 복수를 위해 흑마술을 배웠다. 이 기간이 바로 밀라레빠가 어둠의 굴속에 갇혀버린 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후에 밀라레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수행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수행자가 된다. 그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히말라야의 석굴에서 면포 1장만 걸치고 수행을 하곤 했다.

앨리스 역시 굴속으로 떨어진 후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앞뒤가 바뀐 상황들을 계속 겪으며 조금씩 자신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떨구어 나간다.

고정관념을 버리는 여정

수없이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앨리스는 이곳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당면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뿐이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라는 비교적 탄탄하고 정리되고 고상한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던 앨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몸(작은 자아)이 되기도 하고 다음 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인(큰 자아)이 되어보기도 하며 자아관념의 무용성을 온몸으로 체험한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징그럽다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애벌레가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았을 때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애벌레: 너는 누구야? (Who are YOU?)
앨리스: 대화의 시작으로 별로 고무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저 지금은 적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가 누군지 알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저는 여러 번 변했어요.



팀버튼 감독이 디즈니와 함께 제작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0)〉의 스틸컷.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동 · 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읽히고 리메이크되는 고전이다. 미국의 도엔 선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으로 풀어낸 〈원더랜드〉를 쓰기도 했다.

말하는 토끼 따라 굴을 넘어가니
그곳에는 '이상한 나라'가 펼쳐져
인지 넘어선 異세계는 禪과 닮아

앨리스의 여정은 고정관념 버리기
일체 자유로워야 깨달음에 이르러

이렇게 이성을 되찾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간 시점이 우리가 만물을 새로운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리 되었을 때 다음의 대화처럼 기준점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

애벌레: (버섯의) 한쪽을 먹으면 네가 커지고, 다른 쪽을 먹으면 네가 작아진단다.
앨리스는 생각한다. 무엇의 한쪽이지? 무엇의 다른 쪽이라는 거지?
앨리스는 한쪽과 다른 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버섯을 본다. 그런데 버섯은 (보름달처럼) 둥글었다.

제52칙 '애벌레의 조언'

둥근 원형의 물체에서 어떻게 이쪽과 저쪽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없는 역설적 상황이다. 처음부터 기준점도 없고 이쪽저쪽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구분과 분별과 편 가르기를 해왔을까?

미국 뉴욕주에 소재한 선산승원의 루리 선사는 이 대사를 이용하여 그의 52번째 공안 '애벌레의 조언'을 만들었다. 그가 이 공안의 가르침을 압축한 시는 다음과 같다.

Rather than free the body,
free the mind.
When the mind is at peace,
the body is at peace.
When body and mind are both set free,
The Way is clear and undisguised.
몸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이 평화롭다.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울 때
도는 분명히 절로 보이게 되리라.

아마도 3조 승찬 스님이 말했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가 바로 이런 경지를 일컫는지도 모른다.

이곳이 바로 경이의 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으로 풀어낸 〈원더랜드〉 저자 도엔 선사는 여기서 묻는다. "우리는 당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선선히 인정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경이와 불확실의 상태에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어 선사는 조언한다. "내가 원더랜드라고 부를 저쪽 언덕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한마음(One Mind)'을 체험한다. 한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지워버릴 때 체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저쪽 언덕인 '원더랜드'에 서서 한마음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쪽 언덕이 즉 이 세상이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경이의 나라임을 알게 된다. 피안 즉 저쪽 언덕이란 공간적으로 우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피안 즉 '원더랜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앨리스는 운 좋게도 토끼굴에 떨어지는 행운을 만나 그 사실을 체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굴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며, 최악의 상황은 최대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이원성의 체험

〈금강경〉에는 다음과 같은 역설이 자주 나온다.

부처가 설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여래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나니 그 이름이 세계라

두 번째 문장을 틱낫한 스님 스타일로 풀면 이렇게 된다. "세계는 세계가 아닌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틱낫한 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꽃은 꽃이 아닌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꽃 속에는 하늘과 바람과 햇빛과 정원사가 있다. 꽃 속에는 이미 퇴비가 있다"고 말하며 불이(不異)의 가르침을 쉽게 펴고 있다.

도엔 선사는 선 수행을 이원성의 섬을 떠나기 위해 밧줄을 풀고 출항하는 것에 비유했다. 공안, 좌선, 스승의 지도와 주장자가 날아드는 것은 모두 이원성을 떠나 한마음을 체험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그리 할 때 온 세상이 그리고 삶의 매 순간이 음악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악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음악을 꺼버리고는 그 음악에 대해 생각한다."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 아닌가!

춤을 생각지 말고 춤을 추라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장미꽃이 퇴비와 다르지 않음을 진실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곳곳에 다음과 같은 '바닷가재 카드리유'가 여러 번 등장한다. 조금씩 수사구를 바꾸어 등장하지만 결국 요점은 '함께 춤을 추어요'인 것이다. 자, 오늘 하루도 11월의 바람과 춤추고, 정시에 오지않는 지하철과 춤을 추고, 내 작업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 상사와 함께 춤을 추어 보자.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춤을 출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춤추지 않을래?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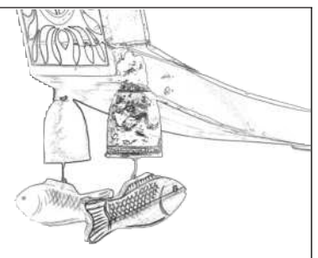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사람이 배운 게 없으면 늙어서도 저 황소처럼 부질없이 살만 쪄 아무 지혜도 없게 된다. 헛되이 나고 죽으며 가고 오며 괴로워하건만 마음은 탐욕스런 몸에 의지하니 괴로움은 끝이 없네.

- 법구비유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 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사주 배우실 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양산 보성정사)
010-3844-0646 동명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야 콘 판 매
당도와 맛 우수함
사찰음식과 건강
식품으로 용이함
쥬스도 있습니다
011-9503-4848

인도 다람살라에 계시는
달라이라마(성하님) 친견 및
수계 받으실 분을 모십니다
네팔 룸비니와
인도 사대성지 순례포함
스님과 재가불자님
* 네팔 카투만두 타멜에
한국식당 및 호텔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호스님 010-6267-3435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비법 실전 사주
- 격국,용신을 뛰어넘는 쉬운 통변법
- 장애 및 조상음덕을 찾아
(빙의, 산소탈 등등) 천도재 등
각종 재로 이끄는 비법 및 방편법
* 3개월 후 새로운 비법에
눈뜨게 됩니다.
032-515-5922 (출장강의 가능)
(별도 : 빙의 퇴마법 강의)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3770-53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요망)
064-726-356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시)
010-5579-0404

청암 달마도
장당 5천원 (40cm × 60cm)
동지불사에 선물이나 불사용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친필 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10장 이상이면 사찰명,
법명 써 드립니다
010-2953-8770 / 051) 202-8700
www.달마.kr

기문강의 안내
기문학은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라도
배울 수 있는 아주 높은 학문입니다
학생이 뭣때문에 공부가 안되나 시험운
과 학과,학교명,과목,차후직업 등 사업자
왜 사업이 잘 안되는지, 사업자 사주와
공무원,직장인 사주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혼인, 상조, 이사, 출행,
단식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게 기문입니다
꼭 배우실 분만 전화주세요
스님직접 강의 5개월 완성
부산 010-3544-9777. 051-721-6444

어깨부터 발목까지 관절에 대하여 치료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시는 스님이나 보살님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010-3359-8897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특수하고 또 특수한 기도법을 스님께 확실하게 일러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기문둔갑,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 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명 리 학 강 의
(주 1회 3시간 2개월 완성)
사주. 작명. 개명
(전화 상담)
일지암 (서울)
010-3695-1626 법정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지장기도 및 천도법회 안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지장보궁 지장사에서는 선망부보 왕생극락발원 지장기도
및 천도재를 무주상 보시로 3년간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 초중고 명상수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봉행합니다. 오시는 분께는 네팔에서 가져온 당뇨,
고혈압,비만에 좋은 차를 무료로 드립니다. 출가수행 할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지장보궁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332 / 전화 054)332-1189 www.jijangsa.net

함께 할 종도를 모십니다
부처님의 원융평등 사상과 관음보살의 자비 보시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분담금 없는 종단 * 등록비 없는 종단
* 금전과 감투싸움 없는 종단
우리 정겹게 수행하며 봉사하는 종도로 함께 합시다
불교통합조계종 054)439-4600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377번지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봉 은 불 교 미 술 원
불화 (탱화) 제작 전문
괘불, 후불 (영산 회상도), 칠성, 신중, 산신,
나한 (오백나한), 감로탱화
종합 (무속탱화), 종류별 불화...
홈페이지 주소 / 봉은 불교 미술원 (불화 자료 보실수 있읍니다)
불모 오 재 택 (가암)
(온양) 010- 8237- 3545

종무소 직원 구함
○ 남녀 불문 ○ PC 가능자
○ 사찰에서 숙식조건 ○ 급여는 상담 후 결정
(충남 부여)
010-5424-555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4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미국동양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육임술 제2기를
12월 1일(월요일) 저녁 6시에
개강합니다.
■ 강사진 :
김영배 AOU총장(한국육임학회 총재)
이내각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초빙교수
(한국육임학회 회장)
신성빈 AOU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 교수
(한국육임학회 경기북부지회장/AOU 평생교육원장)
●육임귀신술 동영상 핵심 24회 수강가능
●육임사주술 동영상 핵심 5회 수강가능
미국동양학대학교
www.aou.ac
총장 김영배 (효사)
☎ 02)738-868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 금강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계곡이 흐르고 건물 3동
- 토지1700㎡
- 물과 산과어우러진 조용한 암자
- 양도금액 : 3억3천만원

010-5479-5779 (창건주)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기도처
- 이동가능한 수백억원 가치 조경석,간판석
- 용바위,거북바위,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010-3858-8335

사 찰 전 세

- 위치 : 부산 시내 지하철 5분
- 3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 전세2억 월100만원

010-6236-113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9억 8천
◎ 위치 : 수도권
◎ 종교용지 : 1300평
◎ 법당 : 50평, 전각3채
◎ 요사 : 100평
◎ 양도가 : 15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기 양평(급) 사찰 양도
* 법당 42㎡. 요사채 60㎡. 토지 약 1500㎡
* 주변이 산과전원주택. 추천사찰
* (급)양도금액 : 3억(실인수가 2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 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포교원 안내

- 부산 충무동 포교하기 좋은위치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입주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부천시성무로21번길40-19번지 부천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삼불존, 신중단, 영가단 완비
- 일체 다 되어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방 2개, 주방, 별채 방 1개, 종각
- 평수 : 98평, 텃밭도 있음, 창고 20평
- 가액 : 전세 1억 1,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답사 후 조정

010-6674-13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 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물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102-532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 3층 중 2층 약 60평
- 큰법당, 큰공양간, 방 3, 샤워실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201-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2채 50평, 방5개 창고 등
- 가액: 5억 5천

010-2124-362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876-5353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40평)
- 법당1 상담실1 큰방1 작은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삼존불, 상당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108소불 (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8653-3216

사찰(급)안내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 요사, 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포시장 지하철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988-724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1, 종무소, 공양실1, 화장실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300만원

010-4680-932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50평, 요사채30평
- 산신각, 용왕당, 주지실
- 가격 상관없이 하실 분 보고 결정

010-8957-8089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8천만원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진동 방향 국도변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주지실1, 경내주차 15대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창원 마산 7분거리, 기치료, 철학 최고위치
- 가액 : 3억 4천만원 (1억 8천만 대출 포함) 절충가능

010-8846-7090
010-8008-7913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디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혜 광 선 원

- 위치 :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163평, 전답790평, 건평40평1채(준공4년), 12평1채(올해완공), 원두막1채, 각종 과실나무 올해부터 수확
- 경치 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 총 2억4천만원(조정가능)

010-8591-107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안양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호계시장 입구
- 평수 24평, 5층건물 3층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300) / 방2, 주방, CCTV 4대 설치
- 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정수기 세탁기 등, 주방집기 일체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369-3569
010-3136-8889

사찰 암자 기도터 명당자리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 2길 484-3
- 면적 2,000평
- 거실, 산신각, 용왕전, 뒤산 밤나무 약 100주(매년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2억 5천만원

011-278-944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 1동 하단시장 부근
- 2층 35평, 방2개, 법당
- 몸만오시면 됨(완벽한 조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654-48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신정동
- 5층 건물중 2층, 90평
- 법당 50평, 공양간 10평
- 요사 큰방1, 중간방 2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292-1090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대창면
- 대지 : 200평
- 건물 2동
- 삼존불, 탱화
- 가액 : 8,500만원

010-3595- 9856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대로변
- 평수 : 약 40평
- 20년 운영중, 민원 없음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

010-5253-5292
031)242-859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010-8725-31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건물 : 4층 건물중 3층 약 50평 마루바닥
- 구조 : 법당, 삼존불, 지장불, 관음지장소불(약 200불)
- 방3칸, 공양간, 샤워실 및 화장실 남,녀
- 가액: 일천만원. 월세50만원 시설물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

010-5364-00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맞은편
- 현재사찰 운영중 입니다
- 평수 50평
- 법당1, 공양간, 산신각
- 시설 깨끗함, 비품은 가격절충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세 55만원

010-9459-947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502
- 답 396평
- 사찰터
- 가액 : 2천 5백만원

010-8852-1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대구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태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 28평
- 1층 방3, 주방, 거실 /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범종, 소불 108위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3천, 월세 3천에 월 50만원

010-8611-756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항동
- 3층 건물중 2층
- 38평, 대로변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7314-873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 평수 290평, 실제평수 350평
- 대웅전 23.9평 요사 40평, 삼성각 2평
- 창건년도 35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 꼭하실분만 연락,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4억 5천

011-9536-9801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 산신각, 기와법당
- 요사채, 방 3칸
- 마루, 부엌, 전기, 수도완비
- 기도 도량임

010-7266-6768 (법무)

토굴 주택선방 안내

- 위치: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 주택 24평, 방3개, 주방겸 거실
- 욕실, 참선 기도공부 하기 좋음
- 스님 10년 거주 확장 이전함
- 현재 공실, 즉시 입주 가능함, 시세이하
- 가액:4천5백 선착순 방문 , 상담 후 조절 가능, '꼭' 오실분만 연락

010-9787-5505
010-2599-3040

사찰(터)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 평수 378평, 전망최고
- 가액: 4천 5백만원

011-676-5367

별장 같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진주 15분 거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그림같이 이쁜집(25평) 전원주택 형태
- 법당 33평, 삼존불, 원목가구(피나무) 원불전, 내부시설 여법히 조성
- 모든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 마당 : 정원시설, 정원석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루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833-511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수안동 지하철, 버스 5분거리
- 4층건물 중 3층
- 3층 :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100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가능)

010-3664-1387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샤론 샐즈버그 · 로버트 서먼

〈1〉 첫 번째 승리: 외부의 적

선행은 적과의 경계 허무는 자기 수행

미국에서 30년 넘게 불교와 명상 수행법을 전파해온 샤론 샐즈버그와 서양인 최초로 14대 달라이 라마에게 비구계를 받은 불교학 교수 로버트 서먼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담앤북스 刊)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과 명상법을 바탕으로 분노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전한다.

저자들은 고대 티베트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적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바로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은밀한 적, 가장 은밀한 적이다. 외부의 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케 하는 개인과 일들이다. 내부의 적은 편집증적 욕망 · 분노 · 질투 · 자만 들이다. 은밀한 적은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숨은 '자기 집착' 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은밀한 적은 뿌리 깊은 '자기혐오' 다. 책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네 종류의 적을 정복하는 방편을 제공한다. 그 내용을 발췌 · 요약한다. 〈편집자 주〉



'인내' 는 적에게 분노하지 않는
가장 훌륭한 보호 · 방패막
적을 향한 분노는 판단력 훼손
'우호감' 은 유익한 바이러스

우리는 죽음보다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두려워한다.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칠 때 그러하다. 다행히도 적의 손에서 육체적 고문을 견뎌야 하는 지경에 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육체적 고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유연성 향상에 이로울 수 있다. 육체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대부분의 실용적인 방법들이 '자제' 를 권한다. 분노 같은 충동적 대응은 그 고통을 악화시킬 뿐이며 고문자를 자극해서 더 지독한 해악을 끼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증오 또한 고통을 줄이는 데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투옥돼 끔찍한 상황을 견뎌야 했던 티베트 수도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도관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노를 품는 대신에 지금 고문자가 가하는 그 고통 덕분에 자신이 앞으로 겪을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고통을 견디는 일이 일종의 성취처럼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모든 것은 돌고 돈다' 는 자명한 진리를 터득했다면, 더 나아가 '카르마' 라고 부르는 인과법칙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적이 가하는 고통이 바로 그 자신이 미래에 또는 내세에 겪을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의 대부분은 정서적 고통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는 모토를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종류를 불문하고 자기에게 가해진 모든 괴로움을 이용해서 적에 대한 증오로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적에게 분노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훌륭한 보호막으로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다. 그 보호막은 바로 인내이다. 인내라는 방패를 갖출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유연해진다. 고통을 가하려는 적의 노력을 더 잘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적을 향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격렬하게 분노하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짓밟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런 사고방식에 따른다면 분노는 방어벽이다. 분노는 대항할 힘을 부여하며 분노가 없는 사람은 나약하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진실을 간파할 수 있다. 분노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흥분시킴으로써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훼손하고 순간적인 분노 폭발에 에너지를 즉시 소모하게 해 우리를 약화시킨다.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분노는 코르티솔 같은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혈류를 따라 돌고 도는 코르티솔이 순환계를 손상시킨다.

누군가를 향한 적의를 극복한다는 것이 그에게 굴복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공격을 당할 때 증오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무도(武道)에서는 상대를 제압할 힘을 얻기 위해 분노를 초월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모든 무도가의 말처럼 분노할 경우 균형을 잃고 금세 지치고 적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진다. 또한 지나친 두려움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격을 당할 때 두려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 유익한 종류의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 공격에 훨씬 더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실제로 위협할 공격에 대해 경고하면서 건설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두려움은 유익하다. 하지만 우리를 마비시키는 편집증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훌륭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이 두려움은 유익하지 않다.

내가 만드는 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과거에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그들을 적으로 간주한다. 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그들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관점은 대체로 우리 자신의 혐오감이 투영된 것이다. 과거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쳤으므로 현재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 누군가가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행했으므로 현재 그 사람은 우리에게 분노한다. 우리는 해악이나 상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들에 대한 정신적 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도발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 틀을 사람들에게 투영하고 그들을 적으로 바꿔 버린다. 누군가가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면, 즉 우리가 정한 위험한 사람 틀에 그가 딱 들어맞으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당장에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 만약 그를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한다. 이런 감정은 그를 적으로 보려는 우리의 관점을 강화한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 라는 말에 절대 수긍하지 않는다. 어쨌든 내가 새로 정리한 잔디를 짓밟으며 달린 것은 '나' 의 자동차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 자는 '나' 가 아니다. '나' 는 동료의 고객을 가로채고 몹시 즐거워하는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를 능가하고 지배할 작정이라면 우리는 적을 만드는 일에 자기도 한몫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불쾌하고 위협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누구나 유쾌하고 호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척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돌아보면 그가 상처를 준 순간이 기억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화를 내거나 그가 화를 낸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 은 고정된 정의가 아니다. '나' 를 해쳤다고 믿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원히 붙어 있는 이름표가 아니다. 적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붙여놓은 정체(identity)다. 그가 무엇을 행했든 행하지 않았든 간에 적을 만드는 행위는 항상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적 만들기

기독교도 집안에서 자란 한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하늘 높이 치솟곤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고양된 후에는 예외 없이 난해한 질문이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는 이웃을 증오한다면, 이웃이 무섭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영 호감이 안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자신을 증오한다면, 하루를 돌아보니 그날 자신이 한 행동들이 상당히 못마땅하다면, 그리고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을 접할 때 항상 경계심과 적의와 단절감과 고독을 느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반응들을 자신의 습관화된 대처 양식을 관찰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을 이분화하려는 강렬한 충동이 있어서 그들을 상반된 두 범주로 나누려고 든다. 고정관념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진화적 메커니즘으로, 위험한 세상에서 용케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속기술(速記術)인 것이다. 허술하지만 서로 연관된 수많은 특성을 의미하는 글자들로 이루어진 질서정연한 지대를 만듦으로써 우리는 혼란스러운 삶을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그렇게 사전에 만들어 놓은 분류 체계를 일반화해서 특정 계층과 집단과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한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 모든 사람들을 깔끔하게 분류해서 각 범주에 집어넣고 나면 우리는 그 이름표 너머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기준, 즉 내집단(Ins)으로 정하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타인, 즉 외집단(Outs)으로 규정한다. 자기 가족이나 소속 집단을 표준으로 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소 열등한 범주에 집어넣은 후, 자부심을 북돋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 그들' 마음 상태에 갇히고 만다. 사실상 적을 끝없이 양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우호감은 적 만들기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편견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로 서로 다른 인종 집단 사이에서 상호 간의 신뢰가 의심만큼이나 빨리 유행하고 퍼져 나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우호감은 '확장된 접촉 효과' 라는 것을 통해 유익한 바이러스처럼 상대 집단 속으로 침투한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이 효과는 대단히 강력해서 편견을 한 시간여 만에 증발시킬 수 있다. 타인, 즉 '적' 과 평화롭게 접촉 하는 것이 열쇠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난민 캠프인 오세 샬롬-사네아(Oseh Shalom-Sanea)가 한 가지 예다. 이 캠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조직들은 어떤 식으로 대규모 계획을 세우면 우리 대 그들 장벽을 허물 수 있는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관심의 폭을 넓히고 '우리 대 그들' 경계선을 지워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선행을 하는 것이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나 이웃과의 진심어린 대화 등 아주 간단한 선행도 외견상 우리와 달라 보이는 사람들과의 분리감을 줄여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 관심사보다 더 큰 문제에 참여하고 동조함으로써,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말처럼 " '나' 를 끄고 '우리' 를 켬으로써" 간단한 인간적 접촉을 통해 소외를 극복한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실제로 배운다.

세상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와 타인으로 나눠 놓으면 타인 영역은 잠재적 적으로 가득하다. 지금 사랑하는 타인도 나중에는 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치거나 언짢게 한다면 우리는 즉시 그를 겁내고 혐오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의 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그를 인간으로 보고 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편견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적이 그 편견과 집착에 응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외부의 적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를 증오하는 것 같은 자에게만 주의를 집중할 경우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진짜 적을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의 증오를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증오는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이자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를 깨우는 선물이 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담앤북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샤론 샐즈버그(Sharon Salzberg)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바(Barre)에 '위빠사나 명상 협회(Insight Meditation Society)' 와 명상 수행처 '포리스트 선원(Forest Refuge)' , 불교학을 연구하는 '바 센터(Barre Center)' 를 공동 설립했으며, 30년 이상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쳤다. 마음챙김 명상과 메타(METTA · 자애) 명상을 기반으로 나와 남을 위해 사랑과 연민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버트 서먼(Robert Thurman)은…



콜롬비아 대학교 인도-티베트 불교학 교수로 미국 최초의 불교학 석좌 교수로 임명됐다. 서로는 베스트셀러 〈내면의 혁명(Inner Revolution)〉을 비롯해 〈화(Anger)〉, 〈무한한 생(Infinite Life)〉 등이 있다. 티베트 경전도 번역한다. 14대 달라이 라마에게서 비구계를 받은 최초의 서양인으로 환속 후에도 티베트 불교의 법맥을 뜻하는 '텐진 TENZIN' 을 별명으로 쓰고 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주안 1~2분사이 가정법원, 등기소 1분거리내 아파트 대단지, 사통팔달 교통 편리, 지하철역 근접, 2분거리내 카페 골목, 시장 복지관 사이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010-8941-14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시내 • 대지 98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각층 25평), 외부화장실 2, 창고 1
• 법당 오디오 시설 완비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2억(절충가능)
010-5424-3850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닥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바다가 보이는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 전(관리지역) : 1014평(건축허가 가능)
• 전기, 토목, 조경, 연못, 도로공사 완료
• 농막 허가(컨테이너) 1동 설치
• 가액 : 2억(대출 육천오백) (1억 3천5백 인수가능)
010-2002-1000

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국유지 임야 약 900만평
• 민자유치 특별건 공시가 평당 500만원
• 천혜자연 조건, 2차선 접한 명승지
• 임대 및 양도, 저금리융자
• 기타 다른 토지 상담후 결정
010-3288-131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사천시내 중심지 시장 인접 최적지
• 평수 : 60평
• 삼존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봉안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0-3895-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 5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사동
• 4층건물 4층 • 총평수 76평(분할 가능)
• 엘리베이트,옥상사용가능 • 주변 환경 좋음
• 보증금 2000천만원, 월120만원
010-5808-5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법당 50평 • 2층건물 2층(옥상사용가능)
• 방 2, 화장실 1 • 즉시법회가능
• 청동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보증금3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2천만원(조정가능)
010-8528-909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 02) 957-0824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갤러리 색즉시공



아침바다에서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아침바다에 고깃배 떠있고
아린 가슴에 떠도는 이름처럼
이른 하늘에 갈매기 펄럭인다

어느 물결이 파도가 되어올까
바람은 소식이 없네
인연도 다 그렇게 왔다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삶이란 무엇인가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종교는 사랑의 실천
복과 지혜 함께 닦아야
여법한 삶, 가정에서 시작

법정스님에게서 배우다

불교에 입문해서 경전 이외에 처음 접한 책이 법정 스님의 글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종교의 본질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불교를 알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신행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스님의 종교에 대한 정의가 평소 실천이 없는 행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고 생각해온 나의 신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보살행, 자비행은 깨달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익혀가는 정진이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쌓은 행의 축적이 마침내는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고매한 이론도 무용지물이라는 나의 생각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나의 인생관과 부합되는 것이 좋았다. 지혜만 닦고 복을 닦지 않으면 덕이 부족하고 복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함께 닦는 일이 아는 것을 하루하루 행하는 데 있다는 말씀은 나에게 명약으로 다가왔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즉시 실천하기 시작했다.

법정스님의 글을 보면 "인도에 가서 길을 물어보면 길을 가르쳐주고 식사값까지 내주고 간다. 스님을 보면 예를 갖춘다. 우리나라는 그런 신도가 별로 없다." 라는 글이 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즉시 실천에 옮겼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은연중에 스님들이 나를 바라보게끔 하는 습성이 생겼다. 한번은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한 스님을 만났다. 모르는 분이었지만 "스님 어디가세요?" 하고 여쭈었더니, "아산병원에 갑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요." 함께 택시를 타고는 내가 차비를 냈다.

적게 소유한 청빈한 삶만이 진정한 존재 양식임을 말씀하시고 낡은 것, 묵은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거듭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던 스님의 말씀은 나의 신행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낡은 생각, 묵은 고정관념, 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날마다 기원하고 살았다. 그 동안 나름대로 불자답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서 기인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에 한 번 출간하시는 책을 읽으면서 스님과 동시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고, 늘 새롭게 나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스님은 세상과의 작별도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답게 하셨다. 스님의 마무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다비식 때 상좌 스님들이 관도 쓰지 않은 스님의 법구를 모시는 장면은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언행일치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했고, 언론에 밝혀진 유서의 내용을 보고는 다시금 눈시울이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가고 싶지 않으니?"내 이름으로 발간된 책을 절판하라."는 유언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긴 말씀처럼 인간적이고 따스하다.

"상좌들 보아라. 인연이 있어 신뢰와 믿음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들은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가려 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보내주면 고맙겠다. 모두들 스스로 깨닫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상좌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많은 수행자분들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떠나는 경우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

?스님의 유언을 접하면서 그 어느 열반송이 이보다 더 경건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스님다운 마무리였다는 생각을 했다. 영결식 등 일체의 형식적인 행사를 생략한 채 다비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금의 틈도 없이 언행일치의 삶을 살다 가신 스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관도 쓰지 말고 수의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입던 옷에 가사를 둘러 화장하라고 하신 스님의 유언에 따라 대나무 평상에서 가사 한 벌에 덮인 채 누워계신 스님의 모습은 가슴을 서늘하게 내리치는 죽비와도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스님은 마지막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듣자하니, 많은 스님들께서도 법정 스님의 영결식을 보면서 자신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고 한다. 스님께선 나에게 생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돌아가시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신 것 같다. 따로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잊을 수 없는 선지식 중의 한 분이셨다. 현생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인연에 감사드린다.

들꽃처럼 무심한 삶을

말에 씨가 있듯이 운에도 씨가 있다. 운명은 타고나더라도 팔자는 내가 길들이는 것이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사물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고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하지 선택할 수 있기에 인간이다. 우리 인간은 신구의 세 가지 업에 의해 살아간다. 업을 잘 조절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다. 우리는 전생과 현생에서 행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상황에 대한 대응법(태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롭게 반응하느냐, 무지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닦아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인과응보, 인연법, 연기법이라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로 세상을 보게 한다. 그러면 모두 내 탓이다. 그것이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바르게 알면 안심을 얻게 된다. 이러한 삶의 이치를 알게 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연민이 생겨 자비심을 베풀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부처님을 시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고자 했고 그 출발을 가정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십오륙 년 전 큰 병을 얻어 수술을 하러 갈 때, 모자와 메모지, 일기장을 모두 태워버렸다. 다행히 살아났고 평소 살던 대로 살고 있다. 공부방을 그대로 운영했고, 마음공부를 했고, 아이들에게도 잘해주었고 절에도 갔다. '아프다' 는 생각을 놓고 일상을 보냈더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실 분이 이렇게 입고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마디 들었다. 퇴원하는 날 눈물이 많이 나왔다. 예전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에 맞추어 살았지만 지금은 한 순간 한 순간 잘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정성을 다하는 것에 로버트처럼 작동한다. 목표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놓아버리니까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이 떨어졌다. 앞으로도 봄이면 산과 들에 이름 없이 새순을 틔우는 들꽃처럼 무심한 삶을 살고 싶다. 〈여여원 원장〉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행 스님

세세생생 끄달림 없는 자유인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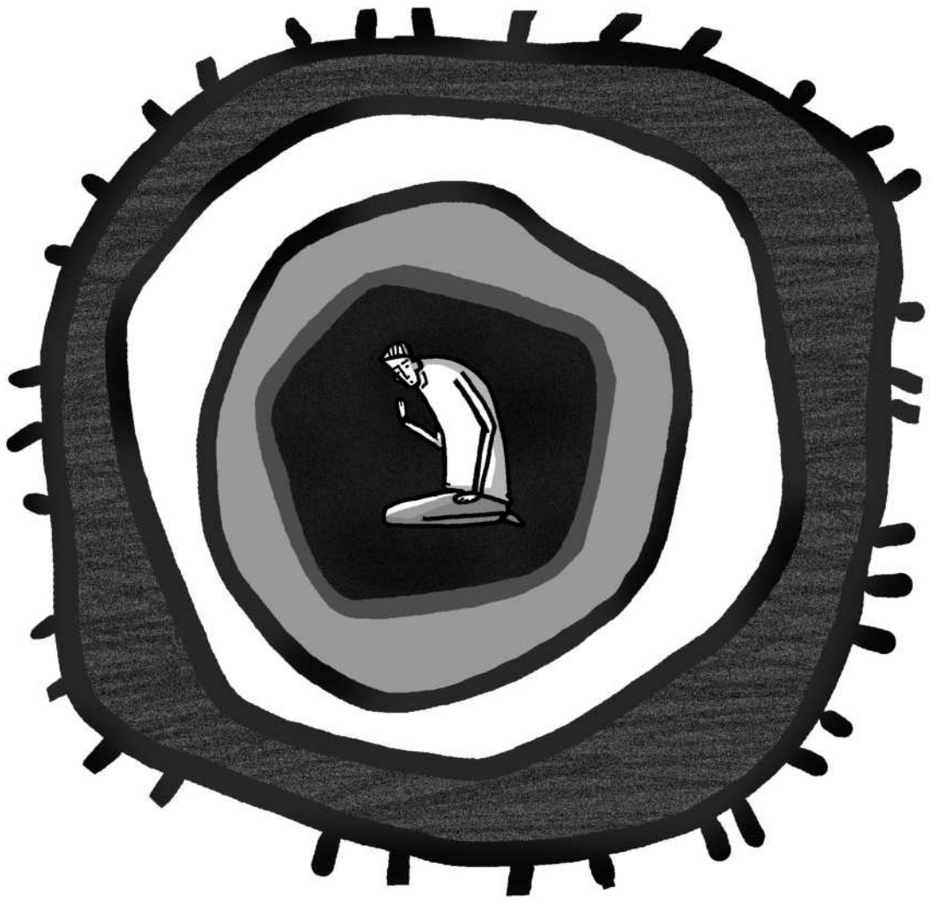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저 절에 나가서 기도나 하고, 그저 다녀 가면 되려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스님들이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스님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결부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나는 여기 왔다만 가도 되고 또 왔다만 가도 스님들은 다 아실 거다. 또 일체제불께서 다 통신이 되시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통신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는 걸 아는 까닭에 일체가 다 아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스님들 고깃덩어리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몸이 아닌 까닭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물리가 터지는 데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데 길을 어떻게 가야만 옳으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깐 때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질문으로 우리 서로 토론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질문자1(남): 제가 얼마 전에 육만 원짜리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돌려놓으려고 그래도 안되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건이 있은 후에 또 그보다 더 크게 십만 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돌려놔지고 그래서 또 화를 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삼십만 원짜리 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사십오만 원짜리가 터지면서 화재가 나는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번연히 알면서 이렇게 안 돌려놔지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하면서 다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아,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다 돌려놓으니까 돈은 내게 되었는데도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질문 내용은 안팎의 경계에 대해서 매일매일을 무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그냥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향상의 도리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면세계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이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이 걸렸더라도 그냥 무심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니까 '이것도 주인공 네가, 네가 한 거지.' 하면서 상대방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인해서 댁의 심부름을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고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삼십만 원이고 사십오만 원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대립이 되니까 알라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거를 두 번 세 번까지 가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이치가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웃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지 않는 거는 아닌데 믿지 않는 걸로 돼 있는 분들이 많죠. 주인공을 부르면서도 입으로만 불렀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걸요, 뭐.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간에 처음 왔어도 한번 일러준 거를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 즉 급박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쉬운 거 같아요. 우리가 병만 낫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되자고만 또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싹은 보호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뿌리로써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의,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너를 이끌어가는 선장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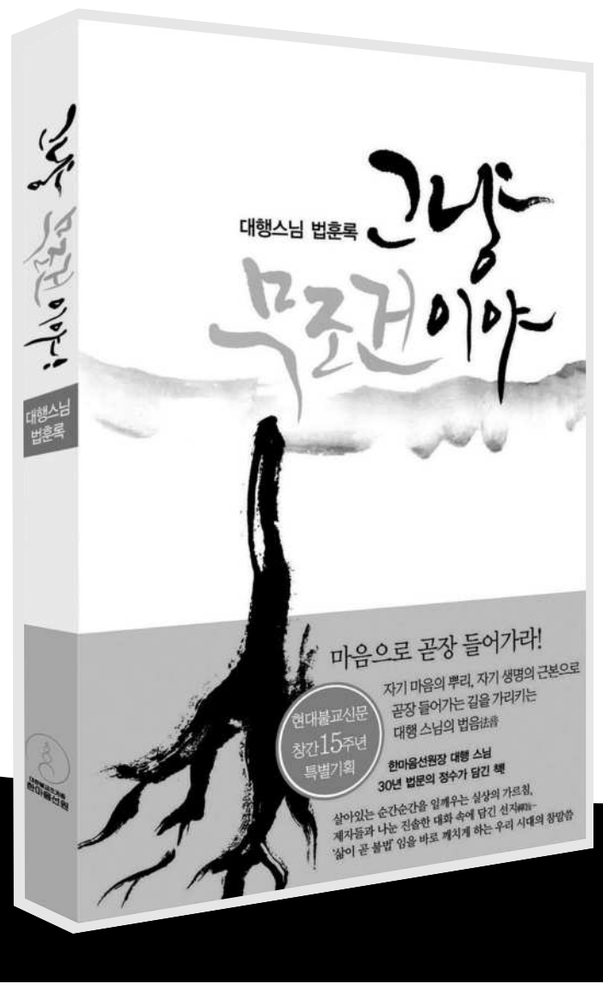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우리가 이 내면공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가만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 발자국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다 바람같이 사라지고, 내가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갈 뿐이고 디딜 뿐이고 움죽거릴 뿐이지 앞뒤가 없어요. 떼어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놈이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가운데,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현실에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움죽거리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놈 속에, 또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움죽거리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상대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을 잘 알아서 좀 실천으로 나가게끔 하십시오.

또 말할 거 있습니까?

질문자1(남):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몸이 아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물어보니까 법회에 안 나오면 좀 어딘가 서운하고 그래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나오면 좋으니까 또 이익이 되니깐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만큼 공부가 돼서, 또 뭐 귀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법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하늘이 무너져도 주장자 있는 사람 허허 웃을 수 있어

☞ 29면에서 계속

본을 믿도록끔 자기를 다지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나오시든지 나오시는 건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도 천차만별의 차원의 마음이 있으니깐요. 그거는 앞서 오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그렇게 거사님이 말한 거와 같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우리가 믿는 거는 자기 선장을 믿으면서 헤아릴 때, 귀신이 보인다 이런 것도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놔야지, 그걸 귀신 보이는 걸로 즐거워서 그리로 쫓아간다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일거수일투족이 이 마음 안에 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라고 하죠. 그 속에는 젖은 거 마른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또는 좋은 거 나쁜 거, 높은 거 얕은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잘 생각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해야지요. 그냥 그렇다고 근심 걱정을 해 가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인의롭고 여유 있고 지혜롭고 자비한 그 마음으로써 남을 해롭게 안 하고 또는 가정에서도 부드럽고 남의 탓을 안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저절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위로는 상세계에 통신이 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같이 또 첨보해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새도 듣고 하다못해 개구리도 듣고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마음먹은 거를 그렇게 듣고 있는 이가, 듣고 있는 자들이 이 허공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남이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러니만큼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면 모두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이롭게 생각을 내 준다면, 모든 거를 다 말입니다. 이롭게 생각을 내 준다면 거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죽어갈 때도 다 이롭게 살려 준다 이거야. 그게 '한손' 입니다. 한 마음, 한손, 한발로 딛는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정신세계의 모든 거를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가둬 두고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면 세세생생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고 하고 있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묻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물으셨으니까 또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한 겁니다. 이제는 경계가 그렇게 오면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그 안에 다시 그렇게 편안하게 놓으신다면 그 곱이 되돌아올 겁니다.

질문자2(남): 살생의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 생물들을 제가 살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기를 잡았고 재미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뱀을 한 마리 죽이면 죄를 하나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뱀을 때려잡아 죽이기도 했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굴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또한 수많은 개구리를 잡았고 그걸 팔기도 했고 밟아서 죽는 소리가 좋아서 죽이기도 했고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다가 큰 통에다 끓여서 닭에게 던져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나고서 생각을 해 보니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인공, 그 인연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밖에 없다.' 하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연들에 대한 그 생각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생각을 바꿔 놔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죄가 안 되고 되고는 그 생각 차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공한 도리를 스스로서 알면서 우리가 둘 아닌 도리를 행한다면 첫째, 아무렇게나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앞에 닥친 거, 부모를 보양을 한다든가 윗사람을 보양을 한다든가 뭐를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이게 됐을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하고 그 생각을 깊이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과 그 모습과, 즉 죽이는 모습 그것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 아니게 자기한테로 하나로 돌려놓으면 그냥 이거는 인간으로서 천도가 될 것이며 또 그 생명은, 모습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 양면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영 모르고 잡아 죽이거나 그런다면 하나하나가 더 부풀어 올라서 크게 죄업을 짓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생명을 마구 죽였으니까. 그런데 백정이 수십 년을 백정 노릇을 하다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서 백정 노릇을 그대로 하면서도 그 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몇십 년 전부터 죽였는데 지금 현실에 그냥 하나로 돼서 모두가 천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싹 없어진 거죠. 한생각에, 한 깨달음에 그냥 멀고 가까운 게 없이 그냥 다 한순간에 해치워 버린 거죠. 그렇게 해치워 버린 것과 같이 댁도 그렇게 했어도 지금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이 귀중하면 남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가신다면 그거는 다 무효가 됩니다. 왜 무효가 되느냐? 지금 알았으니깐 말입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그 영령은 댁의 마음 속에 전부 하나로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으니까 연방 들어갔다가 천도가 되고 연방 들어가서 천도가 되고 이러는 까닭에 그것이 모두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난리가 나서 싸우는데 군사가 이쪽은 백 명밖에는 안 되고 저쪽에는 천 명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쪽의 군사가 적으니까 그 군사를 이끄는 대장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꼭 이기게 할 수 있고 이 군사들을 용기 있고 의욕 있게 살게 해 주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형제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청했더니 저쪽 군사의 마음들이 전부 해이해져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됐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군사가 적군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보여 가지곤 자기 군사들을 자기네들이 다 죽여 버리더랍니다. 이러한 이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히 급할 때 그것도 응용하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기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천 명을 자기네들끼리 다 죽이고 한 다섯 명 남았는데 그때서야 눈이 떠지고 귀가 뜨이고 아, 우리 국민들도 잘 살아야 되고 저걸 보니깐 아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바로 사람들이 됨됨이에 의해서 나라도 섬기게 되는구나.' 하면서 뉘우쳐서 그 나라를 잘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들이 지금 생명 하나를 봐도 그게 내 생명과 같아서 애절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런 됨됨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된다 이러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리만큼 왔을 때에 마다하지 말라 한 거지, 강제로 일부러 때려 죽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온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마다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건 왜? 벌써 천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뛰어든 건데, 벌써 알고 뛰어든 건데 그거를 오히려 마다한다면 알고 뛰어들었던 그 영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간혹 이런 수가 있죠. 이웃집에 죽은 분이 '나 좀 말 좀 해 달라.' 고, '스님한테 가서 내 말만 해 달라.' 고 꿈에 나타나서 간청을 하더랍니다. 그런 예도 있듯이. 그래서 그 소리를 말만 들어도 자기는 되겠으니까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간청해서만이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계의 모든 이치를 모르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러고 가시니깐 답답한 게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무질서하게,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 들고 갈 겁니다, 아마. '전자에 과거에 너 이랬지?' 하고…. 하하, 그냥 무조건 알게만 해 놓으면. 이 수행을 거쳐서 그거를 알아야 오히려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어루만져 줄 겁니다, 원수라도.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도끼 들고 가고, 저놈 내가 죽여야 한다고 하고 하하하, 아마도 복수를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을 다 둘로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 모두 일체를 다 놓고 사는 사람, 여여하게 그냥 놓고 그냥 갈 뿐이고 들을 뿐이고 볼 뿐이다 하는 그런 사람 앞에 바로 열쇠를 맡기게 되고 바로 그런 걸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큰스님께서 대구 개구리소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는 관을 여러 사람들이 끝에라도 꼭 하라고 그렇게 일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계기로 해서 뭐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나는 대로 계속 그런 개구리 소년이 제 몸을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 주인공 자리에다 계속 관을 하고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큰스님: 그런데요, 그것을 마음으로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서 할 양으로 하지도 말고요. 또 내버릴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냥 내 몸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몸이 이런가 보다 하지도 말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몸과 결부시키고 내 고통을 그 고통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거를 그저 무심으로서 모두 결과가 좋게, 예를 들어서 모습이 잘못되었을 시에는 그 마음을 건져 주고, 우리가 언제든 한 번은 다 죽죠. 어려서 죽었어도 죽었다면 마음을 건져서 천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건져서 천도할 때는 그 소년들은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두 짊어지워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깐 모르고 짓는 거는 모르고 전부 무마가 될 수 있다, 길잡이가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건져 주는 겁니다. 나는 그 소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생생하게 살아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 그것은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 그러니 너의 내면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 바로 너를 이끌어 가는 선장을.

※위 법문은 1996년 1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 -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구입가 : 13,000원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품 상세보기 :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그림:박희진

불자 세상보기

학벌사회와 수능의 표류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1994학년도부터 도입된 대학시험능력시험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출제의 오류가 제기되었고, 복수 정답의 인정으로 인해 수험생의 표준점수와 등급이 달라지면서 입시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능의 개혁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큰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당은 세미나를 열고 당정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등 부산을 떨고 있고, 야당은 수능의 오류를 정권의 무능으로 질타하면서 개혁을 위한 팀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필자의 답답함은 어떤 대상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무력감에서 나온 답답함이다. 이러한 답답함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자들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육은 교육보다 평가를 중요시한다. 교육평가는 좀 더 나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교육은 교육보다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인가? 바로 한국사회가 학벌사회로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학교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해 왔다고 자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교가 흔들리고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학벌사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한국사회의 강력한 신분으로 등장하였고, 학벌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입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학벌사회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수능을 과연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1994년 수능의 등장은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나온 EBS 연계 출제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착한 의도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많은 폐단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오지선다형으로 변별력 있는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필자는 여러 경험에서 체감해 왔다. 나의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에서 정답을 찾지 못한 경험도 있다.

미국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SAT는 시험문제와 답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오류의 논쟁을 아예 차단하는 차가움을 보이고 있다. SAT를 주관하는 기관은 국가가 아닌 사기업체이고, 대학과 밀접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시험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매우 높다. 미국의 제도 운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미국 교육 흉내 내다가 한국 교육 망쳤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던가.

지금의 우리의 수능 시스템은 매우 폐쇄적이다. 수능출제(검토)위원은 한 달 여간 외부의 차단된 장소에서 출제하고 검토한다. 그리고 출제(검토)위원은 대개가 서로 익숙하고 아는 사이가 많다. 여기도 학벌사회적 요소가 가미된다고 볼 수 있다.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은밀하게 위원을 선출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출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의 오류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큰 방향은 열린 수능의 출제 방향이다. 열린 자세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차선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에 혁명은 없다. 혁명의 흉내를 낼 때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많이 배웠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학벌사회가 개인의 삶과 교육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지식정보사회에는 학벌이 사라질 것이다.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되찾고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 때 우리의 미래가 바로 선다. 수능의 오류를 보면서 우리 교육의 오류를 성찰해 보자.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이어지는 훼불 대책은 없나

훼불의 악몽이 이번에는 국보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재현됐다고 한다. 11월 20일 40대 여인이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전 뒷벽과 독성각, 명부전 등에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 이라는 특정종교의 주문을 검정색 사인펜으로 낙서했고, 사실을 인지한 사중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수사의뢰 2일만에 검거된 여인은 이 같은 내용의 한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낙서를 했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대형 훼불 사건과 굵직한 종교편향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큰 갈등이 없어왔지만, 최근에는 내재적 갈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불교계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대법원이 내년부터 불상 훼손 등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월 21일 제60차 전체회의를 열어 손괴죄 범위를 △재물손괴 △공익건조물 파괴 △지정문화재 손상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상습과 누범, 특수 손괴 등으로 처벌 수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이웃종교 시설 등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가중 처벌받게 된다. 다시 말해 훼불을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종교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도 수반돼야 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다. 특히 한국 문화재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종교적 이유의 테러는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적 손실이기도 하다. 양형 기준 상향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증오방지법 등이 제정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까지 '대중공사' 만 할 것인가

조계종이 오는 12월 23일 회향하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에 이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를 진행한다. 총무원은 이 같은 계획안을 11월 25일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총무원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 회향과 함께 '100인 대중공사' 발족하고, 내년 10개의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사부대중이 논의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에는 '물음표' 를 찍을 수 밖에 없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 전략' 으로 '100인 대중공사' 를 내놓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단 안팎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부대중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생명평화 1000일 정진과 함께 진행된 수차례의 야단법석에서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100인 대중공사' 가 계획하고 있는 10개의 주제도 "2011년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주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토론회' 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도 대부분 총무원 인사이거나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이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겠다" 고 대중공사를 열면서 추진 인사부터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 같은 형식의 대중공사가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낼 지는 미지수다. 되려 '그 나물의 그 밥' 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조계종은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해체된다" 고 했고,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이미 절반은 망했다" 고 지적했다. 이미 대중들은 산재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종단은 '도돌이표' 토론보다는 이제는 변화와 쇄신의 결과물을 내놓을 때이다. 정말로 대중공사가 필요하다면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발언대

해인사 훼불 사건

배타적 믿음이 증오범죄의 원인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최근 타종교시설에 대한 종교적 증오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교간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위상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신앙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 라는 명분으로 특별한 법적 제한없이 개인의 종교적 신앙심의 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나의 자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조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삶의 대전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하고 할 만한 종교적 증오발언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종교적 신앙심의 표현행위와 이로 인한 불편이나 권리 침해는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을까?

종교적 증오범죄가 양산되는 배경에는 첫째, 각 종교교단의 교리에 대한 배타적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이 최고라는 생각이다. 최고가 여럿 일 수는 없는 법이니, 서로가 최고라고 다투는 것은 필사적이다. 둘째, 각 종교교단이 종교적 증오범죄를 용인하는 듯한 그릇된 신행문화를 만들고 소속감을 확인하는 계기로 종교적 증오범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세째, 각 종교교단의 그릇된 신행문화를 견뎌내며 동화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곳에 기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에 잇따르고 있는 훼불사건이나 각종 종교 증오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의 길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도덕적으로 종교적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법의 지배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서울 '템플스테이 WEEK' 성황

1700년 불교사, 템플스테이의 동력



김상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차장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 OECD 주요국 가운데 행복지수는 늘상 하위권을 맴돈다. 정서적 가치의 평가절하가 당연시 되는 사회다.

박노해 시인의 글을 보던 중, '숨 가쁜 일상에서 잠시 기대앉아 깊은숨을 고르는 환한 자리 하나'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했다. 참 먹먹한 일이다. 이 계절의 추위를 다독일 휴양처 하나 없는 도심의 막막함이.

다행인 것은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WEEK)가 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9곳이 모두 참여,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한 2,500여명의 내·외국인이 도심 속 산사여행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하루 만에 예약이 모두 마감됐을 정도로 열띤 반응을 얻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삶의 지향이라 할 수 있는 '행복' 에 대한 갈망의 연장선이 아닐까?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산사의 열린 문. 이는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아이템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고유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템플스테이도 '행복 씨앗 가꾸기' 라는 시즌2의 철학을 재정비(올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던 해다)했다. 그 치열한 노력의 산물로, 템플스테이가 주는 웃음과 감동, 울음과 공감을 자아내는 산사여행에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1,700년 동안 유지 전승되어왔던 살아 있는 문화는 템플스테이의 또 다른 동력이다. 문화는 언제나 그 시대를 상징하고 움직이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문화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현재의 문화는 미래를 불러오는 근간이 된다. 문화재를 다루고 지키는 손길에 따라 그 국가의 선진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지키는 것 못지않게 문화를 향유하는 일도 중요하다.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켜온 산사에서, 그 안의 건축양식과 문화재, 생활양식 곳곳에 담긴 아름다운 공생의 가치를 누려보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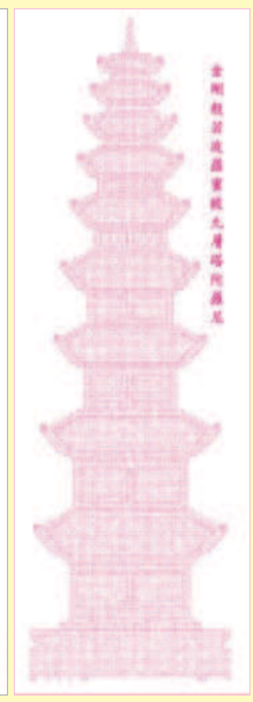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가 5,000원
• 68cm×195cm (먹색,적색)
• 전통재래한지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신성불을 주시는
신비의 칠여래부처님 부산자비선원에 나투시다!

미래가 궁금하고 답답하신 불자님들은 자비선원으로 오셔서
칠여래부처님을 친견하시고, 영험을 증득하십시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다보여래부처님 보승여래부처님 묘색신여래부처님 광박신여래부처님 이포외여래부처님 아미타여래부처님 감로왕여래부처님

• 다보여래부처님 : 입시 · 시험 · 고시응시생, 재판계류 해결
• 보승여래부처님 : 행복, 재물 축적, 백만장자의 지름길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결혼인연, 득남 발원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 · 전월세, 계약체결 성사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 · 공황장애 · 우울증 · 빙의 등 병고해탈
• 아미타여래부처님 : 극락왕생, 48가지 소원성취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 · 제조 · 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칠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홀연히 나타나신 큰 노스님이 주장자를 쥐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가던 중 계곡 입구에서 아주 볼품없는 못생기고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싣고 와서 황등석재공장에 맡겼다. 석장이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더니 스님은 "네모든 세모든 타원형이든 사장님이 알아서 다듬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둥근 돌이 다듬어져 왔다. 그 돌을 신중단에 올려 놓고 다게물을 올리려 하자 움직이지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지종을 말씀드려 큰스님 역시 들려고 하자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시며 잠시 좌정을 하셨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돌이 범상치 않은 돌인가 보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다. "왜 이렇게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시면서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으시며 네 분의 부처님의 응답을 받고 오여래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열심히 정진하던 중, 두 분의 부처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어 마침내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발돋움했다.

큰스님은 "원래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일곱 분의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보승여래부처님, 셋째 묘색신여래부처님, 넷째 광박신여래부처님, 다섯째 이포외여래부처님, 여섯째 아미타여래부처님, 일곱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야."하시며 "이 모두를 칠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NAVER 부산자비선원 검색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친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